

# 광개토왕릉비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 광개토왕릉비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

## 머리말

1. 제1면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2. 제2면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3. 제3면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4. 제4면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 맺음말

---

## 머리말

광개토왕릉비(이하 ‘능비’로 줄임)는 1880년 무렵에 재발견된 이래 140여 년간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능비의 글자 수는 총 1,775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20여자는 자획이 모두 박락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며,<sup>1)</sup> 150여자는 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능비의 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이유는 오랜 풍화와 균열에 따른 비면의 마멸과 박락에서 기인하지만, 재발견 직후 곧바로 원석탁본이 제작되지 못한 탓도 크다. 능비는 발견 당시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이에 비면에 馬糞[똥]을 바른 다음 불태웠는데, 이때 碑石이 균열되고 박락되었다.<sup>2)</sup>

더욱이 능비는 규모가 거대하고, 비면이 울퉁불퉁하여 전체를 탁본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초창기에는 비면에 종이를 대고 글자의 윤곽을 본뜬 다음 외곽에 먹칠하는 이른바 ‘墨水廓填本[雙鈎加墨本]’을 제작했다. 1883년 日本 陸軍 參謀本部의 스파이였던 酒匂景信이 가져갔던 酒匂景信本(이하 酒匂本) 및 2000년대 초반 中國 北京의 文物競賣會에 나왔던 潘祖蔭本이<sup>3)</sup> 대표적이다. 墨水廓填本은 글자의 윤곽을 본뜨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주관에 개입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물 크기의 판독문이라 할 수 있다.<sup>4)</sup> 그러므로 목수곽전본은 비면이나 글자의 원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종이를 비면에 직접 압착하여 탁본한 ‘原石拓本’은 1887-1889년에 비로소 제작되었지만,<sup>5)</sup> 능

---

1) 王健群이 총 글자가 1,775자임을 밝혔는데, 박락에 따른 판독 불가능자는 141자로 이 가운데 9자는 추독할 수 있고, 5자는 자획은 있지만 판독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王健群 1984, 7쪽). 비면 관찰을 통해 판독을 진행한 박진석은 판독 불가능자를 178자로 보았다(박진석 1993, 9쪽). 필자가 여러 원석탁본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자획이 모두 박락된 글자는 118자인데, 17자는 문맥상 추독이 가능하지만, 101자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일부 자획만 남은 글자는 45자인데(명확하게 판독되는 글자는 제외), 25자는 자획이나 문맥을 통해 판독·추독할 수 있지만, 4자는 일부 자획만 확인되며, 16자는 자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1775자 중 판독·추독 가능자는 1654자(1612자 판독, 25자 자획상 추독, 17자 문맥상 추독), 불가능자는 121자이다.

2) 顧燮光的『夢碧簞石言』; 楊守敬의「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碑跋」; 談國桓의「手札」; 박시형 1966, 260쪽; 박진석 1993, 8쪽. 능비를 불태운 시점은 1878-1879년(耿鐵華 1994, 58-66쪽), 1880-1881년(徐建新 2006, 25-28쪽; 武田幸男 2009, 93-94쪽), 1882년 이후(李進熙 1982, 119쪽) 등으로 파악된다.

3) 李超瓊이 1881년에 능비 탁본 2벌을 획득하여 1884년에 李鴻齋[眉生]와 潘祖蔭에게 선사했는데, 이 중 潘祖蔭에게 준 것이 발견된 것이다(葉昌熾「語石」; 徐建新 2006, 50-68쪽).

4) 葉昌熾「語石」의 “비면의 움푹한 곳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고, 또한 탁본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글자를描寫하여 종종 진실을 잃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

비 연구에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1890년대에 들어와<sup>6)</sup> 탁본 제작의 편의와 선명한 탁본 획득을 위해 비면에 石灰를 칠한 ‘石灰拓本’이 널리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石灰拓本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면의 罫線이나 마멸 부분뿐 아니라 선명하지 않은 글자 여백에도 석회를 칠하였다. 심지어 탁본 제작자가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석회를 발라 글자를 만들기도 하였다.<sup>7)</sup> 이로 인해 글자의 자획이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1938년 탁본 제작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한동안 탁본이 제작되지 않았지만,<sup>8)</sup> 석회도 더는 칠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석회가 박락되며 능비는 점차 원상을 되찾아 나갔고, 張明善本(1963년)과 周雲台本(1981년)이 제작되었다. 다만 1960-1970년대에도 비면 곳곳에는 석회가 남아 있었다. 張明善本과 周雲台本도 엄밀히 말하면 石灰拓本에 해당하는데,<sup>9)</sup> 실제 張明善本에서는 석회칠에 따른 자획의 변형 흔적이 다수 확인된다.<sup>10)</sup>

이처럼 1890년대 이후 제작된 석회탁본은 비면의 손상이나 자획의 변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1938년 이후 석회 칠은 중단되었지만, 그 잔흔이 완전히 박락되지 않았다. 더욱이 1960-70년대에 비석 보존을 위해 화학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면이 변형되기도 하였다. 현재로서는 비면 관찰을 통해 비문을 판독하더라도 비면의 손상과 자획의 변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sup>11)</sup> 그러므로 능비를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여러 원석탁본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실제 1959년 水谷悌二郎 이래<sup>12)</sup> 많은 연구자가 원석탁본에 의거하여 판독을 진행하여 목수곽전본이나 석회탁본에 따른 판독의 오류를 많이 수정하고, 상당수 글자를 推讀하기도 하였다.

다만 지금도 판독 논란 글자가 150여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연구자마다 자획을 다르게 판단한 데서 기인하지만, 상당수 글자는 풍화와 균열로 자획이 마멸·박락되었기 때문이다. 비면의 균열과 마멸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가 지적했지만,<sup>13)</sup> 판독 과정에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경우는 의외로 적다. 후술하듯이 제1면 3행 27자(1-3-27자)의<sup>14)</sup> 경우 ‘因’자와 ‘天’자 판독안이 제기되었는데, 이 글자 하단으로는 제1면의 2번 균열선이 지나간다. 이를 고려하면 이 글자는 ‘天’자보다 ‘因’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

5) 談國桓의 「手札」에 따르면 1887년에 奉天省 督學使 楊頤가 6벌, 羅振玉의 「侖廬日札」등에 따르면 1889년에 北京의 拓工 李雲從이 50벌을 제작했다(박시형 1966, 37쪽 및 47쪽). 현재까지 확인된 원석탁본은 총 14종이다. 이중 대만의 傅斯年乙本, 중국의 北大E本, 王氏 소장본, 중국국가도서관본 등 4종은 1887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의 청명본과 혜정본, 대만의 傅斯年甲本, 중국의 北大A·B·C·D본, 일본의 水谷悌二郎本과 金子鷗亭本, 『書通』장간호(1973) 소개본 등 10종은 1889년에 李雲從이 제작한 탁본으로 추정된다(徐建新 2006, 131-132쪽; 武田幸男 2009; 백승욱 2014, 18-23쪽).

6) 石灰를 칠한 시점은 1890-1894년(徐建新 2006, 168쪽), 1895년경(武田幸男 2009, 123-124쪽), 1900년경(王健群 1984, 32-35쪽), 1904년경(耿鐵華 1994, 378쪽) 등으로 파악된다. 1993년 天津 文運堂에서 1890년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石灰拓本이 발견되었다(徐建新 2006, 166-170쪽).

7) 王健群이 석회탁본 제작자였던 初天富-初均德의 후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981년 10월 23일에 初均德의 조카인 初文泰가 보유한 ‘手抄本’을 확인했다(王健群 1984, 17-21쪽). 이 ‘手抄本’에는 1면 1행 29자(世->出)나 31자(而->子) 등 석회탁본에 의해 변형된 글자와 같은 글자가 다수 나오는데, 初天富-初均德 부자가 이 ‘手抄本’을 바탕으로 비면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변형했음을 잘 보여준다.

8) 1938년 8월에 日帝의 괴뢰 정권인 滿洲國이 능비의 탁본 금지령을 내렸는데(武田幸男 2009, 348쪽), 전문 拓工이던 初天富 부자도 1938년경에 탁본 제작을 그만두었다고 한다(王健群 1984, 14쪽).

9) 徐建新 2006, 296쪽; 武田幸男 2009, 378쪽

10) 여호규 2019, 34쪽

11) 1960년대 이후 북한과 중국의 학자들이 비면 관찰을 통한 판독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했는데,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박시형 1966; 王健群 1984; 박진석 1993; 耿鐵華 1994 등을 들 수 있다.

12) 水谷悌二郎, 1959; 水谷悌二郎, 1977

13) 박시형 1966, 5-6쪽; 王健群 1984, 22-23쪽

14) 능비의 글자 위치는 ‘면-행-자’의 순서로 표기한다. ‘1-3-6자’는 제1면 3행 6번째 글자를 지칭한다.

이에 비면의 마멸과 박락 양상을 고려하면서 여러 원석탁본을 비교하여 판독을 진행하고자 한다.<sup>15)</sup> 이를 위해 각 비면 사진과 목수곽전본, 원석탁본, 석회탁본을 대표하는 酒匂本, 水谷悌二郎本(이하 水谷本), 샤반느본을 비교하여 비면 현황을 관찰하였다. 또 酒匂本,<sup>16)</sup> 샤반느본, 張明善本,<sup>17)</sup> 水谷本,<sup>18)</sup> 金子鷗亭本(이하 金子本),<sup>19)</sup> 傅斯年甲本,<sup>20)</sup> 北大A본,<sup>21)</sup> 청명본(규장각본<sup>22)</sup>),<sup>23)</sup> 혜정본<sup>24)</sup> 등 9종 탁본을 글자별로 集字하고,<sup>25)</sup> 여러 연구자의 판독안을 집성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선학제현의 아낌없는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15) 필자는 2020년 상반기에 판독 작업에 착수하여 2021년 7월에 한국연구원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했고, 2021-2022년에 한국외대 사학과 대학원생들과 판독안을 여러 차례 검토했다. 2022년 6월 30일에는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고구려금석문연구반의 안정준, 이준성, 권순홍, 백다해, 전상우, 나유정, 오진석, 김지호 선생님 등과 판독안 검토모임을 가졌다. 2022년 11월 4일에는 안동대 임세권 명예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서울교대 임기환, 안동대 김종복 교수, 한국외대 박사과정의 나유정 양과 청명본을 검토하였고, 11월 10일에는 나유정 양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방문하여 규장각본을 검토하였다. 탁본과 판독안 검토 과정에서 조언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6) 武田幸男 1988, 216-223쪽

1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97-264쪽

18) 武田幸男 1988, 40-87쪽

19) 武田幸男 1988, 140-211쪽; 武田幸男 편 2007

20) 武田幸男 1988, 90-137쪽

21) 임기중 1995, 13-60쪽

22)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廣開土大王陵碑文拓本(奎古 929.5 G994)>(이하 ‘규장각본’)은 청명본의 결락본(3면 1행-6행 35자)으로 확인되었다(권인한 2015, 295-316쪽). 필자도 탁본 검토 과정에서 두 탁본의 표지가 본래 감청색 섬유 재질로 동일했음을 확인했다. 청명본은 1973년 가을에 간행된 『書通』장간호에 처음 공개되었다. 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우정훈 사서에 따르면 규장각본은 본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도서관부에는 1975년 10월 2일에 정리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규장각본이 1975년 10월 2일 이전에 서울대 도서관에 입고된 것이다. 청명본과 규장각본의 소장처가 달라진 경위를 추적하는데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한다. 규장각본 판독에는 서울대 국사학과 남동신 교수 소장 사진과 2022년 11월 10일에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였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남동신 교수께 감사드린다.

23) 임세권·이우태 편저 2002, 8-247쪽;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지식포털 / 한국금석문 / 광개토태왕릉비 ([https://portal.nrich.go.kr/kor/ksmUstrView.do?menuIdx=584&ksm\\_idx=2512](https://portal.nrich.go.kr/kor/ksmUstrView.do?menuIdx=584&ksm_idx=2512))

24)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 5-1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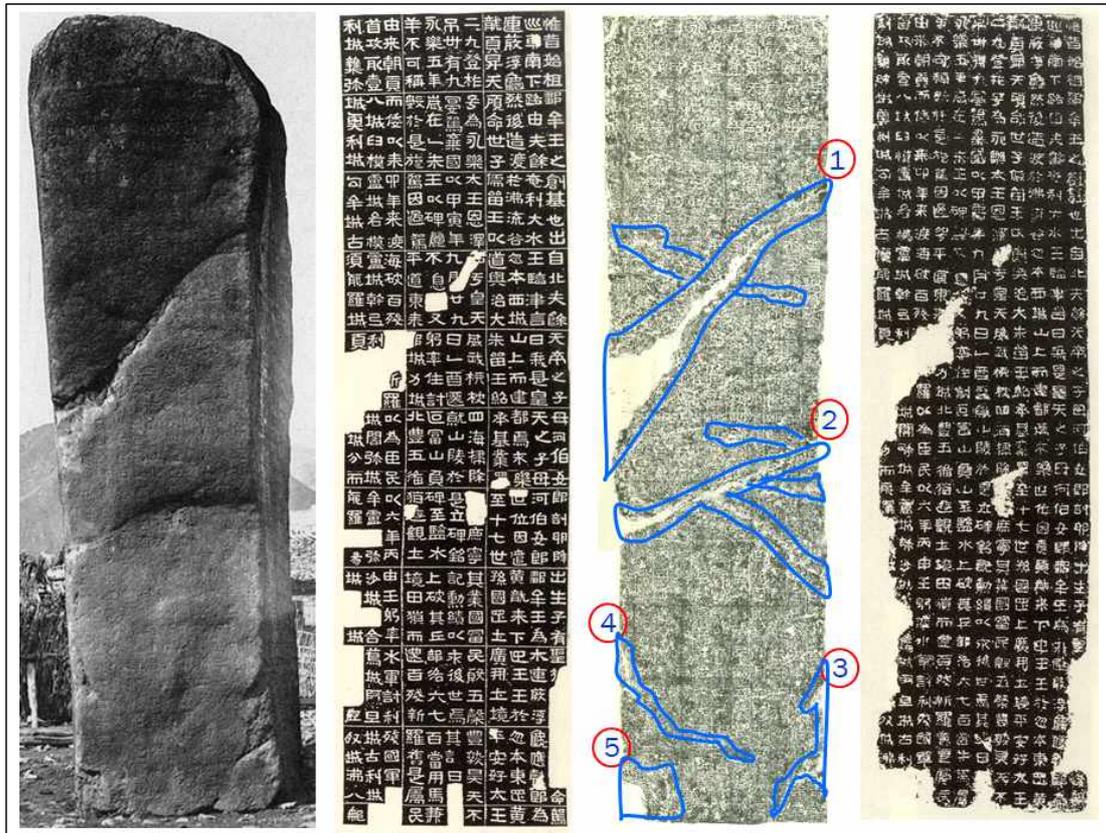
25) 탁본의 集字 작업을 도와준 한국외대 사학과 박사과정의 나유정 양과 문영철 군께 감사드린다.

## 2. 제1면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 1) 제1면 중상단의 균열·박락 부분 판독

능비는 사각 기둥모양인데, 높이는 6.39m이다. 상단과 하단이 넓은 반면, 중단은 조금 잘록하여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듯한 형상이다. 횡단면은 마름모꼴에 가깝고, 각 면의 너비도 다르다. 하단의 너비를 기준으로 하면 제1면은 1.48m, 제2면은 1.35m, 제3면은 2.00m, 제4면은 1.46m 등으로 제3면이 가장 넓다.

<그림 1-1> 제1면의 비면 현황



<부표 1-1> 제1면의 판독 논란자 판독안 비교 : 별도 파일 참조

<부표 1-2> 제1면의 판독 논란자 탁본 비교 : 별도 파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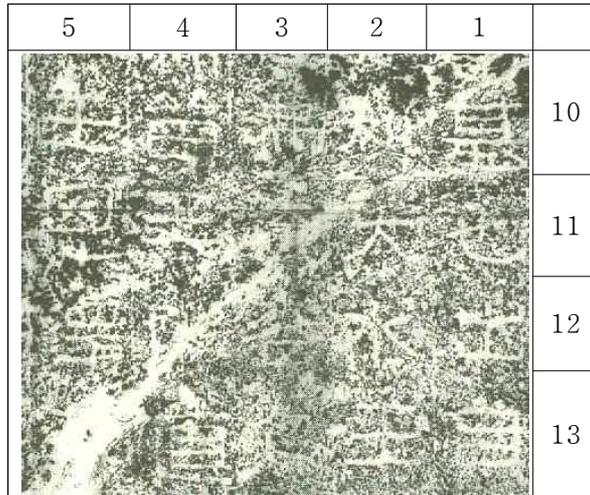
제1면은 11행으로 행당 41자씩 새겼는데, 6행 하단의 40-41자는 刻字하지 않고 空隔으로 남겨 두었다. 제1면에는 총 449자를 새긴 것이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제1면에서는 비면의 균열이나 박락이 크게 5개 확인된다. 酒匂本에서도 이러한 균열이나 박락 부분을 따라 공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능비 재발견 당시 또는 그 직후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제1면의 판독 논란자는 43자 전후인데(<부표 1-1>), 대부분 균열과 박락 부분 안팎에 걸쳐 있다. 이에 균열과 박락의 진행방향과 자획의 마멸양상을 고려하며 판독을 진행하고자 한다.

제1면 중상단의 ①번 균열·박락 부분은 'X'자 모양을 이룬다(<그림 1-1>의 ①). 이 가운데 右上-左下 방향으로 비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균열은 1행 10자에서 시작해 좌측 아래로 확대된다. 4행까지는 3행 11자(流)나 4행 12자(以)를 지나며 자획에 크랙과 마멸을 일으켰지만, 판독에는 큰 문제가 없다(<그림 1-2>). 반면 5행부터 균열이 점차 커져, 11행에서는 18자-21자 등 네 글자가 박락될 정도로 넓어졌다(<그림 1-3>). 이로 인해 7행 15자, 9행 18자, 10행 18-20자, 11행 18-21자 등 9자는 자획이 모두 박락되었다. 5행 13자, 7행 16자, 8행 17자, 9행 17자도 많이 마멸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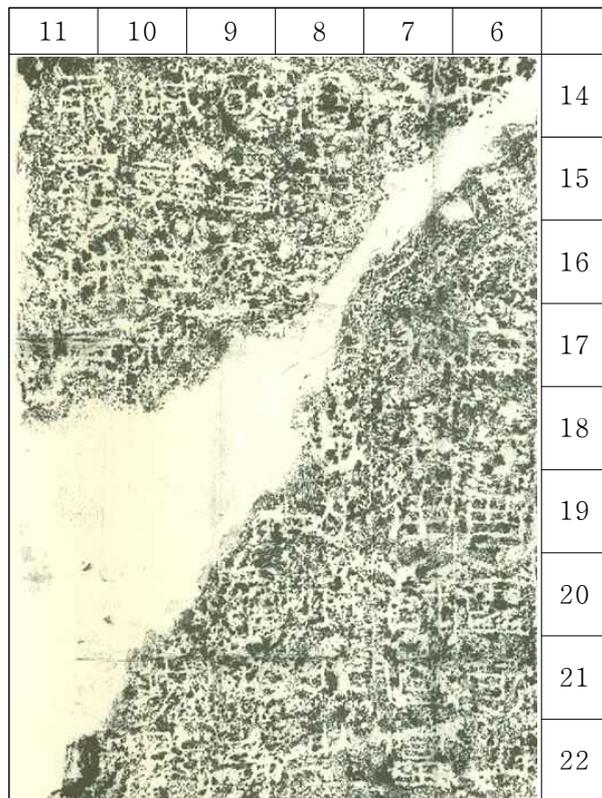
右下-左上 방향 균열은 2행 14-15자 사이에서 시작해 6행까지 수평으로 뻗어나가는데, 글자 사이를 지나 자획을 거의 마멸시키지 않았다. 반면 6행 14자(月) 지점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左上으로 뻗어가며 자획에 크랙과 마멸을 많이 일으켰다. 이른바 신묘년조와 관련해 논란이 분분한 9행 13자도 이곳에 위치한다.

1번 균열·박락 부분에는 판독 논란자가 모두 14자 위치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1행 10자에서 좌하 방향으로 뻗은 균열 부분에 위치하는데, 자획의 박락도 대체로 균열선을 따라 右上-左下 방향으로

<그림 1-2> 제1면 ①번 균열의 위상단<sup>26)</sup>



<그림 1-3> 제1면 ①번 균열·박락의 좌하단



26) 비면의 균열·박락 양상을 표현한 그림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水谷本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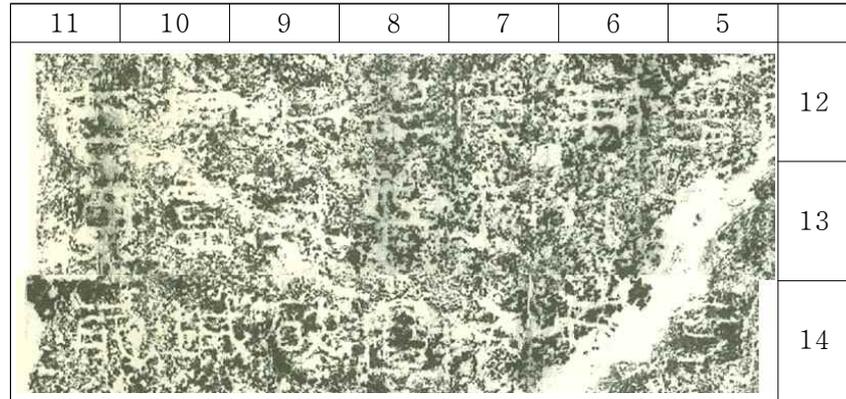
일어났다. 이에 균열선의 방향과 그에 따른 자획의 마멸과 박락 양상을 고려하면서 판독을 진행하고자 한다.

5행 13자는 균열선이 글자 정중앙을 右上-左下 방향으로 지나가며 자획을 박락시켰다. 다만 균열선 바로 외곽인 右下와 左上에

는 자획이 조금 남아 있다. 종래 이 글자는 ‘洽’자나 ‘格’자로 판독되었는데,<sup>27)</sup> 거의 모든 원석탁본의 우하단에 ‘口’ 자획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부표 1-2>). 그런데 청명본, 혜정본, 水谷本, 金子本 등의 좌상단에서는 ‘木’획의 일부가 확인된다(<표 1-1>). 1-5-13자는 ‘格’자로 판독할 수 있다.<sup>28)</sup>

7행 15자는 ‘我’나 ‘兌’으로 판독하기도 하지만, 자획이 모두 박락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다. 7행 16자도 右上-左下 방향의 균열선을 따라 左上 부분의 자획이 박락되었다. 다만 右下 부분의 자획은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탁본에 따라 남아 있는 정도가 다르다. 金子本, 北大A본, 傅斯年甲本 등에는 ‘人’ 자획만 확인되지만, 청명본, 혜정본, 水谷本에는 ‘久’ 자획이 모두 남아 있다. 金子本 등에 ‘人’ 자획만 확인되는 것은 균열선 부근을 완전히 탁본하지 않은 결과이다(<표 1-1>). 1-7-16자는 ‘久’로 판독할 수 있다.

<그림 1-4> 제1면 ①번 균열·박락의 좌상단 부분(水谷本)



<표 1-1> 제1면 ①번 균열 좌하단 5-7행 판독 참조자

1-5-13자(格) 청명본	1-5-13자(格) 혜정본	1-5-13자(格) 水谷本	1-5-13자(格) 金子本	1-5-13자(格) 傅斯年甲本
1-7-16자(久) 청명본	1-7-16자(久) 혜정본	1-7-16자(久) 水谷本	1-7-16자(久) 北大A본	1-7-16자(久) 金子本

8행 17자를 ‘候’로 판독하기도 하지만, 청명본, 혜정본, 北大A본 등의 우변에서는 ‘β’ 자획이 확인된다(<표 1-2>). 다만 균열선이 이 글자의 좌측 부분을 지나며 좌변 자획이 박락되어 무슨 글자인지 판독할 수 없다.<sup>29)</sup> 8행 18자도 좌상단의 자획 일부가 박락되었지만, ‘城’자 자획이 대부

27) 각 연구자의 견해는 부표에 제시했고, 부표에 없는 연구자의 견해에 한해 전거를 인용한다.

28) 白崎昭一郎 1993, 105-106쪽

분 남아 있어 판독에 별다른 이견은 없다(<표 1-2>).

<표 1-2> 제1면 ①번 균열 좌하단 8-11행 판독 참조자

1-8-17자(△β) 청명본	1-8-17자(△β) 혜정본	1-8-18자(城) 청명본	1-8-18자(城) 혜정본	1-9-17자(■) 청명본
1-9-17자(■) 傅斯年甲本	1-9-19자(△ㄱ) 청명본	1-9-19자(△ㄱ) 혜정본	1-11-17자(頁) 혜정본	1-11-17자(頁) 金子本

9행부터 균열이 크게 확대되며 17-19자 등 세 글자를 박락시켰다. 이 가운데 가장 위쪽의 9행 17자는 자획이 거의 모두 박락되었다. 다만 傅斯年甲本과 청명본에는 상단에서 橫線이 몇 개 확인된다. 이에 初天富의 手抄本을 근거로 ‘東’자로 판독하기도 하지만,<sup>30)</sup> 傅斯年甲本을 확대해보면 중앙 부분에서 ‘回’자의 상단 자획이 확인된다(<표 1-2>). 현재로서는 판독 불가능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9행 18자는 자획이 모두 박락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다. 9행 19자는 좌변의 자획은 박락되었지만, 우변에 ‘斤’획이 확인된다(표 1-2). 이에 대부분의 연구자가 아래의 ‘羅’자와 연결하여 ‘新’자로 추독한다.

이 부분의 균열이 10행에서는 18-20자, 11행에서는 18-21자를 지나며 자획을 모두 박락시켰다. 이 가운데 10행 18자는 17-18자의 성곽 명칭과 연결하여 ‘城’자로 추독할 수 있지만, 나머지 6자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11행 18-19자를 ‘鄒城’으로 판독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11행 17자는 균열 부분 위쪽에 위치하여 자획이 잘 남아 있다. 다만 탁본에 따라 橫線이 조금 불명확하여 ‘莫’, ‘須’, ‘頁’ 등 다양한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須’자 판독안은 좌변에 ‘彡’ 자획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성립하기 힘들다. 金子本이나 혜정본의 중단에서 ‘目’ 획, 하단에서 ‘八’획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頁’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표 1-2>). 1-11-17자는 ‘頁’자 판독안에 따른다.

10행 22자와 11행 23자도 균열 부분 외곽에 위치하여 자획이 잘 남아 있다. 10행 22자는 문헌사료의 ‘關彌城’에 의거해 ‘關’자로도 판독하지만, <부표 1-2>에서 보듯이 원석탁본의 ‘門’획 아래에서 ‘各’획을 확인할 수 있다. 1-10-22자는 ‘關’자로 판독된다. 11행 23자는 ‘介’나 ‘芬’으로도 판독하지만, 상단에서 ‘++/ㄣ’ 자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하단 자획은 ‘介’자보다 ‘分’자의 자획에 가깝다. 특히 漢代 尹宙碑의 ‘分’자에서 이 글자와 동일한 자형을 확인할 수 있다(<표 1-3>).

29) 8행 17-18자(△β城) 전후에는 襄平, 力城, 北豐 등 漢代 이래 遼東郡 속현의 명칭이 다수 등장한다. 이로 보아 8행 17자는 지금의 蓋州 일대로 비정되는 平郭의 ‘郭’자일 가능성이 있다.

30) 손영종 2001, 25쪽; 권인한 2015, 116쪽

1-11-23자는 ‘分’으로 판독된다.

<표 1-3> 제1면 ①번 균열 판독 참조자(1-11-23자, 1-2-15자, 1-7-14자)

1-11-23자(分) 해정본	1-11-23자(分) 金子本	1-11-23자(分) 北大A본	漢 尹宙碑(分)	1-2-15자(聿) 傅斯年甲本
1-2-15자(津) 청명본	1-2-15자(津) 金子本	1-7-14자(司) 청명본	1-7-14자(司) 해정본	1-7-14자(司) 金子本

2행 14자-15자 사이에서 시작된 균열선은 6행까지 글자 사이를 따라 수평으로 뻗어나가 자획을 마멸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2행에서 6행까지는 이 균열선 주변에 판독 논란자가 없다. 2행 15자는 이 균열선 바로 외곽에 위치하여 자획의 마멸은 없다. 종래 많은 연구자가 고구려 건국설화를 참조하여 ‘津’자로 판독했다. 다만 <표 1-3>과 <부표 1-2>에서 보듯이 이 글자는 좌변에서 ‘彳’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聿’의 縱線이 글자의 정중앙을 지난다. ‘彳’획을 새길만한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에 ‘聿’ 판독안이 다수 제기되었다.<sup>31)</sup> 그런데 청명본과金子本에서 보듯이 ‘聿’자의 하단 3개의 가로획 좌측 끝단에 둥그스름한 획이 일정 간격으로 있는데, ‘聿’에 붙여서 ‘彳’획을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1-2-15자를 ‘津’자로 판독하고자 한다.<sup>32)</sup>

이 균열선은 6행 14자(月) 지점에서 두 줄기로 갈라져 좌상 방향으로 향하며 7행 14자, 9행 13자, 11행 13자 등을 마멸시키고 크랙을 일으켰다. 7행 14자의 경우, 좌변은 크랙이 많아 자획을 판별하기 쉽지 않다. 우변도 미세한 크랙이 여러 개 있지만, 여러 원석탁본에서 ‘司’획을 확인할 수 있다(<표 1-3>).<sup>33)</sup> 좌변 자획은 ‘彳’변이나<sup>34)</sup> 또는 ‘示’변일<sup>35)</sup> 가능성이 있지만, 크랙 때문에 단정하기는 힘들다. 1-7-14자는 우변에 ‘司’획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최종 판독을 보류한다.

9행 13자는 능비 판독에서 논란이 가장 분분했던 글자이다. <부표 1-1>에서 보듯이 이 글자는 ‘海’자로 판독하거나 판독 불능자로 처리한 경우가 많지만, ‘溟’(손영종), ‘每’(耿鐵華, 白崎昭一郎), ‘泗’(임기중), ‘濼’,<sup>36)</sup> ‘因’,<sup>37)</sup> ‘王’<sup>38)</sup>, ‘是’,<sup>39)</sup> ‘涸’,<sup>40)</sup> ‘伴(叛)’<sup>41)</sup> 등 다양한 판독안이 제기되었다.<sup>42)</sup> 이

31) 박진석 1993, 35쪽; 白崎昭一郎 1993, 74-75쪽; 고광의 2014a, 28-30쪽; 고광의 2014b, 288-290쪽, 王健群 1984, 120쪽에서는 탁본의 자형은 ‘聿’이지만, 실제로는 ‘彳’변이 있다고 했다.

32) 필자도 당초 ‘聿’자로 판독했다가 2022년 11월 4일 청명본 원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고대 임기환 교수의 조언을 토대로 ‘津’자로 판독하게 되었다. 조언을 해주신 임기환 교수께 감사드린다.

33) 임기중 1995, 336쪽; 고광의 2014a, 32쪽; 고광의 2014b, 293-294쪽

34) 임기중 1995, 336쪽

35) 고광의 2014a, 32쪽; 고광의 2014b, 2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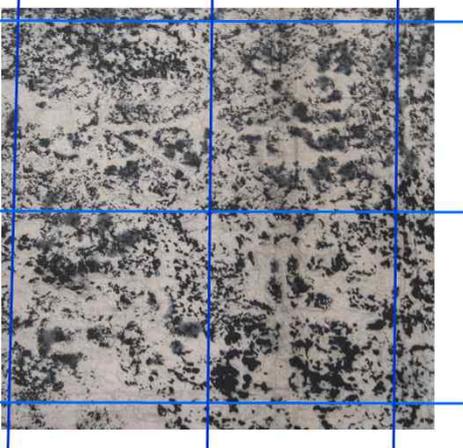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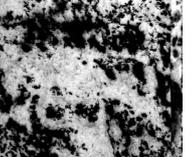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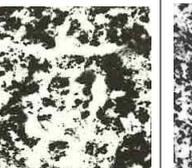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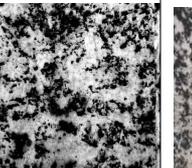
36) 김영만 1980, 44-46쪽

37) 이형구는 비문위조설에 근거하여 이 부분의 ‘來渡海’를 ‘不貢因’으로 판독했다(이형구·박노희 1995, 172-192쪽).

글자에 대한 판독 논란은 이른바 신묘년조의 해석과 깊이 연관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8행 13자(平)와 14자(道) 사이를 지난 균열선이 이 글자의 중앙부를 右下-左上 방향으로 관통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획과 크랙이 혼동되어 자형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힘들었다. 실물 크기의 판독문인 酒匂本에서 ‘海’자로 판독한 다음 ‘彳’변을 좌측 패선에 걸쳐 놓은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종래 많은 연구자들이 하단의 자획이 橫長方形을 이룬다고 보았다. 실제 청명본, 혜정본, 北大A본, 傅斯年甲本 등을 보면 ‘日’자나 ‘母’자를 橫長方形으로 새긴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좌측 패선과 橫長方形 자획 사이에 다른 자획이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된다. 이에 묵수곽전본이나 일부 석회탁본에서 ‘彳’변을 좌측 패선에 걸쳐 놓았으며, ‘每’자 판독안도 제기된 것이다.<sup>43)</sup>

<표 1-4> 1-8-12자 및 1-9-13자 판독 관련 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水谷本</p>	1-9-13자(海) 水谷本	1-9-13자(海) 金子本	1-9-13자(海) 청명본/혜정본	
				
1-9-13자(海) 北大A본	1-9-13자(海) 傅斯年甲本	1-5-22자(海) 金子本	3-8-32자(海) 金子本	3-4-15자(潰) 水谷本
				
1-8-12자(襄) 水谷本	1-8-12자(襄) 水谷本	1-8-12자(襄) 혜정본	1-8-12자(襄) 청명본	3-3-41자(穰) 水谷本
				

그렇지만 이 글자의 하단 자획을 橫長方形으로 판단한 것은 자획과 크랙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38) 서영수 1982, 35쪽; 김영하 2012, 230-235쪽

39) 이도학 2012; 이도학 2020, 85쪽

40) 백승욱 2015, 256-271쪽

41) 최연식 2020, 268-2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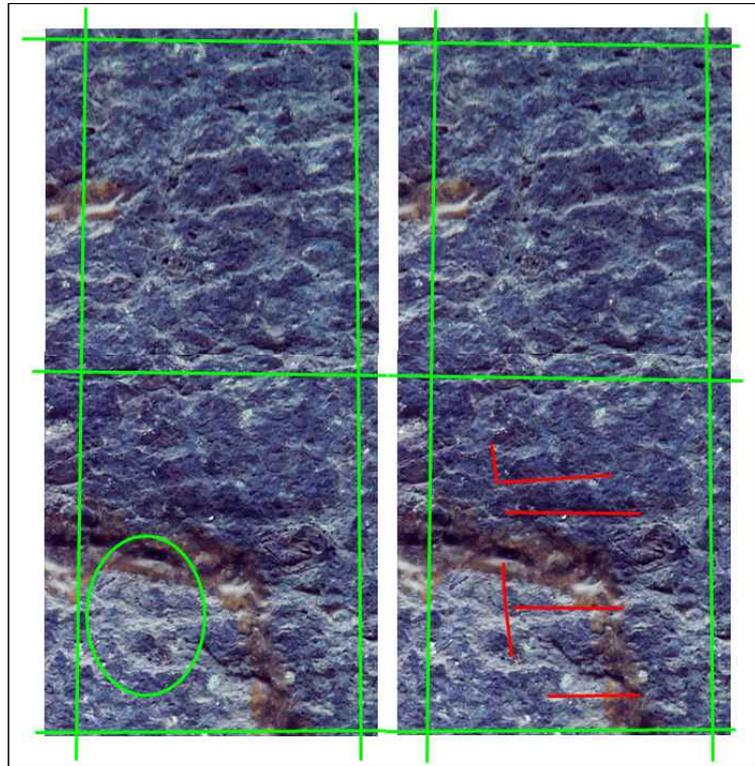
42) 고광익 2015, 151-158쪽; 백승욱 2015, 252-271쪽; 기경량 2022, 91-95쪽 참조.

43) 白崎昭一郎 1993, 152-154쪽; 耿鐵華 1994, 108-109쪽. 다만 白崎昭一郎은 ‘海’자의 ‘彳’획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 ‘每’자의 뜻을 ‘海’로 풀이하였다.

<표 1-4>의 水谷本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 연결된 자획이 아니며, 金子本에서도 圓弧를 이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종래 ‘田’획이나 ‘母’획의 좌측 縱線으로 파악한 부분은 균열에 따른 크랙이다.<sup>44)</sup> 오히려 水谷本과 金子本에서는 이 크랙 안쪽에서 곧은 縱線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세로 방향으로 길쭉한 ‘母’ 자획을 상정할 수 있다. 또 이 자획의 상단에서는 ‘丨+一’획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임세권 교수가 찍은 사진에서도 확인된다.<sup>45)</sup> <그림 1-5>에서 보듯이 종래 ‘田’자나 ‘母’자를 橫長方形으로 새긴 것으로 보았던 좌하단 자획은 圓弧를 그리는데(동그라미 부분), 박락 부분의 외곽 라인이다. 오히려 圓弧의 오른쪽에 ‘丨’획이 있는데, 金子本이나 水谷本에서 확인되는 ‘母’획의 왼쪽 縱線에 해당한다. ‘丨’획의 오른쪽에서는 가로 방향의 ‘一’획이 일정 간격으로 3개 확인되며, 그 상단에서는 ‘丨+一’획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진을 통해서도 1-9-13자의 중간과 오른쪽 부분에서 세로 방향으로 길쭉한 ‘母’획을 확인할 수 있다.<sup>46)</sup>

<그림 1-5> 1-9-13자 사진과 자획 판별



그리고 탁본이나 사진 모두에서 ‘母’획과 좌측 패선 사이에서 가로 방향의 짧은 선이나 점이 여러 개 확인되는데, ‘渡’자의 ‘彳’변과 위치나 형상이 거의 같다. 다만 水谷本에서는 선이나 점이 일정 간격으로 분포한 반면, 金子本에서는 중하단에서만 확인된다. 이 경우 ‘彳’변이 하단에 치우

쳤다고 보아야 하는데, 3-4-15자(潰)에서 ‘彳’변이 중상단에 치우친 사례가 확인된다. 水谷本이나 金子本 가운데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좌변에 ‘彳’변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9-13자는 ‘海’자로 판독할 수 있다. 실제 이 글자의 자형은 ‘海’자인 1-5-22자나 3-8-32자와 유사하다(<표 1-4>). 특히 후술하듯이 1-8-25자도 ‘海’자로 판독되는데, 이 글자와 자형이 거의 같다(<표 1-7> 참조).

8행 12자도 1-9-13자처럼 右下-左上 방향으로 미세한 크랙이 여러 개 지나간다(<그림 1-4>),

44) 기경량 2020, 48-49쪽에서도 종래 자획이라 판독한 좌측 부분이 실제 자획이 아니고 비면이 깨어진 부분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확한 자형을 제시하지 않았다.

45) 이 사진은 2022년 11월 4일 임세권 명예교수의 연구실인 안동 유안사랑을 방문하여 청명본을 검토할 때 제공받은 것이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임세권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46) 백승욱, 고광의, 기경량도 임세권 교수의 사진을 검토했다. 백승욱은 사진을 통해 1-9-13자는 段이 진 부분이어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刻字했다고 파악한 다음, 좌변에 ‘彳’획, 그 오른쪽에 횡장방향의 ‘田’획을 새겼고, ‘田’획 상단의 가로획은 크랙이라고 보았다(백승욱 2015, 257-271쪽). 고광의는 사진이 균열과 필획이 혼재된 상황을 보여준다고 여러 원석탁본을 검토해 정상적인 서사 상황에서는 좌변에 ‘彳’획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고광의 2015, 158-171쪽). 기경량은 횡장방향의 ‘田’자나 ‘母’자로 보았던 하단 가로획 2개를 단층의 경계라고 파악한 다음, 좌상변에 ‘彳’의 상단 2개 획, 우상단에 ‘母’의 가로획 2개, 우하단에 ‘母’의 중간과 오른쪽 세로획 등이 확인된다고 ‘海’자로 판독했다(기경량 2022, 95-99쪽).

<표 1-4>. 이로 인해 크랙이 자획을 흘트리며 판독에 많은 혼선을 일으켰다. 다만 3-3-14자(穰)와 비교하면 최상단에서 ‘一’획의 ‘一’획 우측 부분, 중상단에서 좌우로 쌍을 이루는 ‘口’획 2개, 중하단에서 횡방향의 ‘一’획 2개(또는 3개)와 종방향의 ‘丨’획 2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하단에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衣’획의 하단 부분을 상정할 수 있다.<sup>47)</sup> 1-8-12자는 모든 획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王健群의 판독안처럼 ‘襄’자에 가깝다. 문맥까지 고려하여 ‘襄’자 판독안에 따른다.

11행 13자는 이 균열의 끝단에 위치했는데, 특히 右上-左下 방향의 크랙은 10행 12-13자 부근에서 각기 右上과 左下 방향으로 흩어진 균열선에 의한 것이다. 다만 크랙이 약하여 자획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종래 이 글자는 ‘須’나 ‘模’로 판독되었는데, 좌변에서 ‘木’획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우변의 중단에서 ‘目’획, 하단에서 ‘八’획이 확인된다(<부표 1-2>). 1-11-13자는 ‘須’자로 판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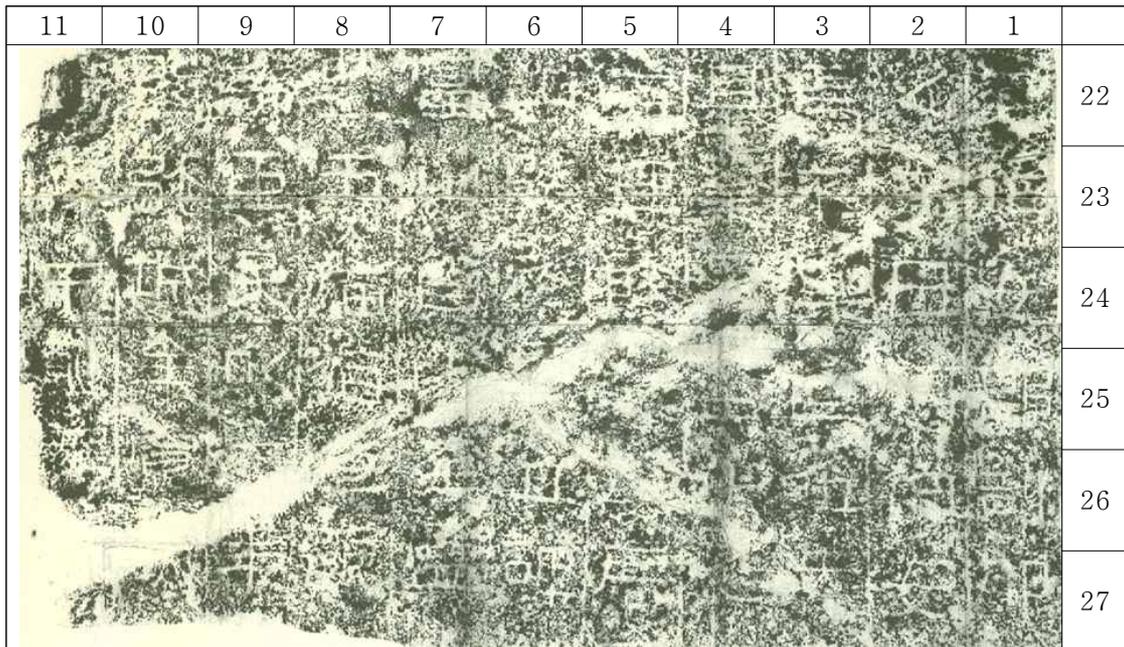
## 2) 제1면 중하단의 균열·박락 부분 판독

제1면 중하단에는 ②번에서 ⑤번에 이르는 4개의 균열과 박락이 있다.

②번 균열·박락 부분은 1-11행의 22-30자 전체에 걸쳐 있는데, ‘丿’ 모양을 이룬다(<그림 1-1>의 ② 및 <그림 1-6>). 이 가운데 가장 위쪽 균열은 1-7행의 22-23자 사이를 지나 자획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가장 큰 균열은 1행 22-23자(河伯) 사이에서 시작해 右上-左下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뻗어 11행 27자에 이르는 것이다.

이 균열선은 2행 23자(子), 3행 23-24자(不樂) 사이, 4행 24-25자(遷至) 사이, 5행 25자(口), 6행 25자(是), 7행 25-26자(山至) 사이, 8행 26자(遊), 9행 26-27자(六年) 사이, 10행 27자(城), 11행 27(口) 등을 지나는데, 특정 글자를 지나는 경우에는 右上-左下 방향으로 자획을 마멸시키거나 크랙을 남겼고, 두 글자 사이를 지나는 경우는 양자 사이의 자획을 마멸시켰다.

<그림 1-6> 제1면 ②번 균열·박락 부분



47) 王健群은 하단의 ‘衣’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았다(王健群 1984, 122쪽).

다만 글자 전체가 박락된 5행 25자와 11행 27자를 제외하면 남아 있는 자획으로 글자를 판독할 수 있다. 가령 6행 25자는 중하단 자획이 박락되었지만, 하단 자획과 문맥을 통해 ‘是’자로 판독할 수 있다. 10행 27자도 좌상단 자획이 많이 박락되었지만, 우하단 자획을 통해 ‘城’자로 판독할 수 있다. 또 11행 27자는 자획이 모두 박락되었지만, 상하 글자를 통해 ‘城’자로 추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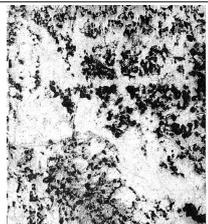
右上-左下 방향 균열 부분의 오른쪽으로는 다시 2개의 균열선이 갈라진다. 이 가운데 위쪽 균열선은 5행 24-25자(除□) 사이에서 갈라져 1행 25자에 이르며, 아래쪽 균열선은 6행 25자(是) 아래에서 갈라져 1행 29자(世)에 이른다. 4-6행의 24-26자 부분은 여러 균열선이 겹치는 부분인데, 5행 25-26자는 자획이 모두 박락되었다. 5행 25자를 ‘不’, 26자를 ‘佞/軌/妄’ 등으로 판독(추독)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밖에 4행 24-26자(遷至十), 6행 25자(是) 등도 박락과 마멸이 심하지만, 전술했듯이 남은 자획과 문맥을 통해 글자를 판독할 수 있다.

상기한 2개의 균열 가운데 위쪽 균열선은 1-4행의 25자를 지나며 마멸과 크랙을 일으켰지만, 남은 자획을 통해 글자를 충분히 판독할 수 있다. 아래쪽 균열선은 右下 방향으로 뻗어가며 3행 27자 하단과 1행 29자의 중단에 박락과 크랙을 남겼다. 종전에 묵수곽전본이나 석회탁본에 근거한 판독문에서 1-1-29자(世)를 ‘出’자로 판독한 것은 左上-右下 방향의 크랙과 자획을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3행 27자는 종래 ‘因’자 판독안이 우세했는데, 최근 ‘天’자 판독안이 다수 제기되었다(<부표 1-1>). 이러한 판독 경향은 상기한 균열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림 1-6>와 <표 1-5>에서 보듯이 이 글자의 중하단에는 6행 25자에서 시작해 1행 29자에 이르는 균열로 인해 左上-右下 방향의 크랙이 여러 개 지나가고, 자획도 많이 마멸되었다. 이 글자를 판독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할 양상이다.

능비에는 ‘天’자가 총 6회 나오는데(1-1-17자, 1-2-21자, 1-4-4자, 1-5-16자, 1-5-40자), 모두 상단의 ‘一’획은 아래 자획보다 짧고 가운데가 오목한 곡선이다. 이에 비해 3행 27자 상단의 ‘一’획은 직선이며 아래 자획보다 길다. 또 상단의 ‘一’획 兩端에서 縱線이 시작되는데, 청명본의 경우 좌측 종선은 하단, 우측 종선은 중단까지 이어진다. 이 글자의 중상단은 ‘因’자에 해당하는데, 중하단의 외곽 테두리 자획이 마멸된 것은 상기한 균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1-3-27자는 ‘因’자로 판독하고자 한다.

**<표 1-5> 1-3-27자 판독 참조자**

1-3-27자(因) 金子本	1-3-27자(因) 청명본	1-8-10자(因) 金子本	1-1-17자(天) 金子本	1-4-4자(天) 청명본
				

7행 24자와 8행 25자는 ②번 균열의 외곽에 위치하여 글자가 크게 마멸되거나 박락되지는 않았다. 다만 미세한 크랙과 마멸로 인해 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7행 24자는 ‘負’자 판독안이 다수설이지만, ‘貧’, ‘水+貝’, ‘木+貝’ 등의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負’자 판독안은 상단의 ‘八’획을 글자에 포함하지 않은 결과이다. ‘水+貝’나 ‘木+貝’ 판독안은 상단 중앙의 ‘丨’ 자획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단 자획을 ‘水’로 볼 경우, 혜정본이나 金子本에서 보이는 좌상단의 ‘ノ’획을 제외하게 되고, 우상단에서는 ‘ノ’획을 상정하기 어렵다. 또 상단 자획을 ‘木’으로

보면 ‘一’획이 없다는 난점이 발생한다. 이에 ‘貧’자 판독안이 제기되었는데,<sup>48)</sup> 상단 자획을 ‘八+刀’로 파악한 결과이다. 실제 ‘貧’의 漢代 예서체는 이 글자와 자형이 같다(<표 1-6>). 1-7-24자는 ‘貧’자로 판독된다.

8행 25자는 종래 ‘彡+山+日’, ‘彡+彡+日’, ‘彡+昔’, ‘彡+百’ 등의 僻字나 ‘猶’, ‘狩’, ‘獵’, ‘海’ 등으로 판독했는데, ‘海’자 판독안을 제외하면 좌변에 ‘彡’변을 상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표 1-7>에서 보듯이 金子本이나 北大A본의 좌변에서는 ‘彡’변의 ‘)’획이 확인되지 않는다. 傅斯年甲本이나 水谷本 등에서 ‘)’획처럼 보이는 부분은 크랙이 연결된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좌변에는 짧은 선이나 점이 여러 개 보이는데, 北大A본과 水谷本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彡’변으로 판독할 수 있다.

우상단 자획은 ‘山’이나 ‘彡(++)’로 판독하는 경우가 많지만, 北大A본이나 水谷本에서 보듯이 ‘山’의 우측 縱線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측 畵線에서 내려오는 기다란 크랙의 일부이다. 중간에 ‘\’획처럼 보이는 부분도 박락에 따른 결락으로 판단된다. 이를 제외하면 우상단 부분은 ‘每’자의 상단 자획으로 판독할 수 있다. 우하단은 흔히 ‘日’자로 판독하는데, 水谷本에서 보는 것처럼 ‘L+丅’ 형태로 자획을 새긴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우하단 자획은 ‘日’자가 아니라, ‘母’나 ‘毋’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1-8-25자는 ‘海’자로 판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sup>49)</sup>

<표 1-6> 1-7-24자 판독 참조자

1-7-24자(貧) 傅斯年甲本	1-7-24자(貧) 金子本	1-7-24자(貧) 혜정본	1-7-24(貧) 혜정본	漢 劉熊碑(貧)

<표 1-7> 1-8-25자(備海) 판독 참조자

1-8-24/25자 傅斯年甲本	1-8-24/25자 金子本	1-8-24/25자 北大A본	1-8-24/25자 水谷本	1-8-24/25 水谷本

③번 균열·박락 부분은 제1면의 우하단 모서리에 위치한다(<그림 1-1>의 ③). 1행 34-39자 지점은 비석이 깨어지며 비면이 박락되었는데, 35-39자는 판독이 불가능하다(<그림 1-7>). 이 부분의 가장 위쪽 균열선은 1행 33자 우측에서 시작해 1행 34자 중간을 右上-左下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지나간다. 이로 인해 1행 34자는 균열선 안쪽인 우변의 자획은 많이 박락되었지만, 바깥쪽

48) 方起東; 고평의 2014a, 34쪽; 고평의 2014b, 296-297쪽; 기경량 2020, 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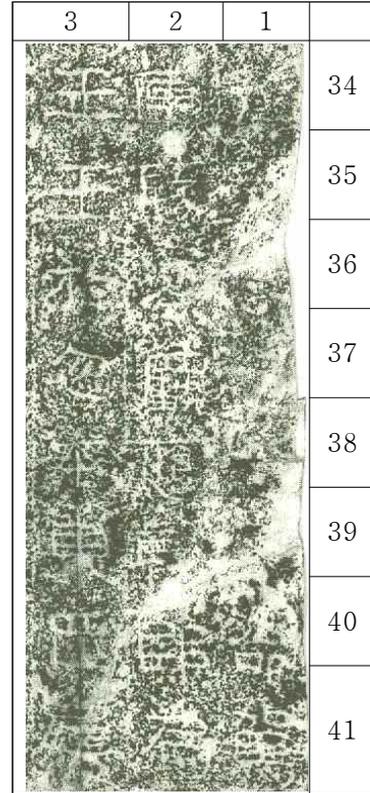
49) 水谷悌二郎 1959: 1976, 45쪽

인 좌변은 잘 남아 있다.

이 글자를 위의 ‘聖’자와 연결해 ‘德’자로 추독하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원석탁본에서 좌변 자획이 ‘予’임을 확인할 수 있다. 金子本, 北大A본, 혜정본에서는 우변 상단에서 ‘冫’획, 그 아래에서 右上 방향으로 비스듬한 횡장방형의 ‘口’획이 확인되는데, 北魏代 ‘豫’자에서 비슷한 자형이 있다(<표 1-8>). 1-1-34자는 최근 고광의의 판독안처럼 ‘豫’자로 판독할 수 있다.<sup>50)</sup>

가장 하단에는 비석이 깊이 깨어진 균열선이 확인되는데, 1행 37자 우측에서 시작해 2행 39-40자(聲卽) 사이를 지나 3행 41자를 대각선 방향으로 지난다. 이로 인해 3행 41자에 우상-좌하 방향의 크랙이 여러 개 형성되어 판독에 혼선을 일으켰다. 종래 이 글자를 ‘黃’자로 판독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모든 원석탁본을 통해 1-3-41자는 ‘履’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1-2>).

<그림 1-7> 제1면 ③번 균열 부분(水谷本)



<표 1-8> 1-1-34자 판독 참조자

1-1-34자(豫) 청명본	1-1-34자(豫) 金子本	1-1-34자(豫) 北大A본	1-1-34자(豫) 北大A본	北魏 劉根等造像記

④번 균열·박락 부분은 11행 33자에서 시작해 5행 39자(昊) 위까지 뻗어 있다(<그림 1-1>, <그림 1-8>). 11행 33-35자는 비석이 깨어져 판독이 불가능하다. ‘農賣城’으로 판독하기도 하지만, 일부 원석탁본 상단에서 橫線의 흔적만 확인될 뿐 자획을 판독하기는 어렵다. 다만 1-11-35자는 전후 문맥을 통해 ‘城’자로 추독할 수 있다.

11행 33자 좌측 모서리에서 시작된 균열선은 右下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데, 10행, 8행, 7행에서는 글자 사이를 지나 자획을 크게 마멸시키지 않았다. 이 균열선 아래에 위치한 10행 36자는 대체로 ‘冫’자로 판독하는데, ‘冫’자로 판독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北大A본에서 보듯이 좌우 종선은 하단까지 이어지지 않는다(<표 1-9>). 1-10-36자는 통설처럼 ‘冫’자로 판독된다.

이 균열선은 9행 36자와 6행 38자를 지나며 자획 일부를 마멸시켰다. 가령 9행 36자에서 左上-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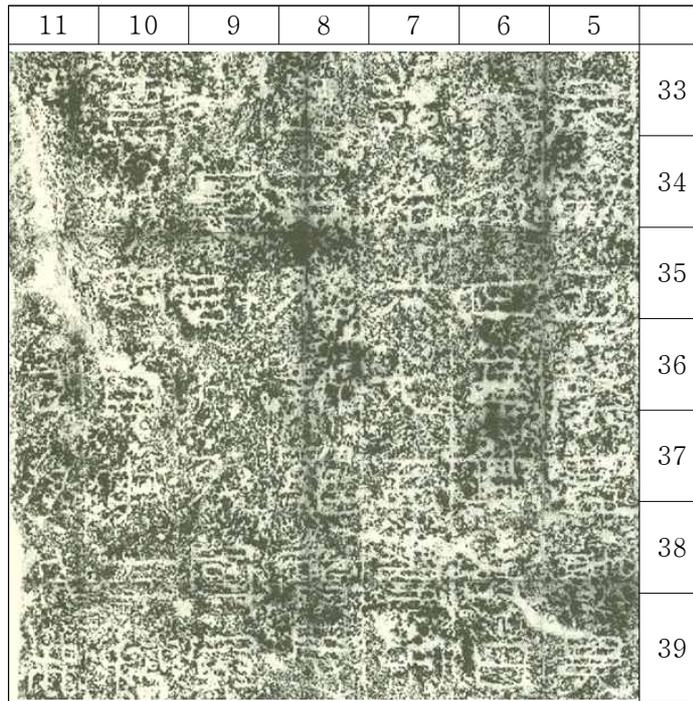
50) 고광의 2014a, 27-28쪽; 고광의 2014b, 285-288쪽

下 방향의 선은 자획이 아니라 균열에 따른 크랙이다. 이에 따른 혼동으로 종래 석회탁본에 근거한 판독안에서는 ‘利’로 보기도 했지만, 거의 모든 원석탁본에서 ‘伐’자 자획이 확인되며, 혜정본과 傅斯年甲本에서는 좌변에서 ‘亅’획, 우변 상단에서 ‘戈’의 ‘一’획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1-2>, <표 1-9>). 1-9-36자는 ‘伐’자로 판독된다.

6행 38자는 좌상-우하 방향의 균열선에 의해 좌변 상단 자획이 마멸되었고, 우변에도 대각선 방향의 크랙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이 글자는 ‘詞’자와 ‘辭’ 판독안이 대립되었다. 거의 모든 원석탁본의 좌하단에서 ‘口’ 자획이 확인되는데, ‘肅’변 하단의 ‘口’획으로 보기에 너무 커다. ‘舌’변 하단의 ‘口’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혜정본의 우변에서는 5개의 횡선이 확인되는데, ‘辛’자의 예서체에 가깝다. 그리고 ‘詞’ 판독안에서 ‘司’자의 우측 종선으로 파악한 것은 혜정본에서 보듯이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크랙으로 보인다(<표 1-9>). 1-6-38자는 ‘辭’의 약자인 ‘辭’자로 판독된다.

<그림 1-8> 제1면 ④번 균열·박락 부분(水谷本)



<표 1-9> 제1면 ④번 균열·박락 부분의 판독 참조자

1-6-38자(辭) 傅斯年甲本	1-6-38자(辭) 혜정본	漢 乙瑛碑	1-9-36자(伐) 혜정본	1-10-36자(且) 北大A본

⑤번 균열·박락은 제1면 좌하단 모서리에 위치하는데, 비석 일부가 깨어졌다. 이로 인해 10행 41자, 11행 40-41자 등 세 글자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11행 40자를 ‘城’, 41자를 ‘比’자로 추독하기도 하지만, 탁본상 확인할 수 없다.

9행 39자 하단에서 시작된 균열선으로 인해 9행 40-41자도 많이 박락되어 40자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王健群 이래 9행 40자를 ‘至’자로 판독하기도 하지만, 원석탁본에서는 이러한 자형을 확인할 수 없다. 9행 41자도 많이 박락되었지만, 여러 원석탁본의 우상단에서 ‘殘’자 우상단의 ‘戈’획이 확인된다(<표 1-10>). 1-9-41자는 ‘殘’자로 추독할 수 있다.

<그림 1-9> 제1면 ⑤번 균열·박락  
(水谷本)

11	10	9	
			39
			40
			41

<표 1-10 제1면 1-9-41자 판독 참조자

1-9-41자(殘) 혜정본	1-9-41자(殘) 청명본	1-9-41자(殘) 北大A본	1-8-35자(殘) 北大A본	1-9-16자(殘) 金子本

### 3) 제1면의 개별 마멸 글자에 대한 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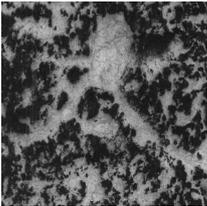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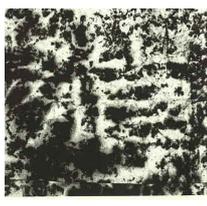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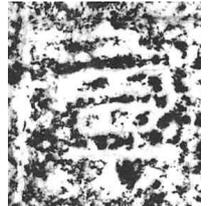
제1면의 판독 불능자나 논란자는 ①-⑤번 균열·박락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종래 석회탁본에 의거해 잘못 판독한 글자도 주로 이곳에 분포한다. 다만 제1면에는 개별적인 자획의 마멸이나 자형 판단의 차이에 따른 판독 논란자도 9자에 이른다.

5행 9자는 ‘太’나 ‘大’ 판독안이 대립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원석탁본에서 ‘大’ 아래의 ‘丿’ 자획이 확인된다(<표 1-11>). 1-5-9자는 ‘太’자로 판독된다. 8행 31자는 ‘𠂇+山+目’으로 구성된 자획이 확인되는데(<표 1-11>), 현재까지 각종 서체 사전에서 이러한 자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체로 바로 위의 ‘田’자와 연결하여 ‘田獵’이라는 단어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문맥상 가장 타당한 견해이다.

10행 4자는 ‘寧’과 ‘壹’ 판독안이 대립하고 있는데, ‘寧’자 판독안은 水谷本, 傅斯年甲本, 청명본 하단의 ‘丁’자로 보이는 자획에 의거한 것이다. 그렇지만 金子本, 北大A본, 혜정본 등에서 보듯이 ‘丁’자로 보이는 자획의 하단부는 크랙이다(<부표 1-2>, <표 1-11>). 1-10-4자는 ‘壹’자로 판독된다.

11행 30자도 비면 모서리에 위치하여 많이 마멸되었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판독불능자로 처리했다. 지금도 몇몇 연구자는 판독 불능자로 처리하지만, 金子本을 비롯한 원석탁본의 우변에서 ‘讞’ 자획이 확인되며, 좌변에는 ‘方’획의 흔적이 있다(<부표 1-2>, <표 1-11>). 1-11-30자는 ‘於’자로 판독할 수 있다.

<표 1-11> 1-5-9자, 1-8-31자, 1-10-4자, 1-11-30자 판독 참조자

1-5-9자(太) 혜정본	1-8-31자(獵) 金子本	1-10-4자(壹) 水谷本	1-10-4자(壹) 金子本	1-11-30(於) 金子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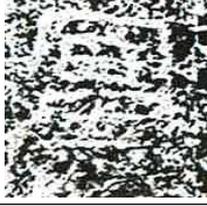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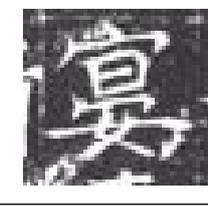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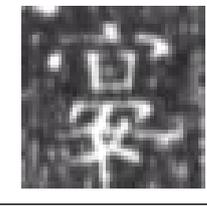
4행 2자는 ‘頁’자와 ‘首’자 판독안이 대립하고 있는데, 자획을 다르게 판별한 결과이다. 가령 水谷本이나 傅斯年甲本の 상단 중앙에 ‘丿’획이 2개 있는데, ‘首’자 판독안에서는 이를 자획으로 판단하고, 하단의 ‘八’ 부분은 크랙으로 본다. 그렇지만 상단 중앙의 ‘丿’획 모양은 北大A본에서 보듯이 3행 2자(叢) 위쪽에서 이어지는 點列 모양의 크랙이다. 오히려 모든 원석탁본의 하단에서 ‘八’획이 확인되는데, 1-4-2자의 ‘頁’자 하단의 ‘八’획과 비슷하다(<표 1-12>). 상단의 ‘一’획과 중단의 ‘目’획 사이에는 양자를 연결하는 ‘ノ’획도 확인된다. 1-4-2자는 ‘頁’자로 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1-12> 1-4-2자 판독 참조자

1-4-2자(頁) 水谷本	1-4-2자(頁) 金子本	1-4-2자(頁) / 1-3-2자(叢) 北大A본	1-9-4자(貢) 金子本
			

6행 5자도 ‘寔’, ‘晏’, ‘寔’ 등의 판독안이 대립하고 있는데, 자형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晏’ 판독안은 상단의 ‘一’획을 글자에서 제외한 결과이며, ‘寔’ 판독안은 중단의 ‘一’획 때문에 ‘寔’으로 판독하기 힘들다고 여긴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1-5-32자(富)의 사례에서 보듯이 능비에서는 ‘一’획을 ‘一’로 새기기도 하였다.<sup>51)</sup> 또 북위 묘지명 등에서 ‘寔’자의 ‘日’획과 ‘女’획 사이에 ‘一’획을 쓰는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표 1-13>).<sup>52)</sup> 하단 자획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金子本에서 ‘女’획을 판별할 수 있다. 1-6-5자는 ‘寔’자로 판독되는데, ‘寔駕’는 帝王의 죽음을 나타내므로<sup>53)</sup> 문맥상으로도 잘 통한다.

<표 1-13> 1-6-5자 판독 참조자

1-6-5자(寔) 金子本	1-6-5자(寔) 北大A본	北魏 李挺묘지	北魏 徐徹묘지	1-5-32자(富) 金子本
				

51) 물론 1-4-38자(安), 1-5-28자(寧) 등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一’로 새겼다.

52) 박시형 1966, 132쪽

53) 寔駕는 제왕을 죽음을 일컫는 표현인데, ‘寔’은 ‘晏’자와 통용된다. 唐의 陳鴻이 지은《長恨歌傳》에 “皇心震悼, 日日不豫. 其年夏四月, 南宮寔駕.”라는 구절이 보인다.

9행 33자는 종래 목수곽전본이나 석회탁본에 근거해 ‘水’자로 판독했고, 지금도 ‘水’자 판독안이 대세를 이룬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원석탁본에서 이 글자 중앙에서 ‘水’자의 ‘丿’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능비의 ‘水’자는 1-2-12자처럼 좌우변 자획을 ‘丿’나 ‘㇇’처럼 약간 비스듬하게 새겼는데, 이 글자에서는 이러한 자형을 찾기 힘들다.

오히려 北大A본에서는 가로 방향 자획이 곧은 직선은 아니지만 ‘一’획에 가깝다. 또 하단에서는 ‘人’자나 ‘八’자와 유사한 자획이 확인된다. 이에 최근 ‘大’자와 ‘六’자 판독안이 제기되었는데, ‘六’자 판독안은 하단 자획을 ‘八’획으로 본 결과이다.<sup>54)</sup> 실제 능비의 다른 ‘大’자와 비교하면 하단 자획이 다소 왜소한 편이다. 다만 능비의 ‘六’자는 하단의 ‘八’획이 중단의 ‘一’획과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 글자는 金子本에서 보듯이 우하단의 ‘丿’획이 중단의 ‘一’획과 이어져 있다. 능비의 다른 ‘大’자에 비해 자형이 왜소하지만, 1-9-33자는 ‘大’자일 가능성이 크다. 자형이 왜소한 사례는 2-9-38자에서도 확인되는데, ‘人’획의 하단부가 마멸된 결과일 수 있다(<표 1-14>).

<표 1-14> 1-9-33자 판독 참조자

1-9-33/34자 金子本	1-9-33/34자 北大A본	1-2-11/12자 (大水) 金子本	2-5-25자 2-9-38자 (大) 金子本	1-7-35자 1-9-26자 (六) 金子本

10행 1자는 종래 ‘首’자로 판독되었는데, 최근 ‘南’, ‘道’, ‘國’ 등의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표 1-2>와 <표 1-15>에서 보듯이 어떠한 원석탁본에서도 ‘南’자 자획, ‘道’자의 ‘辶’획, ‘國’자의 ‘口’획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北大A본에서 ‘首’자 상단의 ‘丷’이 확인되는데, 다른 원석탁본에서 ‘丷’의 ‘一’획이 일직선이 아닌 것은 마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아래에 ‘ノ’획과 ‘目’획이 차례로 확인된다. 1-10-1자는 종전 판독안처럼 ‘首’자로 판독된다.

<표 1-15> 1-10-1자 판독 참조자

1-10-1자(首) 북대A본	1-10-1자(首) 해정본

마지막으로 10행 31자는 대체로 판독 불능자로 처리했는데, 王健群 이래 ‘古’ 판독안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여러 원석탁본에서 ‘古’자 자획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표 1-16>에서 보듯이 水谷本과 北大D본에서는 ‘國’자의 외곽 테두리가 확인된다. 또 海定本과

54) 기경량 2020, 51-52쪽

金子本에서는 ‘國’자의 외곽 테두리와 함께 내부 자획이 일부 확인된다. 이에 1-10-31자에 대해서는 ‘國’자 판독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1-16> 1-10-31자 판독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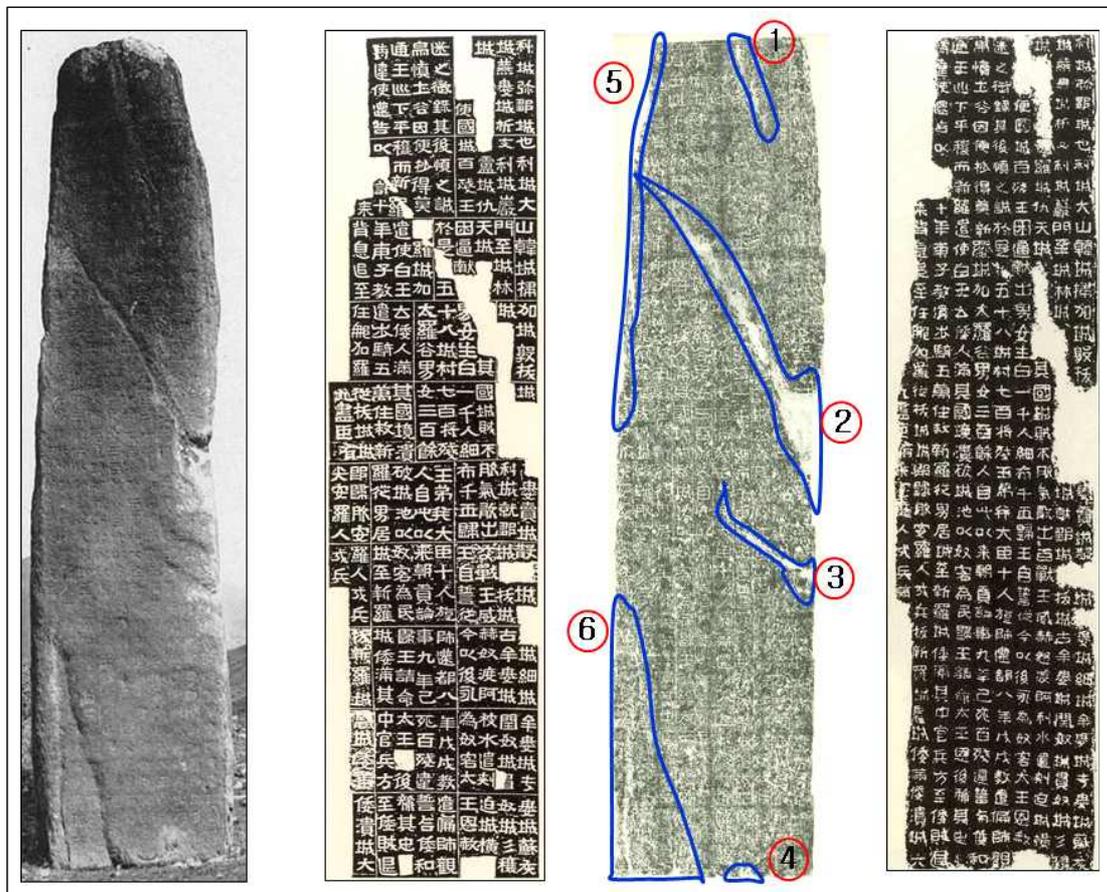
1-10-31자 水谷本	1-10-31자 北大D본	1-10-31자 혜정본	1-10-31자 金子本	1-6-8자(혜정본) 1-9-38자(금자본)

## 2. 제2면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 1) 제2면 우측면의 균열·박락 부분 판독

제2면은 10행으로 행당 41자를 새겼다. 다만 좌상단의 9행 1-7자와 10행 1-16자 부분은 비면의 제약으로 글자를 새기지 못해 글자 총수는 387자이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제2면에는 자획의 마멸에 영향을 준 균열이나 박락이 크게 여섯 곳 확인된다. 酒匂本이나 사반느본에서도 이 부분을 따라 공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균열이나 박락은 능비 재발견 당시나 그 직후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제2면의 비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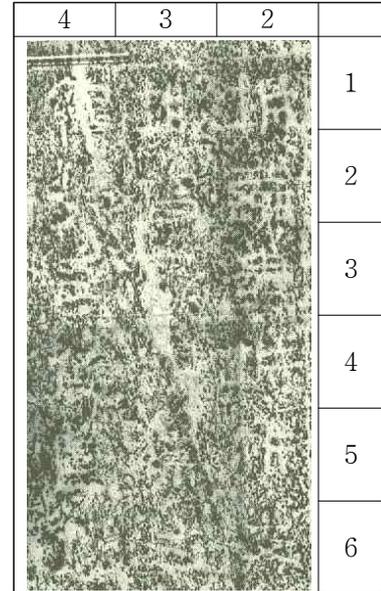
<부표 2-1> 제2면의 판독 논란자 판독안 비교 : 별도 파일 참조

<부표 2-2> 제2면의 판독 논란자 탁본 비교 : 별도 파일 참조

제2면의 판독 논란자는 53자 전후인데(<부표 2-1>), 대부분 이러한 균열과 박락 부분 안팎에 걸쳐 있다. 다만 제2면의 균열과 박락은 우측면과 좌측면이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우측면이 주로 上下 左上-右下 방향의 균열선을 따라 마멸과 박락이 일어났다면, 좌측면은 모서리를 따라 비석의 마멸과 박락이 진행되었다. 제2면의 판독 논란자를 판독할 때는 이러한 마멸과 박락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2-2> 제2면 ①번  
균열·박락 부분

제2면의 ①번 균열과 박락 부분은 비석 상부 중앙(4행 위쪽)에서 시작된 두 줄기의 균열에 의해 일어났다. 이 균열은 4행 1-3자와 3행 2-5자 부분을 수직에 가깝게 左上-右下 방향으로 지난 다음, 2-3행 사이의 궤선 우측을 따라 2행 17자까지 이어진다. 2-3행 6자 이하 부분은 균열이 궤선 우측을 지나가 자획을 마멸시키지 않았지만, 4행 1-3자와 3행 2-5자는 균열선이 글자 부분을 지나며 마멸과 크랙을 많이 일으켰다.



이 균열선의 가장 위쪽에 자리한 4행 1자의 경우 균열선이 수직에 가깝게 글자 중앙을 관통한다. 이로 인해 글자 중앙을 종단하는 굵은 크랙에 의해 자획이 많이 마멸되었다. ‘歸’자와 ‘侵’자 판독안이 대립하는 가운데 ‘偏’ 판독안도 제기된 상태이다. 다만 중간 부분의 자획이 많이 마멸되었지만, 해정보에서 보듯이 왼쪽 하단에서 ‘止’획, 오른쪽 상단과 중단에서 각각 ‘ㄱ’획과 ‘一’획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 2-4-1자는 ‘歸’자로 판독할 수 있다.

4행 2자도 수직에 가까운 크랙이 여러 개 지나가지만, 모든 원석탁본에서 ‘穴’자를 판독할 수 있다(<부표 2-2>). 반면 4행 3자는 수직에 가까운 굵은 크랙이 우변을 관통하며 자획을 대부분 마멸시켰다. 다만 좌변 자획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데, 4-2-23자의 ‘就’에 상응한 자획을 해정보이나 金子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金子本の 우변에서는 左上-右下 방향의 균열선과 다른 右上-左下 방향의 라인이 확인되는데, ‘尤’획의 오른쪽 縱線으로 보인다(<표 2-1>). 2-4-3자는 ‘就’자로 추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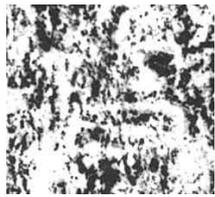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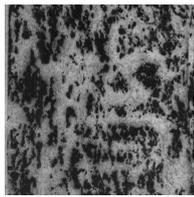
이 균열선은 3행 2-5자 부분도 거의 수직에 가깝게 지난다. 3행 2자의 경우에는 균열선이 글자의 左下 모서리를 지나 균열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마멸은 없다. 다만 개별적인 풍화로 글자 상단 부분이 많이 마멸되어 ‘ㄹ’, ‘ㅍ’, ‘ㅍ’ 등 다양한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ㅍ’이나 ‘ㅍ’ 판독안은 상단의 자형이 ‘ㄹ’으로 보기 힘들다고 파악한다.<sup>55)</sup> 그렇지만 <표 2-2>에서 보듯이 이 글자의 자형은 ‘ㄹ’의 예서체와 거의 같고, 상단과 중단에 ‘丿’획과 ‘田’획에 상응하는 자획이 확인된다. 2-3-2자는 ‘ㄹ’자로 판독할 수 있다.

<표 2-1> 제2면 4행 1-3자 판독 참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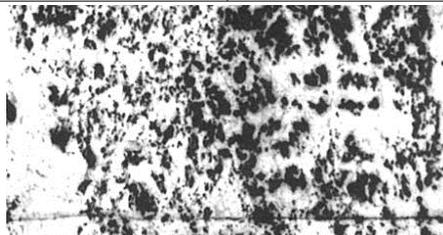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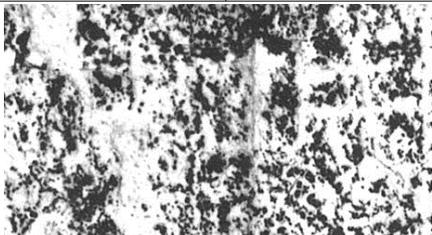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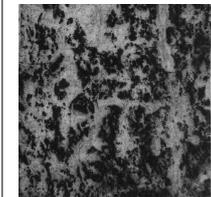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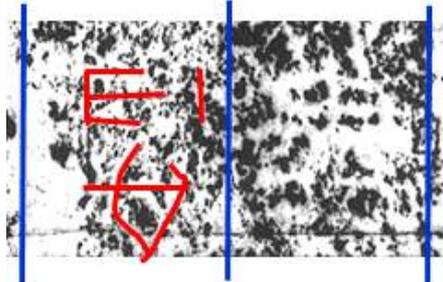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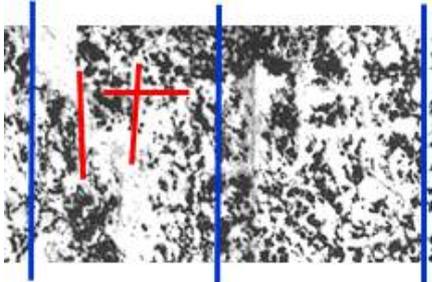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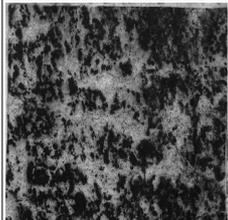
2-4-1자(歸) 해정보	2-4-2자(穴) 水谷本	2-4-3자([就]) 金子本	2-4-3자([就]) 해정보	4-3-23자(就) 水谷本

55) 白崎昭一郎 1993, 184쪽; 권인한 2015, 121-122쪽

<표 2-2> 제2면 2-3-2자 판독 참조 자료

2-3-2자(曾) 水谷本	2-3-2자(曾) 해정본	漢 北海相景君碑	漢 曹全碑	晉 察孝騎都尉 枳楊碑
				

<표 2-3> 제2면 3행 3-5자 판독 참조 자료

2-3-3자(婁) 水谷本	2-2-3자(婁) 水谷本	2-3-4자(城) 水谷本	2-2-4자(城) 水谷本	2-3-5자(儒) 해정본
				
				2-3-6자(古) 해정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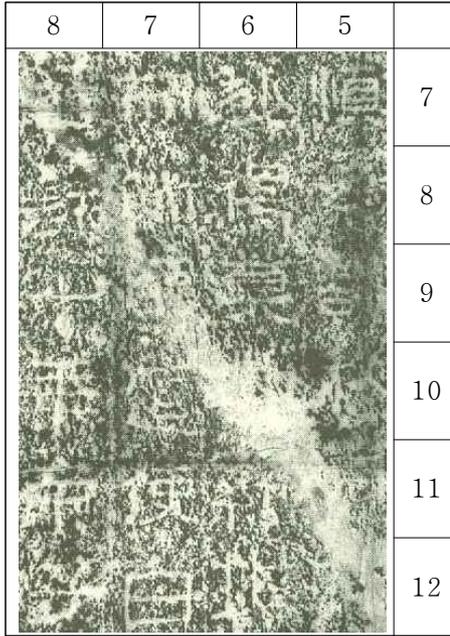
3행 3자는 좌상에서 하단 중앙을 관통하는 균열선에 의해 자획이 많이 마멸되었다. 다만 바로 옆에 위치한 3-2-3자(婁)와의 비교를 통해 능비 ‘婁’의 상단 자획인 ‘由’의 일부, 하단에서 ‘女’획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표 2-3>). 2-3-3자는 方起東의 판독안처럼 ‘婁’자로 판독할 수 있다. 3행 4자도 상하 방향의 균열선에 의해 좌변이 많이 박락되었다. 다만 3-2-4자(城)와의 비교를 통해 좌변 ‘土’획의 일부, 우상단 ‘成’획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표 2-3>). 2-3-4자는 ‘城’자로 판독된다.

3행 5자는 상단 중앙에서 우측 중간을 관통하는 균열선에 의해 우상단 자획이 마멸되었다. 또 우상-좌하 방향의 크랙에 의해 좌변의 자획도 거의 마멸되었다. 다만 해정본에서 보듯이 우하단에서 ‘而’획을 확인할 수 있고, 좌변도 ‘丨’획에 가깝다(<표 2-3>). 2-3-5자는 남아 있는 자획을 통해 ‘儒’자로 판독할 수 있다. 3행 6자는 다수 연구자가 ‘古’자로 판독하는데, 거의 모든 원석탁본에서 ‘古’획이 확인된다(<표 2-3> 및 <부표 2-2>). 2-3-6자는 ‘古’자로 판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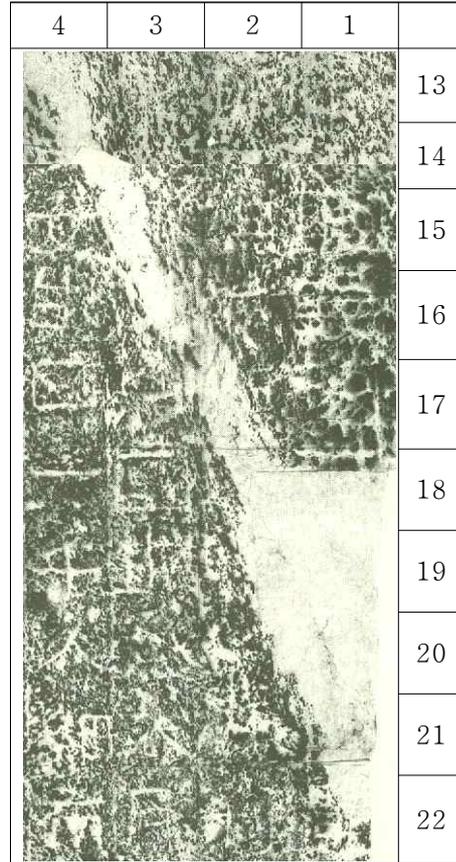
제2면의 ②번 균열과 박락 부분은 8행 6자 좌측에서 시작해 右下 방향으로 비면 전체를 비스듬하게 횡단한 다음, 1-2면 모서리에서 제1면의 ①번 균열·박락 부분과 접한다. <그림 2-3>에서 보듯이 8행에서 5행까지는 균열의 폭이 비교적 좁아 8행 7자([密]), 7행 9자(羅), 6행 10자, 5행 12자([得]) 등 행마다 한자씩 마멸시켰다. 그렇지만 <그림 2-4>에서 보듯이 4행부터는 균열의 폭이 넓어지며 4행(13-14자)과 3행(15-16자)은 두 글자씩 마멸시켰고, 3행 12-14자도 이 균열선의 영향을 받아 많이 마멸되었다. 특히 2행 16자(城) 左下 모서리에서 ①번 균열선과 만나며 비면을

손상시켰는데, 2행 17-21자, 1행 19-20자는 비면이 깨어져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균열과 박락 양상을 고려하며 ②번 균열과 박락 부분의 판독 논란자에 대한 판독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2-3>  
제2면 ②번 균열의 좌상단



<그림 2-4>  
제2면 ②번 균열의 좌상단



먼저 이 균열 부분 좌상단의 8행 7자는 王健群이 상단에 ‘宀’획, 하단에 ‘山’획 등이 보인다면 ‘密’로 판독한 이래<sup>56)</sup> 중국학자 다수가 이에 따르고 있다. <표 2-4>에서 보듯이 金子本에서는 상단에 ‘宀’획, 하단에 ‘山’획, 중단에 ‘乂’의 일부 등이 확인된다. 2-8-7자는 남아 있는 자획을 통해 ‘密’자로 판독할 수 있다.

7행 9자도 이 균열선에 의해 마멸되었지만, ‘羅’의 자획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6행 10자는 이 균열선에 의해 좌하단 자획이 마멸되었지만, <표 2-4>의 金子本에서 보듯이 좌변에서는 ‘其’획의 우상단, 우변에서는 ‘斤’획을 확인할 수 있다. 2-6-10자는 ‘斯’로 판독할 수 있다. 5행 12자도 이 균열선에 의해 좌하단 자획이 마멸되었는데, <표 2-4>의 혜정본에서 ‘得’의 우상단 자획을 확인할 수 있다. 문맥상으로도 ‘得’이 적합하다. 2-5-12자는 ‘得’으로 판독된다.

<표 2-4> 제2면 ②번 균열의 좌상단 부분 판독 관련 자료

2-8-7자(密) 金子本	晋 處士成晁碑	2-6-10(斯) 金子本	3-7-25자(斯) 水谷本	2-5-12자(得) 혜정본

56) 王健群 1984, 125쪽

이 균열선은 4행부터 폭이 넓어진다. 4행은 13-14자가 마멸되었다. 4행 13자를 문맥상 ‘出’자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자획이 거의 없어 단정하기는 힘들다. 4행 14자는 우변이 마멸되었지만, 좌변의 자획을 통해 ‘男’자로 판독할 수 있다(<표 2-5>).

3행은 15-16자가 마멸되었다. 3행 16자는 ‘逼’으로도 판독하지만, 자획이 박락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다. 3행 15자도 좌변 자획은 박락되고 우변에도 크랙이 많은데, 水谷本에서 보듯이 중간 부분에서 ‘城’자의 일부 자획을 확인할 수 있다. 2-3-15자는 남아 있는 자획을 통해 ‘城’자로 판독할 수 있다(<표 2-5>).

3행 12-14자도 이 균열선의 영향을 받아 많이 마멸되었다. 이 가운데 3행 12자와 14자는 마멸로 판독이 불가능하다. 3행 13자도 많이 마멸되었지만, 北大D본에서 ‘國’자의 외곽 테두리, 혜정본에서 우상단 자획을 확인할 수 있다. 2-3-13자는 남아 있는 자획을 통해 ‘國’자로 판독할 수 있다(<표 2-5>).<sup>57)</sup>

<표 2-5> 제2면 ②번 균열의 3행 부분 판독 관련 자료

2-4-14자(男) 金子本	2-3-15(城) 水谷本	2-3-19(城) 水谷本	2-3-13자(國) 혜정본	2-3-13자(國) 北大D본

2행은 박락과 마멸이 가장 심한데, 2-3행 사이의 궤선을 따라 내려오는 ①번 균열과 2행 16자(城) 左下 모서리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2행 18-19자는 자획이 거의 모두 박락되었고, 19-20자는 일부 자획이 남아 있지만 판독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2행 17자는 우변에서 ‘斤’획이 확인되는데, 좌변은 판독이 불가능하다(<표 2-6>).

이 균열선의 우상단에 위치한 2행 13자나 15-16자도 많이 마멸되었다. 이 가운데 2행 13자는 ‘林’자 판독안이 우세한 가운데, ‘味’, ‘裌’ 등의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다만 水谷本이나 혜정본에서 보듯이 자획 주변에 크랙이 많지만, ‘林’ 자형을 확인할 수 있다. 2행 15자는 대체로 판독 불가능자로 처리하는 가운데, ‘但’, ‘棋’, ‘廡’ 등의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다만 혜정본 등에서 우변의 ‘冫’획, 좌변의 ‘亠’변 종선이 확인된다. 2-2-15자는 ‘但’으로 판독된다. 2행 16자는 최근 ‘城’자 판독안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혜정본에서 ‘城’의 우상단 자획이 확인된다. 2행 15-16자는 ‘但城’이라는 성곽 명칭이다(<표 2-6>).

<표 2-6> 제2면 ②번 균열의 2행 부분 판독 관련 자료

2-2-13자(林) 水谷本	2-2-13자(林) 혜정본	2-2-15(但) 혜정본	2-2-16자(城) 혜정본	2-2-17자(廡) 水谷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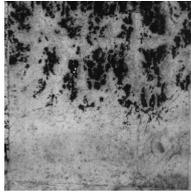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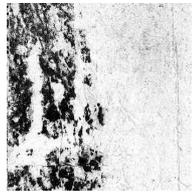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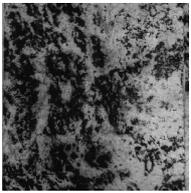
1행도 18-22자 등 5자에 걸쳐 마멸과 박락이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1행 19자와 20자는 비면이 박락되어 판독이 불가능하지만, 1행 18자와 21-22자는 일부 자획이 남아 있다. <부표 2-2>에

57) 임기중 1995, 340쪽

서 보듯이 탁본에 따라 자획의 탁출 정도가 다른데, 청명본, 혜정본, 金子本 등의 탁본 상태가 가장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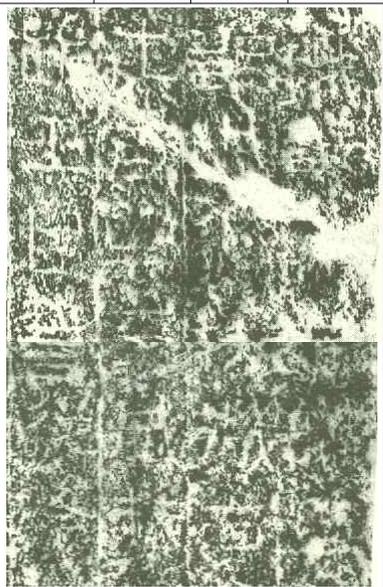
균열 부분의 가장 위쪽에 자리한 1행 18자는 균열로 인해 중하단 자획이 박락되었지만, 상단 자획을 통해 ‘城’자임을 알 수 있다. 1행 21자는 종래 다수 연구자가 판독 불능자로 처리했지만, 청명본, 혜정본, 金子本 등에 ‘城’의 좌변 자획이 잘 남아 있다. 2-1-21자는 ‘城’으로 판독할 수 있다. 1행 22자는 종래 다수 연구자들이 ‘城’으로 판독했지만, 청명본, 혜정본, 金子本 등에 ‘國’의 자획이 명확히 남아 있다. 혜정본과 청명본에서는 ‘國’자의 좌변 2/3, 金子本에서는 ‘國’자의 외곽 테두리 거의 전부가 확인된다. 2-1-22자는 최근 고광의의 판독안처럼<sup>58)</sup> ‘國’자로 판독할 수 있다(<표 2-7>).

<표 2-7> 제2면 ②번 균열의 1행 부분 판독 관련 자료

2-1-18자(城) 혜정본	2-1-21자(城) 청명본	2-1-21자(城) 혜정본	2-1-22자(國) 金子本	2-1-22자(國) 혜정본
				

제2면의 ③번 균열선은 6행 21자에서 시작하여 右下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뻗어다가 4행 25자를 지나며 폭이 넓어진다(<그림 2-5>). 이에 따라 6행 21자(餘), 5행 22-24자(主弟并), 4행 25자(跪) 등은 균열선이 지나가지만, 자획이 크게 마멸되지 않아 판독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4행 25자는 묵수곽전본이나 석회탁본에 의거해 ‘歸’자로 판독했지만, 모든 원석탁본에서 ‘跪’자를 명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부표 2-2>).

<그림 2-5> 제2면 ③번 균열

4	3	2	1	
				25
				26
				27
				28
				29
				30

이 균열선은 3행 25-26자(出百)를 지난 다음, 2행 27자 우상단을 거쳐 1행 27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2행 27자가 많이 마멸되고, 1행 27자는 비면이 박락되었다. 이로 인해 두 글자 모두 판독이 불가능한데, 1행 27자는 전후 글자를 통해 ‘那’자로 추독할 수 있다. 또 이 균열선 아래에 위치한 1행 29자도 비면 모서리에 위치하여 자획이 대부분 마멸되었는데, 전후 글자를 통해 ‘那’자로 추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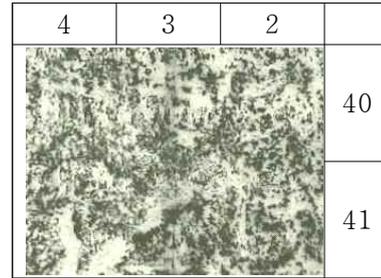
제2면의 ④번 균열선은 2행과 3행 40자 사이에서 시작하여 3행 40자 우하단을 거쳐 4행 41자 우하단으로 비스듬하게 뻗어가는데(<그림 2-6>), 비면 일부가 완전히 박락되었다. 이에 따라 비면이 박락된 3행 41자는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3행 40자도 자획의 중하단이 박락되어 종래 ‘橫’자와 ‘殘’자 판독안이 대립되었는데, <표 2-8>의 청명본과 傅斯年甲本에서 보듯이 좌변에서 ‘木’획의 상단부, 우변에서 ‘橫’의 우변 자획을 확인할 수 있다. 2-3-40자는 ‘橫’으로 판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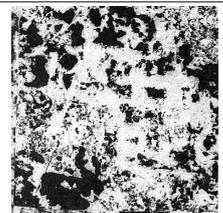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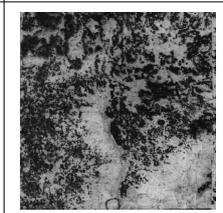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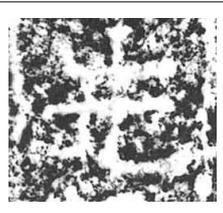
58) 고광의 2014a, 35쪽; 고광의 2014b, 297-298쪽

4행 41자도 중하단의 자획이 박락되었고, 상단 자획이 많이 마멸되었다. 다만 상단 자획의 흔적이 일부 확인되는데, <표 2-8>의 혜정본이나 北大A본에서 보듯이 ‘先’자의 상단 자획과 유사하다. 특히 北大A본에서는 ‘先’자 상단의 橫線 2개와 함께 縱線을 확인할 수 있다. 2-4-41자는 ‘先’으로 추독할 수 있는데, 대구를 이루는 2-5-6자가 ‘後’자로 판독된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그림 2-6>  
제2면 ④번 균열



<표 2-8> 제2면 ④번 균열 부분 판독 관련 자료

2-3-40자(橫) 청명본	2-3-40자(橫) 傅斯年甲本	2-4-41자(先) 혜정본	2-4-41자(先) 北大A본	4-7-36자(先) 水谷本
				

## 2) 제2면 좌측면의 균열·박락 부분 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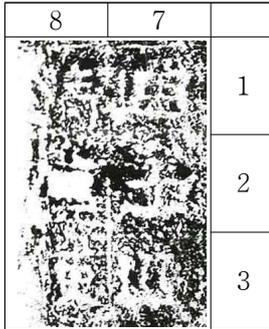
<그림 2-1>에서 보듯이 제2면 좌측면의 균열·박락은 비면 모서리를 따라 일어났다. 자획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10행 23-27자를 기준으로 중상단의 ⑤번과 하단의 ⑥번 균열·박락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⑤번 균열·박락 부분이 주로 모서리를 따라 일어난 반면, ⑥번 균열·박락 부분은 직삼각형 모양으로 8-10행에 걸쳐 있다. 이러한 균열·박락 양상을 고려하면서 좌측면의 판독 논란자에 대한 판독을 진행하고자 한다.

⑤번 균열·박락 부분은 각 행의 상단 부분에 집중되었다. 풍화에 따른 마모가 비바람을 맞는 비면 모서리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면 박락이나 균열도 주로 글자의 좌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2-7>에서 보듯이 8행 1-3자는 글자 좌변이 박락되고, 좌측 모서리를 따라 상하 균열선이 이어진다. 다만 8행 2자는 ‘遣’자의 ‘辵’획, 8행 3자는 ‘使’의 ‘人’변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遣使’로 판독할 수 있다. 반면 가장 상단에 자리한 8행 1자는 우변의 ‘寺’획만 남아 있고, 좌변은 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王健群 이래 많은 연구자가 문맥상 ‘特’자로 추독하는데,<sup>59)</sup>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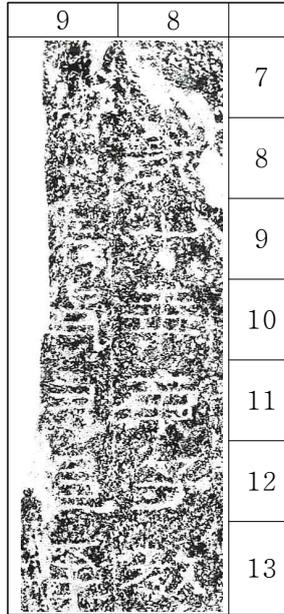
9행 1-7자 부분은 비면이 좁아 글자를 새기지 않았다. 이에 8자 지점부터 글자를 새겼는데, <그림 2-8>에서 보듯이 8-12자까지 각 글자의 좌변이 박락되었다. 이로 인해 9행 10-12자는 남아 있는 자획을 통해 ‘背急追’로 판독할 수 있지만, 8-9자는 상당수 연구자가 판독불능자로 처리하는 가운데 ‘自’(8자), ‘倭/侵’(9자) 등의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59) 王健群 1984, 1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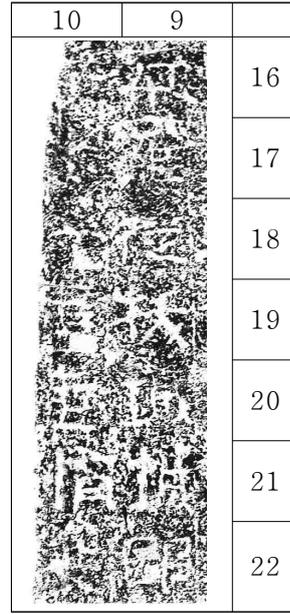
<그림 2-7> 제2면  
⑤번 균열 8행 부분



<그림 2-8> 제2면  
⑤번 균열 9행 부분



<그림 2-9> 제2면  
⑤번 균열 10행 부분



9행 8-9자의 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이유는 좌변이 박락되고 자획이 선명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지만, 비면 상황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9행 8자는

이 행의 첫 번째 글자인데, 그 위쪽에는 비면 폭이 좁아 글자를 새기지 않은 공간이 남아 있다. 또 이 부분은 좁았던 비면이 조금씩 넓어지는 지점이다. 9행 8자가 위치한 비면은 다른 곳보다 폭이 좁을 가능성이 있는데, 종전 판독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표 2-9>에서 보듯이 9행 8자에는 자획이 명확히 확인된다. 그런데 이 자획은 폭이 좁은 반면 길이는 우측의 8행 8자(計)보다 위쪽으로 조금 더 길어 약간 길쭉한 모양을 이룬다. 능비의 책者が 이곳의 비면 특성을 고려하여 글자를 좁고 길쭉하게 새긴 것이다. 그런데 남아 있는 자형은 2-8-35자의 '官'자와 거의 동일한데, <표 2-9>에 예시한 北大A본뿐 아니라 청명본, 혜정본, 水谷本, 金子本 등에서 모두 확인된다(<부표 2-2>). 2-9-8자는 '官'자로 판독할 수 있다. 이어지는 9행 9자는 상단에 '宀'획의 일부가 확인되며, 중하단에서는 橫線이 여러 개 있는데, 3-5-17자의 '軍'과 자형이 유사하다. 이에 9행 8-9자에 대해 '官軍' 판독안을 새롭게 제안하는데, 전체 문맥과도 잘 부합한다.

<표 2-9> 제2면 ⑤번 균열 9행 8-9자 판독 참조 자료

	2-9-8자(官) 北大A본	2-9-9자(軍) 北大A본	2-8-35자(官) 3-5-17자(軍) 水谷本

10행도 비면의 제약으로 16자 지점까지는 刻字하지 않았고, 17자부터 글자를 새겼다. 그런데 10행 17-24자 부분은 비석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좌변이 많이 박락되었고, 미세한 균열선이 상하 방향으로 이어진다. 또 9행 상단처럼 비면의 제약으로 각 글자의 폭이 조금씩 다르다. 종래 판독에서는 10행 중상단의 이러한 비면 양상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판독에 많은 혼선이 초래되었다.

<부표 2-2>에서 보듯이 10행 17-22자의 자획은 청명본, 혜정본, 북대A본 등에 비교적 잘 남아 있다. 10행 17-19자는 통설처럼 ‘十九盡’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20-22자는 박락과 마멸로 인해 판독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종래 ‘拒隨倭’ 판독안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여러 연구자가 판독불능자로 처리하거나 다양한 판독안을 제기했다. 20-22자는 통설적인 판독안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

전첩본인 청명본, 혜정본, 金子本 등과 달리 전장본인 北大A본을 통해 이 부분에 위치한 각 글자의 폭과 중심선이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표 2-10>에서 보듯이 10행 17자의 ‘十’이나 19자의 ‘盡’은 좌우 대칭이어서 중앙의 縱線을 글자의 중심선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17자(十)의 중심선이 19자(盡)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또 9-10행 사이의 우측 畵선이 17자 지점에서는 왼쪽으로 치우친 반면, 18자(九)부터 右下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뻗어내려 19자(盡) 지점에서 일직선을 이루며 21자까지 이어진다.

이상을 종합하면 10행의 경우, 1-16자 부분은 비면의 제약으로 刻字하지 못하고 17자 지점부터 글자를 새겼는데, 17-18자의 폭은 아래보다 좁고, 글자 중심선도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19자부터 폭이 넓어지며 중심선도 왼쪽으로 약간 이동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21자까지 이어진다. 10행 중상단도 비면의 제약으로 인해 9행 8-9자처럼 처음 글자를 새긴 17-18자는 글자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중심선도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그러므로 10행 20-21자의 중심선은 19자를 기준으로 상정해야 한다. 10행 19자의 좌변이 상당 부분 박락된 것처럼 10행 20-21자도 좌변이 박락되거나 마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종래 10행 20자는 ‘拒’자 판독안이 우세했는데, 우측 자획을 ‘巨’로 판독하고, 좌변에 ‘𠂇’변을 상정한 결과이다. 이 경우 ‘巨’라고 본 자획의 좌측 縱線은 직선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종선은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오다가 하단에서 왼쪽으로 휘어진다. 이 縱線과 교차하는 하단의 橫線도 비스듬하게 휘어 있다.

더욱이 혜정본에서 보듯이 ‘巨’로 판독한 자획의 橫線은 縱線 좌측으로 계속 이어지며, 중간 부분의 횡선은 2개가 아니라 모두 3개이다. 10행 20자를 ‘巨’로 판독하기는 힘든 것이다. 이 글자의 중심선이 19자(盡)와 같고, 좌변이 상당 부분 박락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획을 관찰하면, 전체 자형이 4-9-12자의 ‘更’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2-10>). 2-10-20자는 ‘更’자로 판독할 수 있는 것이다.<sup>60)</sup>

10행 21자는 ‘隨’자 판독안이 우세한 가운데, ‘隋’나 ‘脩’로 판독해왔다. 그런데 좌변에서 ‘卩’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획이 가장 많이 남은 청명본의 경우, 좌변에서 ‘丨’변, 중간에서 ‘丨’획, 우변에서 ‘女+月’획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탁본도 ‘丨’변이 없지만, 나머지 자획은 모두 확인된다. 이 자형은 ‘脩’자의 예서체와 동일하다(<표 2-10>). 2-10-21자는 脩의 이체자인 ‘脩’로 판독할 수 있다.<sup>61)</sup>

10행 22자는 종래 판독불능자로 처리하거나 ‘倭’, ‘來’ 등으로 판독했다. 그렇지만 여러 원석 탁본에서 이러한 자형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탁본이 가장 선명한 청명본과 혜정본에서 보듯이 우변 상단에서는 ‘几’획, 하단에서는 ‘又’획이 확인되며, 좌변에서는 橫線 3개와 함께 그 좌우에서 縱線의 흔적이 확인된다. 이러한 자형은 전체적으로 ‘改’자의 漢代 예서체와 동일하다(<표

60) 水谷梯二郎 1959: 1976, 132쪽. 다만 다른 글자와 달리 자형을 제시하지 않고, 판독표에만 ‘更’자로 명기했다.

61)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 64쪽

2-10>). 2-10-22자는 ‘改’자 판독안을 새롭게 제안한다.

이상을 통해 종래 통설적인 판독안이 없었던 10행 20-22자를 ‘更脩改’로 판독했다. ‘脩改’가 ‘고쳐 다스리다’는 관용어이고, ‘更’은 이러한 뜻과 잘 조응하는 부사어라는 점에서 문맥상으로도 비교적 자연스럽다. 비문 해석이 불분명했던 10행을 보다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표 2-10> 제2면 ⑤번 균열 10행 17-22 판독 참조 자료

	北大A본	北大A본	청명본	혜정본	판독참조자 北大A본 외
17 (十)				결	
18 (九)					
19 (盡)					
20 (更)					
21 (脩)					
22 (改)					

제2면의 ⑥번 균열·박락은 좌하단 모서리에 직삼각형으로 형성되었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이 부분의 비면은 본래 평평하지 않고, 좁고 기다란 직삼각형으로 오목하게 들어갔다. 균열선은 오목한 부분의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되었다. 9-10행 28자 사이의 궤선 부근에서 시작된 균열선이 직선으로 내려가다가 34-35자 지점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右下 방향의 균열선은 비스듬하게 뻗어 8행 41자 우측에 이르고, 上下 방향의 균열선은 10행 36-41자의 중심선을 관통한다. 또 두 갈래의 균열선에서 미세한 균열이 갈라지며 자획에 크랙과 마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이 부분은 2면 가운데 판독 불능자가 가장 많고, 목수곽전본 이래 잘못 판독한 글자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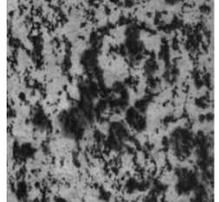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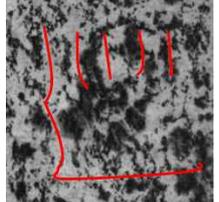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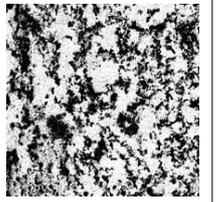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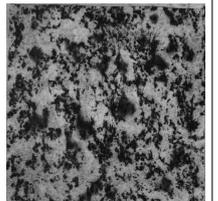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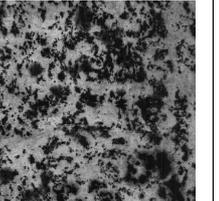
<부표 2-1>에서 보듯이 9행 30자는 ‘拔’로 판독하기도 하지만, 원석탁본의 자획이 선명하지는 않다. 이에 많은 연구자가 판독불능자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혜정본의 좌변과 하단에서는 ‘還’자

(金子本 3-7-10자)의 ‘讠’획, 이상단에서는 ‘還’자 이상단의 ‘曲’획에 해당하는 縱線 4개가 확인된다. 청명본에서도 ‘讠’획의 좌측 부분과 ‘曲’획의 縱線 4개가 확인되며, ‘還’자 중단 자획인 ‘水’획의 우측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표 2-11>). 이에 2-9-30자에 대해 ‘還’자 판독안을 새롭게 제안한다.

9행 31-33자도 左上-右下 방향 균열선의 영향을 받아 많이 마멸되었는데, 9행 31자는 ‘新’자의 중상단 자획, 33자는 ‘城’자의 이상단 자획 등이 남아 있고, 32자는 31자와 33자를 바탕으로 ‘羅’로 추독한다. 9행 31-33자는 ‘新羅城’으로 판독된다.

9행 34자는 ‘鹽’자 판독안이 우세한 가운데, 판독불능자로 처리하거나 ‘農’이나<sup>62)</sup> ‘甞’으로 판독하기도 한다. <부표 2-2>와 <표 2-11>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원석탁본의 좌상단에서 ‘臣’획, 하단에서 ‘皿’획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상단 자획은 많이 마멸되었는데, 左上-右下 방향의 균열선이 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金子本 등에서는 이 글자의 이상단 아래에 ‘丿’획이 상하로 2개 확인되는데, ‘鹽’(1-7-27자)자보다 ‘監’자의 이상단 자획에 가깝다. 이에 2-9-34자에 대해 ‘監’자 판독안을 새롭게 제안한다.

<표 2-11> 제2면 ⑥번 균열 부분 9행 하단 판독 참조자

3-7-10자(還) 金子本	2-9-30자(還) 해정본	2-9-30자(還) 해정본	2-9-30자(還) 청명본	2-9-30자(還) 청명본
				
2-9-34자(監) 金子本	2-9-34자(監) 해정본	1-7-27자(鹽) 해정본	2-9-37자(寇) 해정본	2-9-41자(內) 해정본
				

9행 37-38자는 묵수곽전본과 석회탁본에 의거해 ‘滿倭’로 판독했는데,<sup>63)</sup> 지금도 일부 연구자는 종전 판독안을 고수한다. 그렇지만 <부표 2-2>와 <표 2-11>에서 보듯이 9행 37자는 상단의 ‘宀’획을 확인할 수 있고, 위의 ‘倭’자와 연결해 ‘寇’로 판독할 수 있다. 9행 38자도 거의 모든 원석탁본에서 ‘大’의 자획을 확인할 수 있다. 9행 37-38자는 ‘寇大’로 판독되며, 상하 글자와 연결하면 ‘倭寇大潰’라는 어구를 이룬다. 9행 41자도 종래 묵수곽전본이나 석회탁본에 의거해 주로 ‘大’로 판독했고, 일부 연구자는 종전 판독안을 고수하지만, 모든 원석탁본에서 ‘內’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2-2>, <표 2-11>).

10행의 경우 37-40자는 상하 방향의 균열선이 글자의 중심선을 지나가며 자획을 마멸시켜 판독이 불가능하다. 28-36자도 많이 마멸되었지만, 상하 방향의 균열선이 글자 우측의 꺾임을 따라 지나가 상대적으로 자획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다만 31자와 37자는 자흔이 조금 남아 있지만, 판

62) 方起東은 ‘鹽’자로 보기 어렵다며 今西龍의 모사를 바탕으로 ‘農’자로 판독했다(方起東 1995, 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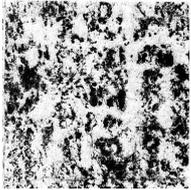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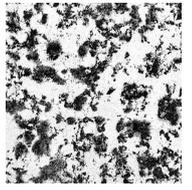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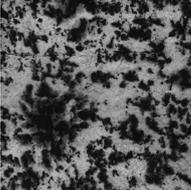
63) 王健群 1984, 129-131쪽

독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다른 글자도 자획이 불분명하여 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10행 28자는 일부 연구자가 판독불능자로 처리하는 가운데, ‘滿’자와 ‘新’자 판독안이 대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표 2-12>의 청명본에서 보듯이 우변에서 ‘斤’획을 확인할 수 있고, 좌상단에서 ‘立’획을 확인할 수 있다. 2-10-28자는 ‘新’자로 판독할 수 있다. 10행 30자도 자획이 많이 마멸되었지만, 남은 자획이 ‘城’자와 유사하다. 2-10-30자는 ‘城’자로 추독한다. 10행 29자는 자획이 거의 모두 마멸되어 판독이 불가능하지만, 아래 위 글자와 연결하여 ‘羅’로 추독할 수 있다. 10행 28-30자는 ‘新羅城’으로 판독된다.

10행 32자는 종래 대부분의 연구자가 판독불능자로 처리하는 가운데, ‘得’이나 ‘是’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표 2-12>의 혜정본에서 보듯이 이 글자의 우변에서 2-5-12자의 ‘得’과 동일한 자형이 확인되는데, 결락된 金子本을 제외한 다른 원석탁본에도 동일한 자형이 있다. 2-10-32자는 方起東이나 동북아역사재단의 판독안처럼<sup>64)</sup> ‘得’자로 판독할 수 있다. 10행 33자는 거의 모든 연구자가 ‘其’자로 판독하는데, 실제 원석탁본에서 ‘其’의 자형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2-2>).

<표 2-12> 제2면 ⑥번 균열 부분 10행 하단 판독 관련 자료

2-10-28자(新) 청명본	1-8-36자(新) 청명본	2-10-30자(城) 혜정본	2-10-32자(得) 혜정본	2-5-12자(得) 혜정본
				

10행 34자는 대부분 판독불능자로 처리하는 가운데, ‘爲’나 ‘村’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표 2-13>의 金子本, 혜정본, 北大D본 등에서 보듯이 이 글자 좌변에서는 ‘木’획, 우변 상단에서는 ‘寸’의 상단 자획이 확인된다. 2-10-34자는 白崎昭一郎의 판독안처럼<sup>65)</sup> ‘村’으로 판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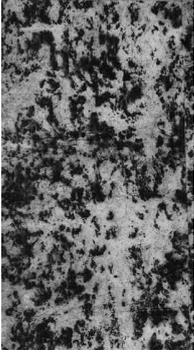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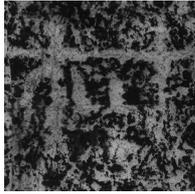
10행 35자는 대부분 판독불능자로 처리하는 가운데, ‘倭’, ‘殊’, ‘利’ 등의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이 글자도 많이 마멸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글자의 자흔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표 2-13>에서 보듯이 혜정본이나 金子本의 우변에는 ‘申’과 유사한 자획이 확인된다. 그런데 1-9-29의 ‘申’자와 달리 중단의 ‘田’획 부분이 위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 자획을 ‘申’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혜정본을 비롯해 각 원석탁본에는 ‘申’과 유사하게 보이는 자획의 하단에 橫線이 2개 있다. 또한 ‘申’처럼 보이는 자획의 중간 橫線은 상하 橫線보다 조금 짧고 가는데, 1-2-25의 ‘聿’자와 동일한 양상이다. 특히 이 부분의 좌측 縱線은 안쪽으로 휘었는데, 北大D본에서는 중간 부분이 끊어져 있다. ‘申’처럼 보이는 자획이 실제로는 ‘聿’획인 것이다. 그리고 金子本이나 北大D본에서는 좌변에서 ‘彳’변에 해당하는 짧은 횡선과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2-10-35자를 새롭게 ‘津’자로 판독하고자 한다. 10행 32-35자는 ‘得其村津’으로 판독되는데, 어구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64) 方起東;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 64쪽

65) 白崎昭一郎 1993, 236쪽

<표 2-13> 제2면 ⑥번 균열 부분 10행 34-35자 판독 관련 자료

2-10-34/35자 (村津) 혜정본	2-10-34/35자 (村津)金子本	2-10-34자(村) 北大D본	2-5-17자(村) 혜정본	1-9-29자(申) 청명본
				
		2-10-35자(津) 北大D본	西晉 大公呂望表	1-2-15자(肆) 傅斯年甲本
				

이상을 통해 2면 9-10행에서 여섯 자를 새롭게 판독하고, 소수설 판독안의 자형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영락10년 경자년조의 전반부인데, 종래 비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였다. 새로운 판독안을 바탕으로 비문을 구두하면 문장이 비교적 명료하게 해석된다는 점에서 경자년조를 새롭게 검토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sup>66)</sup>

### 3) 제2면의 개별 마멸 글자에 대한 판독

제2면의 판독 불능자나 논란자는 상기한 6곳의 균열·박락에 집중되어 있다. 종래 묵수곽전본이나 석회탁본에 의거해 잘못 판독한 글자도 주로 이곳에 분포한다. 다만 제2면에는 개별적인 마멸이나 자형 판단의 차이에 따른 판독 논란자도 6자에 이른다.

1행 9자는 ‘大’자와 ‘太’자 판독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자형 판단에 따라 ‘大’ 획 아래에 ‘丶’획의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 2-14>의 北大A본이나 金子本에서 보듯이 ‘丶’획으로 판독한 부분은 자획이 아니라 ‘大’자의 좌상단에서 시작해 중간 부분을 따라 내려가는 크랙의 일부이다. 더욱이 4면 2행 11-14자에 동일한 성곽 명칭이 나오는데, 2-1-9자에 해당하는 4-2-11자에서도 ‘大’자 아래의 ‘丶’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2-1-9자는 ‘大’자로 판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66) 필자의 판독안을 바탕으로 2면 8-10행의 경자년조를 구두하고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경자년조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별고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판독문 :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官軍背急追,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 還新羅城, 監城, 倭寇大潰. 城內十九盡, 更脩改, 安羅人戍兵. 新羅城, 得其村津, 言” => 해석문 : “(永樂) 10년 庚子년에 왕이 교를 내려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男居城으로부터 新羅城(國都)에 이르니, 왜군이 그 성안에 가득하였다. 官軍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官軍이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任那加羅의 從拔城에 이르자, 城이 곧 항복하여 新羅人 戍兵을 안치하였다. 新羅城으로 되돌아와 城을 살펴보니 왜구는 크게 궤멸했지만, 성의 내부는 열에 아홉이 다하여 없어졌다. 이에 다시 수리하여 고치고, 新羅人 戍兵을 안치하였다. 신라성은 ……하고(또는 신라가 …… 성을 쌓고), 그 村津을 획득하였다. 言”

<표 2-14> 제2면 1행 9자(大) 판독 참조자

2-1-9자(大) 北大A본	2-1-9자(大) 金子本	4-2-11자(大) 水谷本	4-2-11자(大) 金子本	1-5-9자(太) 혜정본

2행 11자는 ‘山+日’, ‘至’, ‘民’, ‘三’, ‘古’ 등 다양한 판독안이 제기되었는데, 左上-右下 방향의 균열선이 글자를 대각선으로 관통하며 크랙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 크랙을 제외하면 이 글자는 횡선 3개로 이루어진 ‘三’자임을 명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표 2-15>).

5행 3자는 자획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愆’자 판독안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종전의 ‘衙’자 판독안이 다시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衙’자 판독안은 자형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표 2-15>의 金子本과 혜정본 등 여러 원석탁본에서 보듯이 좌변과 우변에서는 각각 ‘彳’변과 ‘亍’이 확인된다. 하단에서는 ‘彳’변 하단 우측에서 ‘丶’획 1개, ‘亍’획 좌측에서 ‘丶’획 2개, 중간에서 ‘丨’획 등 ‘心’의 자획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 2-15>와 <부표 2-2>의 水谷本, 北大A본, 청명본, 혜정본 등에서 확인되는 글자 중앙을 관통하는 가느다란 縱線은 바로 위 글자에서 아래 글자에 이르는 크랙이다. 이 크랙을 제외하면 중앙의 중상단에는 ‘亍’ 또는 ‘二’를 새긴 것으로 파악된다. 2-5-3자는 중앙의 중상단을 ‘亍’ 또는 ‘二’로 쓴 ‘愆’의 이체자이다.

6행 1자도 자획은 선명하게 잘 남아 있지만, 자형 판단에 따라 ‘帛’과 ‘#’으로<sup>67)</sup> 판독한다. 그런데 모든 원석탁본에서 상단 자획은 ‘白’, 하단 자획은 ‘冂’ 내부에 ‘丨’획이 2개 나란히 새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글자를 ‘帛’으로 판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자형을 가진 글자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에 바로 아래의 ‘愼’자와 연결시켜 ‘肅’자로 보기도 하지만, 3-7-14의 ‘肅’자와 자형이 다르다는 난점이 있다. 이에 일찍이 이 글자를 의미상 ‘息’으로 추정<sup>68)</sup>한 다음, ‘肅’과 통용자로 파악하기도 하였다.<sup>68)</sup> 정확히 무슨 글자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자형 그대로 ‘#’자로 판독해둔다.

<표 2-15> 제2면 개별 마멸 글자 판독 관련 자료

2-2-11자(三) 청명본	2-5-3자(愆) 金子本	2-5-3자(愆) 혜정본	2-6-1자 혜정본	2-7-38자(矜) 北大A본
2-6-19자(三) 水谷本	2-5-3자(愆) 水谷本	梁 肅公夫人 袁客仁 묘지	3-7-34자(肅) 水谷本	北魏 元湛묘지(矜)

67) 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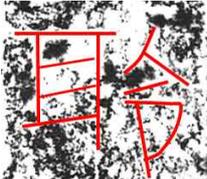
68) 박시형 1966, 182-183쪽

7행 38자는 종전에 ‘稱’으로 판독했는데, 최근 ‘矜’ 판독안이 우세해지고 있다. 그런데 <표 2-15>에 예시한 北大A본을 비롯해 여러 원석탁본에서 좌변의 자획은 ‘矛’, 우변은 ‘令’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서나 해서에서는 ‘矜’의 우변을 ‘令’으로 쓴 사례가 많으므로 2-7-38자는 ‘矜’으로 판독할 수 있다.

6행 29자는 거의 모든 연구자가 ‘論’으로 판독하는데, 최근 ‘聆’자 판독안이 제기되었다.<sup>69)</sup> 그런데 北大A본이나 청명본 등의 원석탁본에서는 좌변 자획은 ‘言’이 아니라 ‘耳’으로 확인된다. 우변 하단은 자획의 일부가 마멸되어 명확하지 않다. ‘論’자 우변의 ‘侖’으로 볼 경우 하단의 ‘冂’획 내부의 종선과 횡선이 없다. 또한 ‘聆’자 우변의 ‘聆’으로 볼 경우에는 하단의 자형이 전체적으로 ‘冂’에 가깝다는 난점이 있다.

그런데 6행 29자와 같은 글자로 파악되는 3-2-19자의 경우, 좌변과 우변에서 각각 ‘耳’와 ‘令’획을 명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서 傅斯年甲本을 면밀하게 관찰하면 <표 2-16>에 모사한 것처럼 우변 하단에서 ‘令’획을 판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2-6-29자는 통설과 달리 ‘論’이 아니라 ‘聆’자로 판독되며, 2-6-29/30자와 3-2-19/20자는 ‘論事’가 아니라 ‘聆事’로 읽힌다. 이 구절은 고구려 중심의 차등적 외교관계 수립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16> 제2면 2-6-29자 판독 관련 자료

2-6-29자(聆) 北大A본	2-6-29자(聆) 傅斯年甲本	2-6-29자(聆) 傅斯年甲本	3-2-19자(聆) 傅斯年甲本	3-2-19자(聆) 北大A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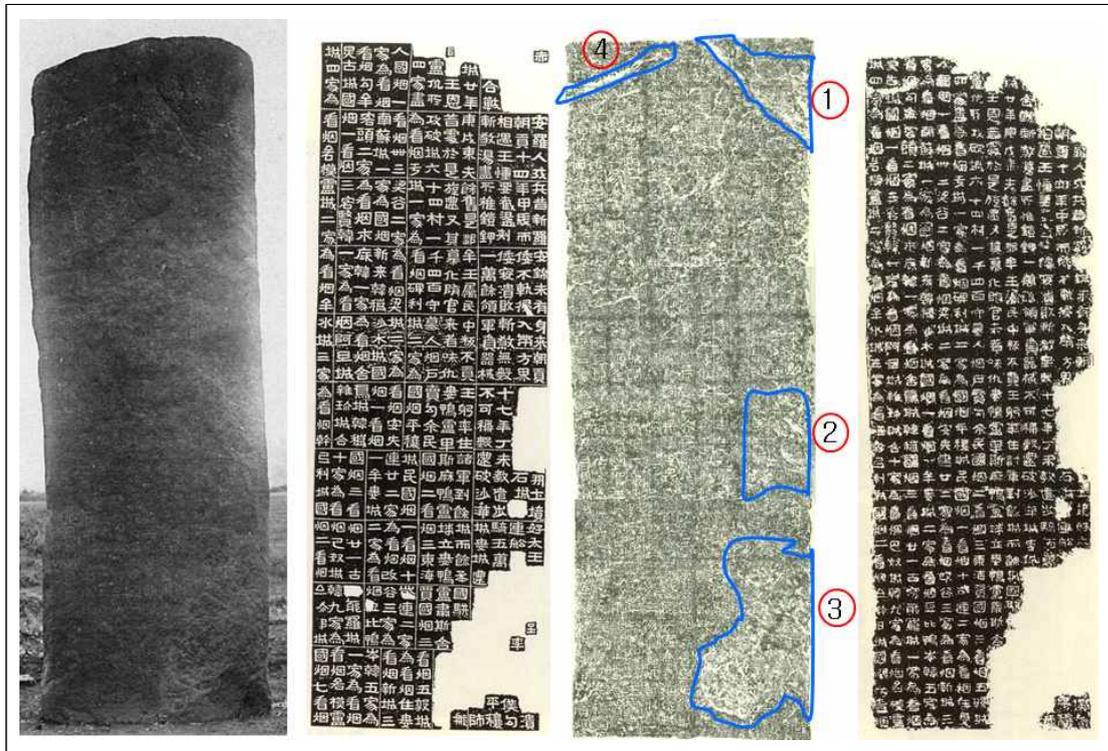
69) 方起東; 高廣의 2014a, 38쪽; 高廣의 2014b, 302-303쪽

### 3. 제3면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 1) 제3면 중상단의 박락 부분 판독

제3면은 능비의 네 면 가운데 비면의 폭이 가장 넓다. 이에 행수도 14행으로 가장 많은데, 행당 41자씩 총 574자를 새겼다. 제3면에서는 비면의 균열·박락이 크게 4곳 확인된다. 이 가운데 ①-③ 부분의 균열·박락이 자획을 크게 마멸시키거나 박락시켰다. 酒匂本이나 사반느본에서도 이러한 균열·박락 부분을 따라 공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능비 재발견 당시 또는 그 직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3면의 판독 논란자는 59자 전후인데(<표 3-1>), 대부분 이러한 균열과 박락 부분 안팎에 걸쳐 있다.

<그림 3-1> 제3면의 비면 현황



<부표 3-1> 제3면의 판독 논란자 판독안 비교 : 별도 파일 참조

<부표 3-2> 제3면의 판독 논란자 탁본 비교 : 별도 파일 참조

제3면의 균열·박락은 제1-2면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띤다. 제1-2면의 균열과 박락이 대체로 커다란 균열선을 따라 이루어진 데 비해, 제3면에서는 비면 전체를 횡단하는 커다란 균열선은 없고, 균열선이 자획의 마멸이나 박락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다. 상단 좌우에 균열선이 2개 있지만, 비면 전체를 횡단하지 않는다. 특히 右上-左下 방향의 ④번 균열선은 주로 글자 사이를 지나 자획도 거의 마멸시키지 않았다. 그밖에 미세한 균열선이 비면 곳곳에 있지만,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글자를 마멸시킨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제3면에는 커다란 균열선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판독 불가능자는 70여 자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판독 논란자도 59자에 이른다. 제3면에 판독불능자와 판독논란자가 많

은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들 수 있다.

첫째, 제3면의 우측 모서리에 해당하는 제1행이 대부분 박락되거나 마모되었다는 사실이다. 제1행은 묵수곽전본이나 초기 석회탁본에서는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박락과 마모가 심하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묵수곽전본인 酒匂本에서는 제1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1행의 하단 부분을 제2행의 하단으로 착각했다. 초기 석회탁본인 사반느본(1907년)에서도 제1행을 제외한 채 나머지 13행만 탁출했다. 제3면 제1행의 존재는 1913년에 능비를 조사했던 關野貞 일행에 의해 비로소 확인되었다.<sup>70)</sup>

둘째, 제3면의 커다란 박락은 자연적인 풍화나 균열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비의 이끼를 제거하기 위한 인위적인 화재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이다. 능비 재발견 직후에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 비면에 馬糞[똥]을 바른 다음 불태웠는데, 이때 비석이 크게 균열되고 박락되었다.<sup>71)</sup> 제3면의 ①-③번 박락은 이 과정에서 일어났고, 이로 인해 상당히 넓은 면적에 걸쳐 판독 불능자가 발생했다. 또 박락 부분의 가장자리를 따라 자획이 일부 남은 글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들의 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제3면은 모서리인 제1행이 대부분 박락되거나 마모되었고, 인위적인 화재로 인해 비면이 크게 박락되었다. 이에 따라 70여 자에 이르는 판독불능자는 자획이 거의 모두 박락되어 판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59자에 이르는 판독논란자도 상당수는 자획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제3면은 제1-2면과 달리 판독 논란자의 자형을 명확하게 판별하거나 글자를 새로 판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3면의 판독논란자를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풍화나 균열과 함께 인위적인 화재로 인한 박락 양상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3면은 화재로 비면이 크게 박락된 ①-③번 부분을 중심으로 비면의 박락 양상 특히 박락 부분의 가장자리를 따라 자획이 남은 양상을 면밀하게 관찰해 판독을 진행하려 한다.

<그림 3-2> 제3면 ①번 균열·박락 부분

제3면의 ①번 균열·박락 부분은 균열과 인위적 화재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났다. <그림 3-2>에서 보듯이 7행 1자의 右上에서 시작된 균열선이 右下 방향으로 뻗어 1행 6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균열선이 지나는 7행 1자, 6행 1자, 5행 2자, 4행 3자, 3행 4자, 2행 5자, 1행 6자 등이 크게 박락되었다. 이 균열선의 오른쪽 부분이 크게 박락되었는데, 비면에 馬糞을 발라 이끼를 불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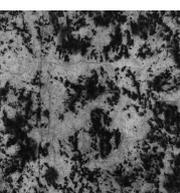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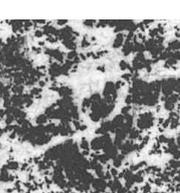
70) 關野貞 1941, 296쪽; 今西龍 1971, 453·468쪽

71) 顧燮光的『夢碧簪石言』; 楊守敬의「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碑跋」; 談國桓의「手札」; 박시형 1966, 260쪽; 박진석 1993, 8쪽.

이에 따라 자획이 거의 모두 박락되거나 마멸된 판독 불능자가 다수 발생했다. 1행은 비석의 모서리로 오랜 풍화로 인해 행 전체가 심하게 박락되고 마멸된 상태이다. 일부 연구자가 1행 3자를 ‘묘’나 ‘묘’, 1행 5자를 ‘倭’, 1행 6자를 ‘城’ 등으로 판독(추독)하기도 하지만, 1행 3자나 1행 5자는 자획의 흔적만 조금 확인될 뿐이다(<표 3-1> 참조). 1행 2-6자는 명확한 자획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판독 불능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2행 4-5자,<sup>72)</sup> 3행 2-4자, 4행 1-3자, 5행 1-2자, 6행 1자, 7행 2자 등도 박락이 심하여 판독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가운데 2행 5자는 ‘安羅人戍人’이라는 능비 관용구의 첫 글자로 ‘安’자로 추독할 수 있다. 5행 1-2자를 ‘四方’으로 판독하기도 하는데,<sup>73)</sup> 5행 1자는 자획이 모두 박락된 상태이다. 다만 <표 3-1>에서 보듯이 5행 2자는 규장각본이나 北大A본 등에 하단 자획이 일부 남아 있는데, 2-8-37자나 3-3-19자 등과 비교해보면 ‘方’자로 보기는 어렵다. 5행 2자의 하단 자획은 ‘忝, 恭, 慕’ 등의 하단 자획과 유사하지만, 글자를 판독하기는 쉽지 않다. 또 7행 2자를 ‘王’자나 ‘城’자로 추독하기도 하는데, 원석탁본상 그에 해당하는 자획을 찾기 힘들다.

<표 3-1> 제3면 ①번 균열·박락 부분 판독불능자 검토 자료

3-1-3자 규장각본	3-1-5자 규장각본	3-1-6자 규장각본	3-5-1자 규장각본	3-5-1자 水谷本
				
3-5-2자 규장각본	3-5-2자 北大A본	2-8-37자(方) 혜정본	3-3-19자(方) 水谷本	3-7-2자 金子本
				

다만 ①번 균열·박락 부분 가운데 오른쪽 최상단에 해당하는 1-3행의 1자를 비롯해 자획의 흔적이 상당수 많이 남아 있는 글자도 있다(<표 3-1>~<표 3-3> 참조).

가령 1행 1자는 종래 거의 모든 연구자가 판독 불능자로 처리했다(부표 <3-1>). 그렇지만 <표 3-2>에서 보듯이 여러 원석탁본에서 자획이 명확히 확인된다. 특히 청명본의 결락본인 규장각본에서는 橫線 3개가 일정 간격으로 있고, 좌측과 우측의 縱線도 확인된다. 傳斯年甲本에서도 橫線 3개, 우측 縱線과 함께 다소 희미하지만 좌측 縱線도 확인된다. 제3면의 1행 1자는 ‘曰’로 판독되는데, 문맥상으로도 바로 앞 글자인 제2면 10행 41자의 ‘言’자와 잘 조응된다.<sup>74)</sup> 이에 3-1-1자에 대해 ‘曰’자 판독안을 새롭게 제기한다.

72) 2행 4자에 대해 王健群이 ‘城’자 판독안을 제기했고 耿鐵華와 손영종이 王健群의 견해를 수용하였지만, <부표 3-1>에서 보듯이 그러한 자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叩’자와 유사한 자획이 확인되지만, 자획의 굵기가 다른 자획보다 가늘고 선명도도 낮아 판독을 보류하고 추후 더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73) 王健群 1984, 132쪽

74) 능비에서 ‘曰’자는 제1면 2행 17자 및 6행 39자 등 두 차례 확인되는데, 모두 ‘言曰’, ‘辭曰’ 등과 같이 ‘말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와 조응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10-41자가 ‘言’자라는 사실은 그 다음 글자인 3-1-1자를 판독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를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2> 제3면 ①번 균열·박락 부분의 3-1-1자 판독 참조 자료

3-1-1자(白) 규장각본	3-1-1자(白) 규장각본	3-1-1자(白) 傅斯年甲本	3-1-1자(白) 水谷本	1-2-17자(白) 金子本

<표 3-3> 제3면 ①번 균열·박락 부분 판독논란자 참조 자료

3-2-1자(赤) 金子本	3-2-2자(以) 규장각본	3-2-3자(隨) 金子本	3-3-1자(請) 규장각본	3-7-1자(餘) 北大D본
3-2-1자(赤) 규장각본	3-2-2자(以) 水谷本	3-2-3자(隨) 北大A본	3-3-1자(請) 傅斯年甲本	3-7-1자(餘) 청명본
4-9-22자(赤) 水谷本	1-7-10자(以) 金子本	3-7-15자(隨) 水谷本	2-7-32자(請) 水谷本	3-6-9자(餘) 傅斯年甲本

2행 1자는 ‘逃’나 ‘赤’ 판독안이 제기되었는데, 능비의 4-9-22자와의 비교를 통해 ‘赤’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3-3>).<sup>75)</sup> 2행 2자는 ‘以’자 판독안이 우세한 가운데 ‘拔’, ‘八’ 판독안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능비 특유의 ‘以(口+彡)’ 자획이 명확히 확인된다(<표 3-3>). 2행 3자는 ‘隨’자 판독안이 우세한 가운데, ‘羅’, ‘隋’ 등의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이 글자의 좌변은 마멸이 심하지만, 우변 자획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표 3-3>의 金子本이나 北大A본에서 보듯이 우변에 ‘有’획, 중단에 ‘辶’획이 확인된다. 좌변은 많이 마멸되었지만, 남은 자획은 ‘β’획과 유사하다. 2행 3자는 ‘隨’자로 판독할 수 있다.

3행 1자도 많이 마멸되고 크랙도 많다. 다만 규장각본이나 傅斯年甲本の 우변에서 ‘言’변, 우하단에서 ‘月’획이 확인할 수 있다(<표 3-3>). 3행 1자는 王健群의 판독안처럼 ‘請’자로 판독할 수 있다.<sup>76)</sup> 7행 1자는 ‘餘’와 ‘歸’ 등의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이 글자의 우변은 右上에서 시작되는 균열선

75) 白崎昭一郎 1993, 241쪽; 권인한 2015, 142쪽

76) 王健群 1984, 131쪽

에 의해 많이 마멸되고 크랙도 많이 형성되었다. 반면 좌변은 자획이 상당히 잘 남아 있는데, 北大D 본이나 청명본을 통해 ‘食’변을 확인할 수 있다(<표 3-3>). 더욱이 7행 1자는 東扶餘 정벌 기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전체 자형이 3-6-9자(餘)와 거의 같다는 점에서 ‘餘’자로 판독할 수 있다.

제3면의 ②번 박락 부분은 비석 모서리에 집중된 풍화 작용 및 인위적인 화재로 인해 일어났다. ②번 박락은 1-3행의 21-27자 범위에 걸쳐 있는데, <그림 3-3>에서 보듯이 별다른 균열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박락되었다. 비석 모서리에 해당하는 1행은 27자(辭)를 제외한 21-26자는 자획이 모두 박락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다. 2행도 26-27자를 제외한 21-25자의 자획이 모두 박락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다. 다만 2행 26-31자의 ‘開土境好太王’ 구절과 연결하여 22-25자를 ‘國岡上廣’으로 추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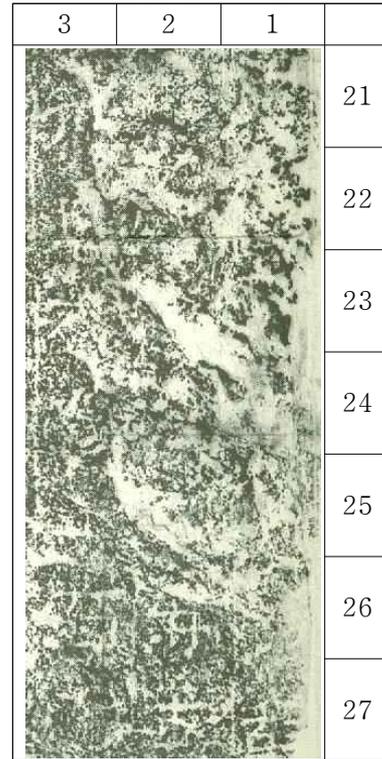
이 부분의 3행은 화재로 인한 박락의 가장자리에 해당한다. 가장자리 외곽에 자리한 3행 26-27자는 자획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26자는 ‘石’자의 자획이 잘 남아 있고, 27자도 좌변이 마멸되었지만 ‘城’의 우변 자획을 확인할 수 있다. 박락 부분의 가장자리에 걸친 3행 25자도 ‘至’자의 하단 자획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표 3-4>). 3행 25-27자는 ‘至石城’으로 판독된다.

반면 3행 21-24자는 인위적인 화재로 인해 자획이 많이 박락되었다. 王健群이 ‘和通殘兵’ 판독안을 제안했고, <부표 3-1>에서 보듯이 일부 연구자가 이를 수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王健群의 판독안이 통설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판독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77)</sup> <그림 3-3>에서 보듯이 3행 21-24자는 외형상 우변 자획은 거의 모두 박락되고, 좌변 자획만 일부 남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원 석탁본을 면밀히 관찰하면 우변에서도 자획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박락된 비면의 두께가 얇아 깊이 새겨진 자획이 일부 남은 것으로 보인다(<표 3-4>).

3행 22자의 경우 좌변과 하단에서 ‘通’자의 ‘辵’획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辵’획의 우상단에서는 縱線 2개와 함께 양측 縱線을 연결하던 橫線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縱線과 橫線 모두 실선으로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고, 점선의 양상을 띠는데 비면의 박락으로 자획 가운데 깊이 새겨진 부분만 일부 남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3-22자는 2-6-1자와 같은 자형으로 ‘通’자로 판독할 수 있다.

<그림 3-3> 제3면 ②번  
균열·박락 부분



77) 王健群도 판독안만 제시하고, 판독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비면의 자획 흔적이 모호하다면 본인의 판독안을 “감히 최종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不敢最後肯定)”고 했다(王健群 1984, 131쪽).

<표 3-4> 제3면 ②번 균열·박락 부분 판독논란자 판독 참조 자료

3-3-21자(和) 北大D본	3-3-22자(通) 金子本	3-3-23자(殘) 金子本	3-3-24자(兵) 水谷本	3-3-25자(至) 규장각본
3-3-21자(和) 水谷本	3-3-22자(通) 水谷本	3-3-23자(殘) 水谷本	3-3-24자(兵) 傅斯年甲本	3-3-25자(至) 水谷本
3-3-21자(和) 水谷本	3-3-22자(通) 水谷本	3-3-23자(殘) 水谷本	3-3-24자(兵) 傅斯年甲本	3-3-25자(至) 水谷本
2-6-41자(和) 청명본	2-6-1자(通) 혜정본	5-2-21자(殘) 혜정본	3-2-9자(兵) 金子本	2-8-27(至) 水谷本

3행 21자도 좌변의 자획은 비교적 잘 남아 있지만, 우변은 박락으로 인해 자획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우변 자획은 2-6-41자와의 비교를 통해 ‘禾’변임을 알 수 있다. 우변의 자획은 많이 박락되었지만, ‘口’획의 좌측 종선과 하단 횡선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며, 우측 종선과 상단 횡선도 희미하지만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 종선과 상단 횡선이 희미한 것은 이 부분의 비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박락되어 자획의 흔적이 얼마 남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3-3-21자는 ‘和’자로 판독된다.

3행 23자도 좌변에서 ‘殘’의 ‘歹’획, 우상단에서 ‘戈’획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우하단에서도 ‘戈’획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3-3-23자는 ‘殘’자로 판독할 수 있다. 3행 24자는 좌상단의 자획만 일부 남아 있는데, 3-2-9자와의 비교를 통해 ‘兵’자의 좌상단 자획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며 남아 있는 자획의 흔적을 관찰하면 ‘兵’자의 하단 橫線이 가는 점선의 형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24자는 남아 있는 자획의 흔적을 통해 ‘兵’자로 판독할 수 있다.

3행 21-24자는 王健群의 판독안처럼 ‘和通殘兵’으로 판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殘兵’의 ‘殘’은 ‘百殘’의 약자로 백제를 지칭한다. 영락14년조 帶方界의 침공이 倭兵의 단독 작전이 아니라, 백제와

의 연합작전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비문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를 준다.

## 2) 제3면 하단의 박락 부분 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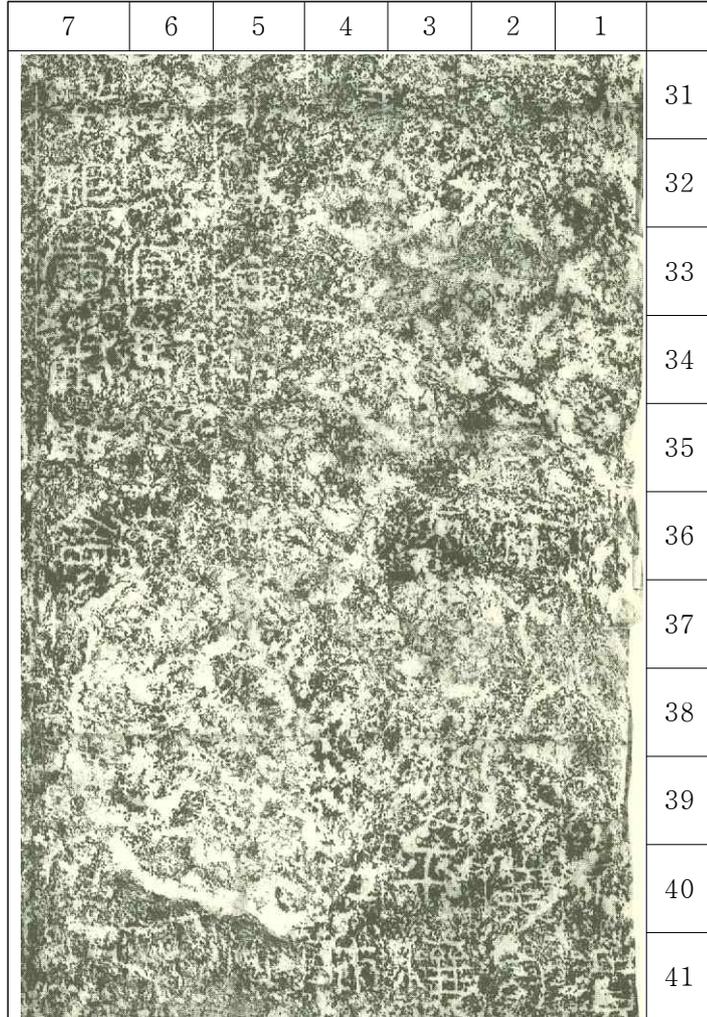
<그림 3-3> 제3면 ③번 균열·박락 부분

제3면의 ③번 박락 부분은 비면의 우하단에 위치하는데, 1-7행의 31-41자에 넓게 분포한다. 커다란 균열선이 확인되지 않아 대체로 능비 재발견 직후 馬糞을 발라 비면의 이끼를 불태우는 과정에서 박락된 것으로 추정된다.<sup>78)</sup> 이로 인해 비면이 심하게 박락되었는데, 77자 가운데 자획이 온전히 남은 글자는 20여 자도 안 되고, 40여 자는 자획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또 20여 자는 일부 자획만 남겨나 마멸이 심해 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자획이 모두 박락되거나 마멸된 글자로는 1행의 31자와 33-38자, 2행의 32-34자와 38자, 3행의 31-34자와 37-38자, 4행의 32-39자, 5행의 35자와 37-40자, 6행의 37-41자, 7행의 38-41자 등 39자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3행 34자는 ‘王躬牽’의 ‘王’자, 7행 38자는 ‘鴨廬’의 ‘廬’자로 추독된다.

자획이 일부만 남은 글자로는 1행 32자와 39-40자, 2행 31자, 35-37자, 39자, 3행 35-36자와 39자, 4행 40자, 5행 32자와 36자, 6행 32자와 35-36자, 7행 37자 등 18자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지만, 자획이 명확하지 않아 판독하기 힘든 글자도 상당수 있다. 그럼 각 행 단위로 글자의 박락과 마멸 상황을 관찰해 판독을 진행하고자 한다.<sup>79)</sup>

1행의 경우 41자(漬)만 명확하게 판독되고, 나머지 글자는 거의 모두 박락된 상태이다. 다만 1행 32자는 규장각본 등에서 좌변의 자획이 일부 확인되는데, ‘β’로 파악된다(<표 3-5>). 우변의 자획이 모두 박락되어 무슨 글자인지 판독할 수 없다. 1행 39자는 좌변에 ‘歹’변이 남아 있다(<표 3-5>). 우변의 자획이 박락되었지만, 전체 문맥상 1행 39자는 ‘殘’자로 추독할 수 있다. 1행 40자



78) 王健群 1984, 131쪽

79) 판독 참조자는 1-3행은 <표 3-5>, 4-5행은 <표 3-7>, 6-7행은 <표 3-8>로 작성하고, 새로운 판독자인 3-2-35자(國)와 3-6-36자(觀)는 각각 <표 3-6>과 <3-10>으로 작성했다.

는 우하단에 자획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자형을 판별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판독 불가능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2행의 경우 36자는 ‘寐’, 40-41자는 ‘僕句’ 등의 자획이 확인되지만, 나머지는 박락과 마멸이 심한 상태이다. 다만 31자는 ‘好太王’의 ‘王’자로 추독되는데, 원석탁본에서 확인되는 횡선은 ‘王’자의 상단 자획으로 파악된다(<표 3-5>). 그 아래 자획은 모두 박락되었다. 2행 37자는 ‘寐錦’의 ‘錦’자로 추독되는데, 좌변 상단의 ‘人’획은 ‘金’변의 일부이다. 2행 39자도 상단 자획이 많이 박락되었지만, 3-12-38자와의 비교를 통해 ‘家’자로 판독할 수 있다. 규장각본의 상단에는 ‘宀’획의 흔적이 남아 있다(<표 3-5>).

2행 34-35자를 ‘新羅’로 판독하기도 하지만, 2행 34자의 경우 자획이 거의 모두 박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2행 35자는 ‘羅’보다 오히려 ‘國’자에 가까운 자획이 남아 있다. 규장각본과 水谷本에서 ‘國’자의 외곽 테두리가 명확하게 남아 있다. ‘國’자 내부 좌하단의 ‘口+一’획도 확인되며, 우측에는 ‘戈’획이 들어갈 공간도 남아 있으며 규장각본에서는 자획의 흔적을 희미하게 확인할 수 있다(<표 3-6>). 이에 3-2-35자에 대해 ‘國’자 판독안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3행의 경우, 36자는 ‘率’(<표 3-5>), 40-41자는 ‘平穰’ 등의 자획이 명확히 확인되지만, 나머지는 박락과 마멸이 심한 상태이다. 다만 3행 36자가 ‘率’이므로 그 앞의 34-35자는 ‘王躬’으로 추독할 수 있다. 3행 34자는 비면이 모두 박락되어 관련 자획을 찾기 힘들지만, 35자는 점선의 형태이지만 金子本에서 ‘躬’에 해당하는 자획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표 3-5>). 3행 34-36자는 ‘王躬率’로 판독되는 것이다.

<표 3-5> 제3면 ③번 균열·박락의 1-3행 판독논란자 판독 참조 자료

3-1-32자(王) 규장각본	3-1-39자(殘) 규장각본	3-2-31자(王) 水谷本	3-2-39자(家) 규장각본	3-3-35자(躬) 金子本
3-1-32자(王) 규장각본	3-1-39자(殘) 규장각본	3-2-31자(王) 水谷本	3-12-38자(家) 水谷本	3-3-35자(躬) 金子本
3-3-36자(率) 北大A본	3-6-23자(率) 金子本	3-3-39자(從) 北大A본	3-3-39자(從) 北大A본	2-9-18자(從) 金子本

<표 3-6> 제3면 ③번 균열·박락의 3-2-35자(國) 판독 참조자

3-2-35자(國) 水谷本	3-2-35자(國) 水谷本	3-2-35자(國) 규장각본	3-2-35자(國) 北大A본	2-7-19자(國) 金子本

3행 34-36자를 제외하면 능비에는 ‘王躬率’이라는 표현이 모두 세 번 나오는데, 두 차례는 ‘住討(往討)’,<sup>80)</sup> 한 차례는 ‘討伐殘國’이라는<sup>81)</sup> 구절로 이어진다. 3행 34-36자 뒤에는 판독 불능자가 2자 있고(37-38자), 그 다음의 39-41자(從平穰)는 문맥상 새로운 문장의 첫 구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3행 34-36자의 ‘王躬率’ 다음에는 ‘住討(往討)’가 올 가능성이 높다. 3행 37-38자는 ‘住討(往討)’로 추독할 수 있는 것이다. 3행 39자도 박락이 심한 편이다. 다만 우변의 상단에서 橫線, 하단에서 ‘<’을 확인할 수 있는데(<표 3-5>), 모두 ‘從’의 우변 자획에 해당한다. 2-3-39자는 통설처럼 ‘從’자로 판독된다.

4행의 경우, 31자는 바로 위의 ‘步騎五’와 남은 자획을 통해 ‘萬’자로 판독할 수 있다. 41자는 ‘師’의 자획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밖에 32-39자는 자획이 모두 박락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다. 40자만 우하단에 자획 일부가 남아 있는데(<표 3-7>), 右上-左下 방향의 대각선은 비면이 박락된 가장 자리의 경계선이며, 그 오른쪽의 짧은 橫線이 자획에 해당한다. 남아 있는 횡선의 길이는 글자 폭의 1/2보다 짧다. 또 3행 40자(平)와 비교해보면, 글자를 상하로 3등분할 경우 중간과 아래 횡선임을 알 수 있다. 남아 있는 자획이 너무 짧아 단정하기 힘들지만, ‘王’의 우하단 자획에 가깝다. 4행 41자와 연결하면 ‘王師’가 되므로 문맥상으로도 자연스럽다. 3-4-40자는 ‘王’자 판독안에<sup>82)</sup> 따른다.

<표 3-7> 제3면 ③번 균열·박락의 4-5행 판독논란자 판독 참조 자료

3-4-40자(王) 규장각본	1-2-13자(王) 水谷本	3-5-32자 규장각본	3-5-33자 傅斯年甲本	3-5-36자(城) 규장각본
3-4-40자(王) 水谷本	3-3-40자(平) 水谷本	3-5-32자 北大A본	3-5-33자 金子本	3-5-36자(城) 규장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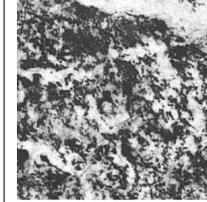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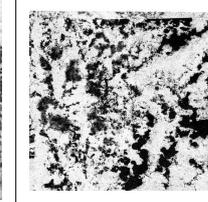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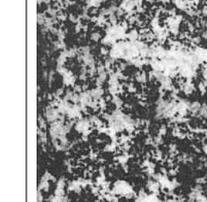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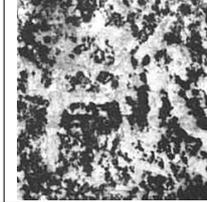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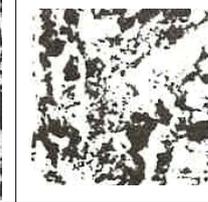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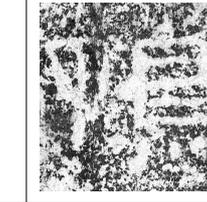
80) “永樂五年歲在乙未王以稗麗不□久躬率住討”(1면 7행),  
“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住討”(3면 6행).

81) 以六年丙申王躬率大軍討伐殘國(1면 9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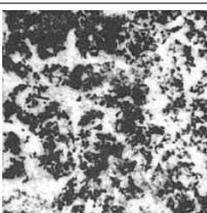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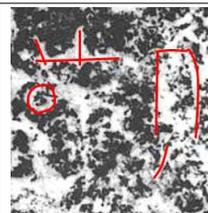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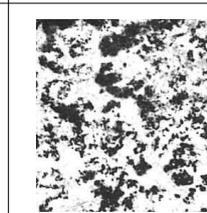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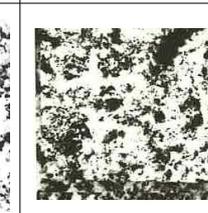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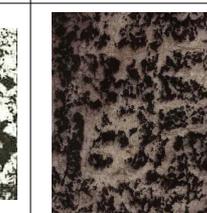
82) 王健群 1984, 132쪽; 白崎昭一郎 1993, 262쪽

5행의 경우, 31자, 34자는 ‘城’자로 판독된다. 5행 36자는 대부분 판독불능자로 처리하는 가운데, ‘城’자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표 3-7>의 규장각본에서 보듯이 ‘城’자의 우변 자획이 확인된다. 5행 31자, 34자, 36자는 모두 ‘城’자로 이 부분에는 성곽 명칭이 나열되어 있다. 5행 32자는 일부 자획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牛’자, ‘朱’자 등의 판독안이 제기되었지만, 무슨 글자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5행 33자는 우측 縱線의 인정 여부에 따라 ‘住’자와 ‘#’자<sup>83)</sup> 판독안으로 나뉜다. 그런데 傅斯年甲本 등 모든 원석탁본에서 우측 종선이 확인되며, 이를 포함하면 중하단 자획은 ‘田’으로 판독된다. 자형만 놓고 보면 3-5-33자는 ‘#’이지만, 무슨 글자인지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표 3-8> 제3면 ③번 균열·박락의 6-7행 판독논란자 판독 참조 자료

3-6-32자 규장각본	3-6-35자 규장각본	3-6-41자 水谷本	3-7-37자(鴨) 청명본	3-7-41자 水谷本
				
3-6-32자 金子本	3-6-35자 傅斯年甲本	2-9-24자(服) 傅斯年甲本	3-7-37자(鴨) 傅斯年甲本	3-7-22자(鴨) 청명본
				

<표 3-9> 제3면 ③번 균열·박락의 3-6-36자(觀) 판독 참조 자료

3-6-36자 水谷本	3-6-36자 水谷本	3-6-36자 傅斯年甲本	3-6-36자 金子本	1-8-27(觀) 혜정본
				

6행의 경우 31자는 ‘餘’, 33-34자는 ‘國駭’로 판독되지만, 나머지 글자는 박락과 마멸이 심한 상태이다. 37-40자는 비면이 박락되어 자획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41자는 비면이 박락되지는 않았지만, 자획이 심하게 마멸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다. 32자와 35자도 자획이 많이 마멸되었다(<표 3-8>). 32자는 남은 자흔과 문맥을 고려하여 ‘擧’자나 ‘城’자로 판독하기도 하지만, 이와 관련된 자획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35자도 문맥을 고려하여 ‘服’자로 판독하기도 하지만, 이와 관련된 자획을 확인하기는 어렵다.<sup>84)</sup>

83) 由

84) 白崎昭一郎 1993, 274-275쪽에서는 傅斯年甲本의 좌변에 ‘服’자의 ‘月’에 해당하는 자획이 남아 있다고 했지만, <표 3-8>에서 보듯이 그러한 자획을 확인하기 어렵다.

6행 36자는 우변과 좌하변이 많이 마멸되었다. 종래 35자를 ‘服’자로 판독한 다음 36자를 이와 연결해 ‘獻’자로 보기도 했는데,<sup>85)</sup> 이와 관련한 자획을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水谷本이나 傅斯年甲本 등에는 좌변 상단에 ‘ㄴ’ 및 ‘口’ 등의 자획이 남아 있다. 이 자획에 해당하는 글자로는 觀, 勸, 顛 등이 있다. 그런데 水谷本을 면밀히 관찰하면, 우변에서 희미하지만 ‘見’자의 ‘目’획의 외곽 테두리 및 하단의 ‘ノ’획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자획의 흔적은 金子本에도 남아 있다. 이에 6-3-36자에 대해 ‘觀’자 판독안을 새롭게 제기하고자 한다.

7행의 경우 31-36자는 자획이 잘 남아 있어 판독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반면에 38-39자는 비면이 박락되어 자획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40-41자도 비면이 박락되지는 않았지만, 마멸이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하다(<표 3-8>). 다만 37자는 우변은 박락되었지만, 좌변에서 ‘鴨’자의 ‘甲’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표 3-8>). 이에 7행 37자는 문맥상 ‘鴨’로 판독할 수 있고, 38자도 문맥상 ‘盧’자로 추독할 수 있다.

### 3) 제3면의 개별 마멸 글자 판독

제3면의 판독 불능자나 논란자는 상기한 ①-③번 균열·박락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종래 묵수곽 전본이나 석회탁본에 의거해 잘못 판독한 글자도 주로 이곳에 분포한다. 다만 제3면에는 개별적으로 자획이 마멸되거나 자형 판단에 대한 견해차로 판독상 논란이 있는 글자도 7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행 16자는 대다수 연구자가 판독 불능자로 처리하는 가운데, ‘興’자 판독안이 제기된 상태이다. <표 3-10>에서 보듯이 비면 모서리의 마모로 인해 우변 자획은 박락되었지만, 水谷本이나 傅斯年甲本 등에서 좌변 자획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1-4-14자와의 비교를 통해 ‘興’의 좌변 자획 일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水谷本과 규장각본의 우하단에서는 ‘興’자 중단의 ‘一’획 및 하단 ‘八’획의 좌변 자획도 확인된다. 3-1-16자는 ‘興’자로 판독할 수 있다. 1행 17자도 좌변에 자획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무슨 글자인지는 판별하기 힘든 상태이다. 3-1-17자는 판독불능자로 처리한다.

85) 白崎昭一郎 1993, 275쪽에서는 水谷本, 傅斯年甲本, 金子本 등에 ‘獻’자의 좌변 자획이 남아 있다고 했지만, <표 3-9>에서 보듯이 그러한 자획을 확인하기 어렵다.

<표 3-10> 제3면 개별 마멸 글자 판독 참조 자료

3-1-16(興) 傅斯年甲本	3-1-16(興) 규장각본	3-1-16자(興) 水谷本	3-1-16자(興) 水谷本	1-4-14자(興) 혜정본
3-2-19자(聆) 北大A본	3-2-19자(聆) 규장각본	3-2-19자(聆) 규장각본	2-6-29자(聆) 傅斯年甲本	2-6-29자(聆) 傅斯年甲本
3-5-10자(獲) 傅斯年甲本	3-5-10자(獲) 규장각본	3-7-29자(瑞) 北大A본	3-13-1자(炅) 청명본	1-11-13자(須) 水谷本

<표 3-11> 3-1행 29-30자 판독 참조자

3면 1행 29-30자(新羅) 3면 2행 29-30자(好太) 水谷本	3면 1행 29-30자(新羅) 水谷本	3면 1행 29-30자(新羅) 규장각본	2면 8행 21-22자(新羅) 혜정본

1행 29-30자도 우변의 자획이 거의 모두 박락되어 대부분 판독 불능자로 처리한다. 다만 <표 3-11>의 水谷本이나 규장각본에서 보듯이 1행 30자의 좌상단 자획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2-8-22자와의 비교를 통해 ‘羅’자 상단 ‘屮’획의 좌측 2/3, ‘糸’획의 상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1-30자는 徐建新의 摹寫처럼 ‘羅’자의 일부인 것이다.<sup>86)</sup> 1행 30자가 ‘羅’자라면 그 앞의 1행 29자는 ‘新’자일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며 1행 29자의 남은 자획을 관찰하면,

86) 徐建新 2006, 321쪽

2-8-21자와의 비교를 통해 ‘新’자 좌상단 ‘立’획의 일부, 좌하단 ‘木’획의 일부, 우변 ‘斤’획의 일부 등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1행 29-30자에 대해 ‘新羅’ 판독안을 새롭게 제안한다.

2행 19자는 자획이 선명하게 잘 남아 있는데, 종래 거의 모든 연구자가 ‘論事’의 ‘論’자로 판독했다. 이와 동일한 어구가 제2면 29-30자에도 나오는데, 역시 거의 모든 연구자가 ‘論事’로 판독했다. 그렇지만 <표 3-10>에서 보듯이 2행 19자의 좌변은 ‘言’변이 아니라 ‘耳’변이며, 우변도 ‘論’획이 아니라 ‘畵’획임이 명확하다. 3-2-19자는 ‘論’이 아니라 ‘聆’자로 ‘聆事’라는 어구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sup>87)</sup>

5행 10자도 자획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종래 ‘獲’자와 ‘穫’자 판독안이 대립했다. 그렇지만 <표 3-10>의 傅斯年甲本이나 규장각본에서 보듯이 이 글자의 좌변은 ‘耂’변이 거의 명확하다. 3-5-10자에 대해 ‘獲’자 판독안을 새롭게 제안한다.

7행 29자도 자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다. 종전에는 ‘耑’자 판독안이 우세한 가운데, ‘耑’자나 ‘耑’자 등의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표 3-10>의 北大A본이나 <부표 3-2>의 傅斯年甲本에서 보듯이 좌변 자획은 ‘土’변이 거의 명확하다. 3-7-29자는 통설적 견해와 달리 ‘耑’로 판독되는 것이다.

12행 33자는 자획이 많이 마멸되어 판독이 쉽지 않다. 종래 ‘模’자 판독안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須’자 판독안도 제기되었다. 이 글자는 ‘古□耶羅城’라는 어구의 일부인데, 이와 동일한 성곽 명칭이 제1면 11행 12-16자에 나온다. 이 가운데 3-12-33자에 해당하는 1-10-13자는 별고에서 검토했듯이 水谷本 등을 통해 ‘須’자로 판독할 수 있다.<sup>88)</sup> 3-13-33자는 ‘須’자로 추독되는 것이다.

13행 1자도 자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다. 종래 ‘旻’자 판독안이 우세한 가운데, ‘莫’자 판독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표 3-10>의 청명본을 비롯해 여러 원석탁본에서 ‘莫’자 상단의 ‘艹’변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에 비해 ‘日’획은 명확하게 확인되며, 하단의 자획도 ‘火’에 가깝다. 3-13-1자는 통설처럼 ‘旻’자로 판독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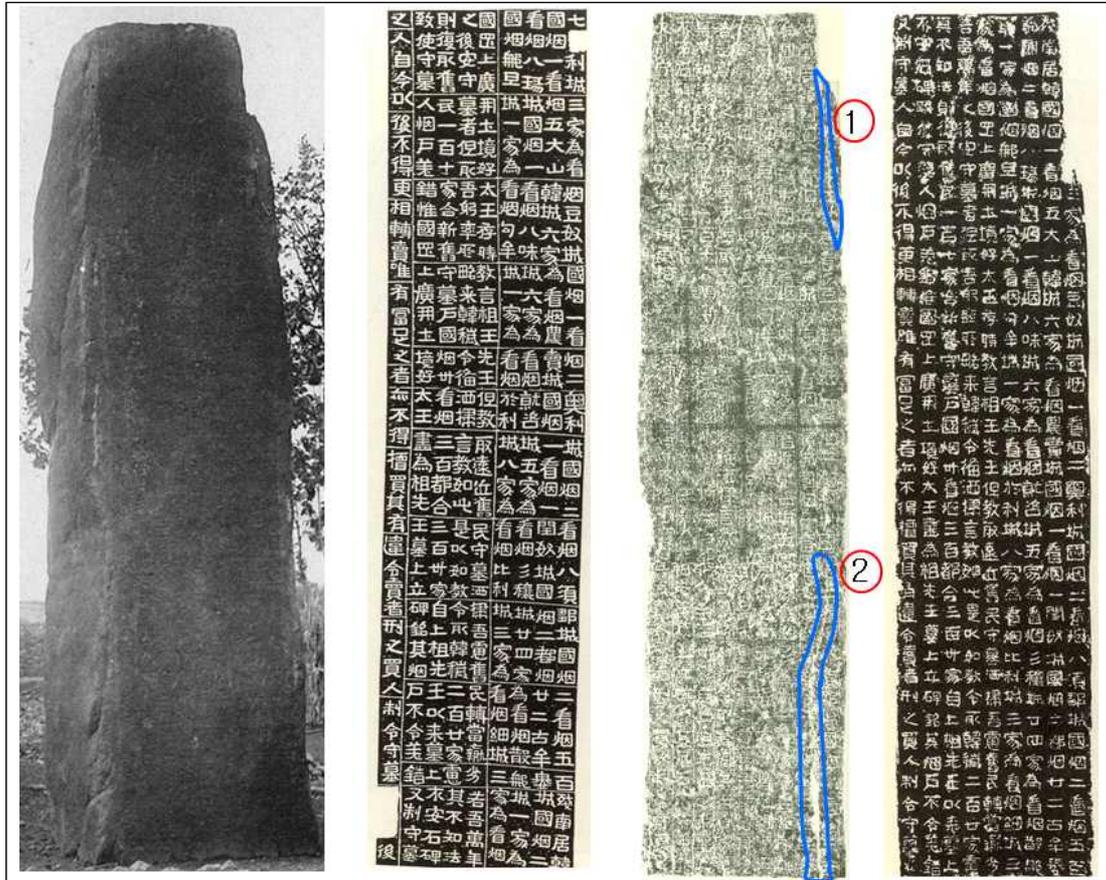
87) 方起東: 高廣의 2014, 38쪽

88) 李浩규 2023, ??쪽

#### 4. 제4면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제4면은 능비의 네 면 가운데 비면의 폭이 가장 좁고, 행수도 9행으로 가장 적다. 특히 1행 상단은 비면의 제약으로 1-4자를 새기지 않았다. 제4면에는 모두 365자를 새긴 것이다. 제4면에서는 커다란 균열선이 2곳 확인된다. 이 가운데 ①번 균열선은 1행 5-10자를 상하 방향으로 지나가며, ②번 균열선은 1행 28자에서 시작하여 1-2행 사이의 꺾선 좌우를 따라 하단까지 이어진다.

<그림 4-1> 제4면의 비면 현황



<부표 4-1> 제4면의 판독 논란자 판독안 비교 : 별도 파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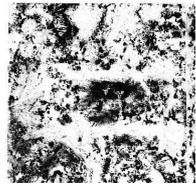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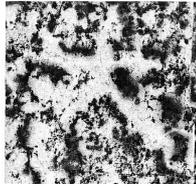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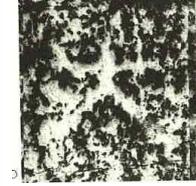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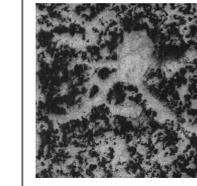
<부표 4-2> 제4면의 판독 논란자 탁본 비교 : 별도 파일 참조

<그림 4-1>에서 보듯이 ①번 균열선은 1행 5-10자를 상하 방향으로 지나가며 자획의 일부를 마멸시켰지만, 글자를 판독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②번 균열선도 1행 28-30자의 좌변, 2행 31-39자의 우변 등의 자획을 일부 마멸시켰지만, 판독에는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제4면에는 비면의 균열이나 박락에 따른 판독논란자가 거의 없는 것이다. 실제 <부표 4-1>에서 보듯이 제4면의 판독논란자는 2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행 28자는 ‘二’자 판독안이 우세한 가운데, 국내 연구자들이 주로 ‘一’자로 판독하고 있다. 이 글자는 <표 4-1>에 예시한 청명본을 비롯해 <부표 4-2>의 여러 원석탁본에서 보듯이 ‘二’자가 명확하다. 4-1-28자는 ‘二’자로 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2행 11자는 ‘大’자 판독안이 우세한 가운데, ‘太’자로도 판독한다. 그런데 <표 4-1>의 청명본과 金子本을 비롯해 <부표 4-2>의 여러 원석탁본에서 보듯이 ‘大’자 아래의 ‘丶’획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太’자로 판독되는 1-5-9자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이 글자가 포함된 성곽 명칭이 제2면 1행 9-12자에도 나오는데, <표 4-1>에 예시한 청명본의 2-1-9자에서 보듯이 ‘大’자 아래의 ‘丶’획이 명확하지 않다. 4-2-11자는 ‘大’자로 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4-1> 제4면의 판독논란자 판독 참조 자료

4-1-28자(二) 청명본	4-2-11자(大) 청명본	4-2-11자(大) 金子本	2-1-9자(大) 청명본	1-5-9자(太) 해정본
				

## 맺음말

1959년 水谷悌二郎 이래 여러 연구자가 원석탁본을 바탕으로 판독을 진행하여 목수곽전본이나 석회탁본에 따른 판독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다만 종전 연구에서는 주로 개별 글자 단위로 판독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마멸이 심하거나 크랙이 많은 글자의 경우 연구자마다 자형 판별 및 자획·크랙의 구분 기준이 달라 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다. 이에 비면의 전체적인 균열과 박락 양상을 관찰한 다음, 개별 글자가 아니라 균열·박락 부분을 단위로 삼아 균열과 크랙의 진행 방향, 마멸 정도 등을 고려하며 판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제1~4면에 대한 필자의 판독안을 제시하였다.

제1면은 판독논란자 43자를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마멸이 극심한 11자를 제외한 32자를 판독하거나 추독하였다. 자획이 남아 있지 않은 3자는 문맥을 통해 추독했고, 2자는 일부 자획을 제시했고, 27자는 전체 자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1-10-31자(國)는 새로운 판독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분분했던 1-2-15자(津), 1-3-27자(因), 1-4-2자(頁), 1-5-13자(格), 1-6-5자(宴), 1-7-16자(久), 1-8-12자(襄), 1-8-25자(海), 1-9-13자(海), 1-10-1자(首), 1-10-4자(壹) 등은 자획과 크랙을 구분하여 판별하고 자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통설적 판독안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면은 판독논란자 54자를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마멸이 극심한 6자를 제외한 48자를 판독하거나 추독하였다. 자획이 남아 있지 않은 3자는 문맥을 통해 추독했고, 1자는 일부 자획을 제시했고, 44자는 전체 자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2면 좌측 모서리의 박락과 마멸 양상을 분석하여 2-9-8-9자(官軍), 2-9-30자(還), 2-9-34자(監), 2-10-22자(改), 2-10-35자(津) 등 6글자의 판독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또 논란이 분분하거나 소수설이었던 2-1-22자(國), 2-3-2자(曾), 2-3-4자(儒), 2-3-13자(國), 2-5-3자(愆), 2-6-29자(聆), 2-10-20자(更), 2-10-21자(脩), 2-10-32자(得), 2-10-34자(村) 등은 전체 자형을 제시하여 통설적 판독안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3면은 판독논란자 60자를 검토했다. 이 가운데 박락과 마멸이 심한 19자를 제외한 41자를 판독하거나 추독했다. 자획이 남아 있지 않은 11자는 문맥을 통해 추독했고, 1자는 일부 자획만

제시했고, 29자는 전체 자형을 제시했다.<sup>89)</sup> 특히 3-1-1자(曰), 3-1-29·30자(新羅), 3-2-35자(國), 3-5-10자(獲), 3-6-36자(觀) 등 6자의 판독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논란이 분분하거나 소수설이던 2행 1~3자(亦以隨), 3-2-19자(聆), 3행 21~24자(和通殘兵), 3-4-40자(王), 3-5-36자(城), 3-7-1자(餘), 3-7-29자(揣) 등의 자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통설적 판독안의 기반을 마련했다.

제4면은 마멸이 심하지 않아 판독논란자도 2자에 불과하다. 4-1-28자는 국내 연구자들이 주로 ‘一’자로 판독하고 있지만, ‘二’자가 명확하다. 4-2-11자는 ‘大’와 ‘太’ 판독안이 대립하고 있는데, ‘大’자 아래의 ‘丶’획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大’자로 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4면은 365자 전체를 명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1면 43자, 제2면 54자, 제3면 60자, 제4면 2자 등 총 159자를 검토하여 박락과 마멸이 심한 36자를 제외한 123자를 판독하거나 추독했다. 자획이 남아 있지 않은 17자는 문맥을 통해 추독하고, 4자는 일부 자획만 제시하고, 102자는 전체 자형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3자를 새롭게 판독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논란이 분분하거나 소수설이던 판독안의 자형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 통설적 판독안의 기반을 마련했다.

상기와 같은 판독 성과는 향후 능비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락10년 경자년조에서 10자를 새롭게 판독하고, 소수설의 자형을 제시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경자년조를 비롯하여 남방 무훈기사를 보다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무훈기사의 서사 구조를 비롯해 능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찰할 것을 기약한다.

---

89) 다만 3-5-33자는 자형은 판독되지만 무슨 글자인지는 알 수 없다.

## 【참고문헌】

### 1. 한국어

- 고광의, 2014a 「廣開土太王碑 석문 일고」 『혜정 소장본 광개토태왕비 원석탁본』 동북아역사재단
- 고광의, 2014b 「廣開土太王碑 석문 일고」 『백산학보』 100
- 고광의, 2015 「廣開土太王碑의 제1면 9행 13자 釋文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7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張明善 탁출 광개토태왕릉비 탁본』 국립문화재연구소
- 권인한, 2011 「廣開土王陵碑文의 새로운 판독과 해석」 『목간과문자』 8
- 권인한, 2015 『광개토태왕비문 신연구』 박문사
- 기경량, 2020 「광개토태왕릉비문의 신판독과 해석」 『고구려발해연구』 68
- 기경량, 2022 「광개토태왕비 辛卯年條 ‘來渡海破’ 판독의 문제와 그 함의」 『고구려발해연구』 73
- 김석형,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 김영만, 1980 「廣開土王陵碑의 新研究(I)」 『신라가야연구』 11
- 김영하, 2012 「광개토태왕릉비의 정복기사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66
- 노태돈, 1992 「광개토태왕릉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 『혜정 소장본 광개토태왕비 원석탁본』
- 박시형, 1966 『광개토태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2007 『광개토태왕릉비』 (복각본) 푸른나무)
- 박진석 외, 2015 『광개토태왕비의 탐색』 동북아역사재단
- 박진석, 1993 『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 연변대학출판사
- 백승옥, 2003 「廣開土王陵碑文의 建碑目的과 加耶關係記事의 해석」 『한국상고사학보』 42
- 백승옥, 2014 「광개토태왕릉비 탁본 혜정본의 외형적 특징과 복원」 『혜정 소장본 광개토태왕비 원석탁본』
- 백승옥, 2015 「광개토태왕릉비문 신묘년조에 대한 신해석」 『동양학』 58
- 서영수, 1982 「廣開土王陵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上) 『역사학보』 96
- 손영종, 2001 『광개토태왕릉비문 연구』 중심
- 여호규, 2019 「북한의 광개토태왕비 연구와 장명선 탁본」 『張明善 탁출 광개토태왕릉비 탁본』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도학, 2006 『고구려 광개토태왕릉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 여호규, 2012 「광개토태왕릉비문의 역사적 성격과 특징」 『박물관학보』 23
- 이도학, 2020 『새롭게 해석한 광개토태왕릉비문』 서경문화사
- 이형구·박노희, 1996 『廣開土大王陵碑新研究(2판)』 동화출판사
- 임기중, 1995 『廣開土王陵原石初期拓本集成』 동국대학교 출판부
- 임세권·이우태, 2002 『韓國金石文集成(1) 高句麗 1 廣開土王碑』 한국국학진흥원
- 임창순, 1973 「廣開土大王碑釋文」 『書通』 창간호
- 정인보, 1955 「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釋略」 『용재백낙준박사환갑기념국학논총』
- 최연식, 2020 「永樂 6년 고구려의 백제 침공 원인에 대한 검토 - <廣開土王碑> 辛卯年 기사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 『木簡과 文字』 24

### 2. 중국어

- 耿鐵華, 1994 『好太王碑新考』 吉林人民出版社

耿鐵華, 2012 『高句麗好太王碑』 吉林大學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266-269쪽: 方起東 판  
 독문 게재)  
 談國桓, 「手札」『奉天通志』  
 羅振玉, 「好太王陵碑」『廬廬日札』  
 羅振玉, 1909 「高麗好太王碑釋文」『神州國光集』第9集  
 方起東, 1995 「好太王碑釋文一得」『博物館研究』1995-1  
 楊守敬, 1909 「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碑跋」『高句麗好太王碑』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임동석 역, 1985 『광개토왕비연구』 역민사)  
 昌葉熾, 1909 「奉天一則」『語石』

### 3. 일본어

那珂通世, 1893 「高句麗石碑考」『史學雜誌』第47~49號(1915 『那珂通世遺書』大日本圖書)  
 東京國立博物館, 1996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  
 藤田友治, 1986 『好太王碑論爭の解明』新泉社  
 武田幸男 편, 2007 『廣開土王碑』天來書院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陵碑原石拓本集成』東京大出版會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岩波書店  
 武田幸男, 2007 『廣開土王碑との對話』白帝社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吉川弘文館  
 白崎昭一郎, 1993 『廣開土王碑文の研究』吉川弘文館  
 三宅米吉, 1898 「高麗古碑考」『考古學會雜誌』第2編 1~3號  
 徐建新, 2006 『好太王碑拓本の研究』東京堂出版  
 水谷悌二郎, 1959 「好太王碑考」『書品』100號  
 水谷悌二郎, 1976 『好太王碑考』開明書店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吉川弘文館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吉川弘文館(이기동 역, 1982 『廣開土王碑의 探究』일조각)  
 朝鮮總督府, 1919 『朝鮮金石總覽』上

광개토왕릉비 판독안(여호규, 2023. 2. 7, 한국목간학회 제38회 정기발표회)

<표 5-1> 광개토왕릉비 제1면 판독안1)

11	10	9	8	7	6	5	4	3	2	1	
利	首	由	羊	永	弔	二	龍	連	巡	惟	1
城	攻	來	不	樂	卅	九	頁	葭	幸	昔	2
雜	取	朝	可	五	有	登	昇	浮	南	始	3
珎	壹	貢	稱	年	九	祚	天	龜	下	祖	4
城	八	而	數	歲	宴	号	顧	然	路	鄒	5
奧	城	倭	於	在	駕	爲	命	後	由	牟	6
利	白	以	是	乙	棄	永	世	造	夫	王	7
城	模	辛	旋	未	國	樂	子	渡	餘	之	8
句	盧	卯	駕	王	以	太	儒	於	奄	創	9
牟	城	年	因	以	甲	王	留	沸	利	基	10
城	各	來	過	稗	寅	恩	王	流	大	也	11
古	模	渡	襄	麗	年	澤	以	谷	水	出	12
須	盧	海	平	不	九	格	道	忽	王	自	13
耶	城	破	道	洞	月	丐	興	本	臨	北	14
羅	幹	百	東	口	廿	皇	治	西	津	夫	15
城	弓	殘	來	久	九	天	大	城	言	餘	16
頁	利	口	△	躬	日	威	朱	山	曰	天	17
口	[城]	口	城	率	乙	武	留	上	我	帝	18
口	口	[新]	力	住	酉	振	王	而	是	之	19
口	口	羅	城	討	遷	被	紹	建	皇	子	20
口	城	以	北	過	就	四	承	都	天	母	21
城	閣	爲	豐	富	山	海	基	焉	之	河	22
分	弥	臣	五	山	陵	掃	業	不	子	伯	23
而	城	民	備	貧	於	除	選	樂	母	女	24
耶	牟	以	海	山	是	口	至	世	河	郎	25
羅	盧	六	遊	至	立	口	十	位	伯	剖	26
[城]	城	年	觀	鹽	碑	庶	七	因	女	卵	27
瑑	弥	丙	土	水	銘	寧	世	遣	郎	降	28
城	沙	申	境	上	記	其	孫	黃	鄒	世	29
於	城	王	田	破	勳	業	國	龍	牟	生	30
利	[國]	躬	獵	其	績	國	岡	來	王	而	31
城	舍	率	而	三	以	富	上	下	爲	有	32
口	葛	大	還	部	示	民	廣	迎	我	聖	33
口	城	軍	百	洛	後	殷	開	王	連	[豫]	34
[城]	阿	討	殘	六	世	五	土	王	葭	口	35
豆	旦	伐	新	七	焉	穀	境	於	浮	口	36
奴	城	殘	羅	百	其	豐	平	忽	龜	口	37
城	古	國	舊	營	辞	熟	安	本	應	口	38
沸	利	軍	是	牛	曰	昊	好	東	聲	口	39
口	城	口	屬	馬		天	太	岡	卽	命	40
口	口	[殘]	民	羣		不	王	履	爲	駕	41

1) 판독부호 : [ ] : 문맥상 추독, [글자] : 자획상 추독, ■ : 자획 존재, □ : 판독 불가능자  
 글자색 : 녹색 : 자형표기상 문제, 파란색 : 원석타본 판독 확정자, 붉은색 : 판독 논란자

<표 5-2> 광개토왕릉비 제2면 판독안

10	9	8	7	6	5	4	3	2	1	
		[特]	通	烏	迷	歸	城	城	利	1
		遣	王	慎	之	穴	曾	燕	城	2
		使	巡	土	愆	就	[婁]	婁	弥	3
		還	下	谷	錄	便	城	城	鄒	4
		告	平	因	其	圍	[儒]	析	城	5
		以	穰	便	後	城	古	支	也	6
		[密]	而	抄	順	而	盧	利	利	7
	官	計	新	得	之	殘	城	城	城	8
	[軍]	十	羅	莫	誠	主	仇	巖	大	9
	背	年	遣	斯	於	困	天	門	山	10
	急	庚	使	羅	是	逼	城	三	韓	11
	追	子	白	城	[得]	獻	□	城	城	12
	至	教	王	加	五	□	國	林	掃	13
	任	遣	云	太	十	男	□	城	加	14
	那	步	倭	羅	八	女	[城]	但	城	15
	加	騎	人	谷	城	生	□	城	敦	16
十	羅	五	滿	男	村	口	其	斨	拔	17
九	從	萬	其	女	七	一	國	□	城	18
盡	拔	住	國	三	百	千	城	□	□	19
更	城	救	境	百	將	人	殘	□	□	20
脩	城	新	潰	餘	殘	細	不	□	城	21
改	卽	羅	破	人	主	布	服	利	國	22
安	歸	從	城	自	弟	千	義	城	婁	23
羅	服	男	池	此	并	匹	敢	就	賣	24
人	安	居	以	以	大	跪	出	鄒	城	25
戍	羅	城	奴	來	臣	王	百	城	散	26
兵	人	至	客	朝	十	自	戰	■	[那]	27
新	戍	新	爲	貢	人	誓	王	拔	城	28
[羅]	兵	羅	民	聆	旋	從	威	城	[那]	29
[城]	[還]	城	歸	事	師	今	赫	古	旦	30
■	新	倭	王	九	還	以	怒	牟	城	31
[得]	新	滿	請	年	都	後	渡	婁	細	32
其	城	其	命	己	八	永	阿	城	城	33
村	監	中	太	亥	年	爲	利	閏	牟	34
津	城	官	王	百	戊	奴	水	奴	婁	35
■	倭	軍	恩	殘	戊	客	遣	城	城	36
□	寇	方	慈	違	教	太	剋	貫	亏	37
□	大	至	矜	誓	遣	王	迫	奴	婁	38
□	潰	倭	其	与	偏	恩	城	城	城	39
□	城	賊	忠	倭	師	赦	橫	彡	蘇	40
言	內	退	誠	和	觀	[先]	□	穰	灰	41

<표 5-3> 광개토왕릉비 제3면 판독안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城	炘	看	家	人	民	鴨	餘	□	□	□	請	亦	曰	1
四	古	烟	爲	國	四	盧	□	城	■	□	□	以	□	2
家	城	句	看	烟	家	凡	王	廿	合	□	□	隨	■	3
爲	國	牟	烟	一	盡	所	恩	年	戰	鋒	□	■	□	4
看	烟	客	南	看	爲	攻	普	庚	斬	相	朝	[安]	■	5
烟	一	頭	蘇	烟	看	破	覆	戊	煞	遇	貢	羅	□	6
各	看	二	城	冊	烟	城	於	東	蕩	王	十	人	□	7
模	烟	家	一	三	丐	六	是	夫	盡	幢	四	戊	□	8
盧	三	爲	家	梁	城	十	旋	餘	所	要	年	兵	□	9
城	客	看	爲	谷	一	四	還	舊	獲	截	甲	昔	□	10
二	賢	烟	國	二	家	村	又	是	鎧	盪	辰	新	□	11
家	韓	求	烟	家	爲	一	其	鄒	鉀	荆	而	羅	□	12
爲	一	底	新	爲	看	千	慕	牟	一	倭	倭	寐	□	13
看	家	韓	來	看	烟	四	化	王	萬	寇	不	錦	□	14
烟	爲	一	韓	烟	碑	百	隨	屬	餘	潰	軌	未	□	15
牟	看	家	穢	梁	利	守	官	民	領	敗	侵	有	[興]	16
水	烟	爲	沙	城	城	墓	來	中	軍	斬	入	身	■	17
城	阿	看	水	二	二	人	者	叛	資	煞	帶	來	□	18
三	旦	烟	城	家	家	烟	味	不	器	無	方	聆	□	19
家	城	舍	國	爲	爲	戶	仇	貢	械	數	界	事	□	20
爲	雜	蔦	烟	看	國	賣	婁	王	不	十	和	□	□	21
看	玆	城	一	烟	烟	句	鴨	躬	可	七	通	[國]	□	22
烟	城	韓	看	安	平	余	盧	率	稱	年	殘	[岡]	□	23
幹	合	穢	烟	夫	穰	民	卑	住	數	丁	[兵]	[上]	□	24
弓	十	國	一	連	城	國	斯	討	還	未	[至]	[廣]	□	25
利	家	烟	牟	廿	民	烟	麻	軍	破	教	石	開	□	26
城	爲	三	婁	二	國	二	鴨	到	沙	遣	城	土	辞	27
國	看	看	城	家	烟	看	盧	餘	溝	步	□	境	□	28
烟	烟	烟	二	爲	一	烟	瑞	城	城	騎	連	好	[新]	29
一	巴	廿	家	看	看	三	社	而	婁	五	船	太	[羅]	30
看	奴	一	爲	烟	烟	東	婁	餘	城	萬	□	[王]	□	31
烟	城	古	看	改	十	海	鴨	■	■	□	□	□	△	32
三	韓	[須]	烟	谷	瞥	賈	盧	國	白	□	□	□	□	33
弥	九	耶	豆	三	連	國	肅	駭	城	□	[王]	□	□	34
鄒	家	羅	比	家	二	烟	斯	■	□	□	躬	國	□	35
城	爲	城	鴨	爲	家	三	舍	[觀]	城	□	率	寐	□	36
國	看	一	岑	看	爲	看	鴨	□	□	□	[住]	[錦]	□	37
烟	烟	家	韓	烟	看	烟	[盧]	□	□	□	[討]	□	□	38
一	白	爲	五	新	烟	五	□	□	□	□	[從]	[家]	殘	39
看	模	看	家	城	俳	敦	□	□	□	[王]	平	僕	■	40
烟	盧	烟	爲	三	婁	城	□	□	那	師	穰	句	潰	41

<표 5-4> 광개토왕릉비 제4면 판독안

9	8	7	6	5	4	3	2	1	
又	不	其	若	家	城	城	殘		1
制	安	不	吾	爲	一	國	南		2
守	石	知	萬	看	家	烟	居		3
墓	碑	法	年	烟	爲	二	韓		4
人	致	則	之	國	國	看	國	七	5
自	使	復	後	岡	烟	烟	烟	也	6
今	守	取	安	上	那	八	一	利	7
以	墓	舊	守	廣	旦	瑑	看	城	8
後	人	民	墓	開	城	城	烟	三	9
不	烟	一	者	土	一	國	五	家	10
得	戶	百	但	境	家	烟	大	爲	11
更	差	十	取	好	爲	一	山	看	12
相	錯	家	吾	太	看	看	韓	烟	13
轉	唯	合	躬	王	烟	烟	城	豆	14
賣	國	新	巡	存	句	八	六	奴	15
雖	岡	舊	所	時	牟	味	家	城	16
有	上	守	略	教	城	城	爲	國	17
富	廣	墓	來	言	一	六	看	烟	18
足	開	戶	韓	祖	家	家	烟	一	19
之	土	國	穢	王	爲	爲	農	看	20
者	境	烟	令	先	看	看	賣	烟	21
亦	好	卅	備	王	烟	烟	城	二	22
不	太	看	洒	但	於	就	國	奧	23
得	王	烟	掃	教	利	咨	烟	利	24
擅	盡	三	言	取	城	城	一	城	25
買	爲	百	教	遠	八	五	看	國	26
其	祖	都	如	近	家	家	烟	烟	27
有	先	合	此	舊	爲	爲	七	二	28
違	王	三	是	民	看	看	閏	看	29
令	墓	百	以	守	烟	烟	奴	烟	30
賣	上	卅	如	墓	比	彡	城	八	31
者	立	家	教	洒	利	穰	國	須	32
刑	碑	自	令	掃	城	城	烟	鄒	33
之	銘	上	取	吾	三	廿	二	城	34
買	其	祖	韓	慮	家	四	看	國	35
人	烟	先	穢	舊	爲	家	烟	烟	36
制	戶	王	二	民	看	爲	廿	二	37
令	不	以	百	轉	烟	看	二	看	38
守	令	來	卅	當	細	烟	古	烟	39
墓	差	墓	家	贏	城	散	牟	五	40
之	錯	上	慮	劣	三	那	婁	百	41

# 광개토왕릉비 판독논란자 판독안 비교표

여호규(한국외대 사학과, 2023. 2. 7)

<부표 1-1> 제1면의 판독논란자 판독안 비교표(43자)<sup>1)</sup>

면-행-자	三宅米吉	羅進玉	前問恭作	박시형	王健群	耿鐵華	박진석	方起東	徐建新	손영중	水谷	武田幸男	白崎	노태돈	임기중	임/이	권인한	고광의	기경량	여호규
1-1-34	□	*弘	□	弘	德	德	弘	[德]	弘	德	□	□	[德]	□	[德]	□	□	豫	[豫]	[豫]
1-2-15	津	津	津	津	津	津	聿	津	津	津	津	津	聿	津	聿	津	津	聿	津	津
1-3-27	因	因	因	因	因	因	因	天	天	犬	因	天	天	因	天	因	天	天	天	因
1-3-41	黃	黃	黃	黃	黃	履	履	履	*黃	黃	履	履	履	履	履	履	履	履	履	履
1-4-2	頁	頁	負	負	負	首	負	首	頁	負	首	首	首	頁	首	頁	首	頁	首	頁
1-5-9	太	太	太	大	太	太	太	太	太	太	太	太	太	大	太	大	太	太	太	太
1-5-13	□	洽	□	□	洽	[洽]	□	[洽]	*洽	洽	□	洽	[格]	洽	洽	洽	格	□	格	格
1-5-25	□	□	□	□	[不]	[不]	□	不	□	[不]	□	□	[不]	□	□	□	□	□	□	□
1-5-26	□	□	□	□	□	□	□	佞	□	□	□	□	[軌]	□	□	□	□	□	[妄]	□
1-6-5	晏	晏	晏	晏	宴	宴	宴	宴	*晏	晏	宴	宴	晏	寔	宴	寔	晏	晏	寔	宴
1-6-38	□	□	詞	詞	詞	[辞]	詞	[辞]	辞	詞	辞	辞	[辞]	詞	[辞]	詞	[辞]	(辞)	[辞]	辞
1-7-14	□	息	□	息	歸	歸	□	[歸]	□	[歸]	□	□	[問]	□	伺	□	□	(祠)	[嗣]	△祠
1-7-15	□	□	□	□	□	□	□	□	[我]	□	□	□	□	[望]	□	□	□	□	□	□
1-7-16	又	又	□	□	人	□	人	人	人	[人]	□	人	[久]	人	人	人	久	久	久	久
1-7-24	□	負	負	負	負	冨	負	貧	賚	[負]	□	賚	負	負	負	負	賚	貧	貧	貧
1-8-12	駕	𨔵	𨔵	𨔵	襄	襄	襄	[襄]	*襄	[襄]	□	襄	□	襄	襄	襄	襄	□	[襄]	襄
1-8-17	□	□	□	□	□	□	□	□	□	□	□	[候]	□	□	□	□	□	△	□	△
1-8-25	𨔵	狷	狷	狷	猎	海	狷	狩	海	𨔵	海	海	[狷]	□	海	□	𨔵	(獵)	狷	海
1-8-31	狷	狷	狷	獵	猎	獵	狷	獵	*獵	*獵	獵	獵	獵	獵	狷	獵	獵	(獵)	獵	*獵
1-9-13	海	海	海	海	海	每	海	海	海	洩	□	□	每	□	泗	□	海	□	[海]	海
1-9-17	□	□	□	□	□	□	□	□	*	東	□	□	[更]	□	□	□	[東]	□	□	■
1-9-19	□	□	□	□	新	[新]	昕	[新]	昕	[新]	新	新	新	新	[新]	新	[新]	昕	新	[新]
1-9-33	大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	□	[大]	□	水	水	□	(大)	六	大
1-9-40	□	□	□	□	至	[至]	□	至	□	□	□	□	□	□	□	□	□	□	□	■
1-9-41	□	□	□	□	窠	□	□	[窠]	殘	□	□	□	□	殘	□	□	(殘)	□	[殘]	殘
1-10-1	首	首	首	首	南	道	道	南	□	南	首	南	[但]	首	國	南	□	□	[首]	首
1-10-4	寧	壹	壹	壹	寧	寧	壹	寧	壹	壺	壹	寧	壹	寧	壹	寧	壹	壹	壹	壹
1-10-18	□	□	□	□	[城]	[城]	□	[城]	城	[城]	□	[城]	[城]	城	[城]	城	城	(城)	[城]	[城]
1-10-22	關	閣	閣	閣	閣	關	閣	閣	閣	閣	關	關	閣	閣	閣	閣	閣	閣	閣	閣
1-10-31	□	□	□	□	古	古	□	古	□	[古]	□	□	[古]	□	□	□	□	□	□	[國]
1-10-36	旦	旦	旦	且*	旦	旦	且	旦	旦	且	旦	旦	旦	旦	且	旦	旦	旦	旦	旦
1-11-13	須	模	模	模	模	模	模	模	須	[須]	須	須	須	模	須	模	須	須	[模]	須
1-11-17	頁	頁	頁	頁	須	莫	莫	須	莫	#	莫	莫	[漠]	頁	莫	莫	莫	(莫)	[莫]	頁
1-11-18	□	□	□	□	鄒	□	□	□	□	□	□	□	□	□	□	□	□	□	□	□
1-11-19	□	□	□	□	城	□	□	□	□	[城]	□	□	□	□	□	城	□	城	□	□
1-11-23	分	□	□	□	□	□	□	介	分	□	□	□	分	□	[芬]	□	芬	(分)	分	分
1-11-27	□	□	□	□	城	城	□	[城]	□	[城]	□	[城]	城	[城]	城	□	(城)	城	[城]	城
1-11-30	□	□	□	□	於	□	[於]	□	□	[於]	□	於	[於]	於	於	於	[於]	□	於	於
1-11-33	□	□	□	□	農	□	□	□	□	[農]	□	農	□	□	□	□	□	□	[農]	■
1-11-34	□	□	□	□	賣	□	□	□	□	[賣]	□	[賣]	□	□	□	□	□	□	賣	□
1-11-35	□	□	□	□	城	城	□	[城]	□	[城]	□	[城]	□	城	城	城	城	(城)	城	[城]
1-11-40	□	□	□	□	[城]	□	□	[城]	□	[城]	□	□	□	[城]	□	□	□	□	□	□
1-11-41	□	□	□	□	比	□	□	□	□	[比]	□	□	□	□	□	□	□	□	□	□

=> 43자 검토 : 11자 판독 불능처리, 3자 문맥상 추독, 2자 일부 자획 제시, 27자 전체 자형 제시(1자 신판독)

1) 판독 부호 : [ ] : 문맥상 추독, [글자] : 자획상 추독, ■ : 자획 존재, □ : 판독 불능자  
 '임/이'는 '임세권/이우태'의 약자임.  
 徐建新 판독안 가운데 '\*' 표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글자의 일부 자획만 모사한 경우이다.

<부표 2-1> 제2면의 판독논란자 판독안 비교표(54자)

면-행-자	三宅 米吉	羅進 玉	前問 恭作	박시 형	王健 群	耿鐵 華	박진 석	方起 東	徐建 新	손영 중	水谷	武田 幸男	白崎	노태 돈	임기 중	임/ 이	권인 한	고광 익	기경 량	여호 규
2-1-9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太	大	太	大	太	太	(大)	太	大
2-1-21	□	□	□	□	□	□	□	□	*城	□	□	□	[城]	□	[城]	□	□	城	城	城
2-1-22	□	□	□	□	城	城	□	城	□	城	[城]	城	□	城	□	城	城	(國)	[咸]	國
2-1-27	□	□	□	□	那	那	[那]	那	□	[那]	[那]	那	[那]	那	[那]	那	那	□	[那]	[那]
2-1-29	□	□	□	□	那	那	[那]	那	那	那	那	[那]	[那]	[那]	[那]	那	那	□	[那]	[那]
2-2-11	至	至	□	岨	岨	岨	至	民	至	岨	□	□	#	□	三	□	□	(民)	[古]	三
2-2-13	林	林	林	林	林	林	林	味	味	林	味	林	林	林	林	林	林	(祿)	林	林
2-2-15	□	□	□	□	□	□	[廡]	但	□	□	□	□	□	□	但	□	□	棋	□	但
2-2-16	□	□	□	□	□	□	□	城	城	□	□	□	[城]	□	[城]	□	□	城	城	城
2-2-17	□	□	□	□	□	□	□	□	□	□	□	□	□	□	□	□	□	□	□	昕
2-2-20	□	□	□	□	□	□	□	□	□	□	□	□	□	□	[城]	□	□	□	[城]	□
2-2-21	□	□	□	□	□	□	[衣]	□	□	□	□	□	□	□	[未]	□	□	□	□	□
2-3-2	□	□	□	□	曾	曾	□	□	□	[曾]	□	□	[普]	曾	昔	□	普	□	[曾]	曾
2-3-3	□	□	□	□	拔	[拔]	□	[婁]	□	[拔]	□	□	□	□	□	□	□	□	□	[婁]
2-3-4	□	□	□	□	城	城	□	□	□	城	城	城	[城]	城	[城]	城	□	□	城	城
2-3-5	□	□	□	□	宗	宗	□	[儒]	□	[宗]	□	儒	宗	□	□	□	□	□	[儒]	[儒]
2-3-6	□	□	□	□	古	古	□	古	古	[古]	□	□	古	□	[古]	□	[古]	(古)	古	古
2-3-13	□	□	□	□	□	□	□	□	□	□	□	□	□	□	[國]	□	□	□	□	國
2-3-15	□	□	□	□	□	□	□	□	□	城	□	[城]	[城]	□	[城]	□	[城]	□	□	[城]
2-3-16	□	□	□	□	逼	□	□	□	□	[逼]	□	□	□	□	□	□	□	□	□	□
2-3-40	橫	橫	橫	橫	殘	殘	□	殘	□	[殘]	橫	□	[橫]	□	[橫]	□	橫	(橫)	□	橫
2-3-41	□	□	□	□	兵	□	□	□	□	兵	□	□	□	□	[城]	□	□	□	□	□
2-4-1	□	□	□	□	歸	歸	□	歸	*	[歸]	□	侵	[徧]	歸	侵	□	侵	(歸)	歸	歸
2-4-3	□	□	□	□	就	就	□	就	*就	□	□	□	就	□	[城]	□	就	□	□	就
2-4-13	□	出	出	出	出	出	[出]	出	□	[出]	□	□	[出]	出	[出]	出	[出]	□	□	□
2-4-25	歸	歸	歸	歸	跪	歸	歸	跪	跪	□	跪	跪	跪	跪	跪	跪	跪	跪	跪	跪
2-4-41	□	□	□	□	始	先	[先]	先	*先	[先]	先	先	先	□	先	□	先	□	□	[先]
2-5-3	*徵	衙	衙	衙	愆	愆	愆	愆	*衙	愆	愆	愆	愆	愆	愆	愆	愆	衙	愆	愆
2-5-12	□	□	□	□	得	得	□	得	□	[得]	□	得	[得]	得	[得]	得	[得]	(得)	[得]	[得]
2-6-1	烏	烏	烏	烏	帛	帛	烏	帛	*肅	烏	帛	肅	肅	烏	肅	帛	烏	(帛)	[肅]	烏
2-6-10	□	新	新	□	斯	斯	□	□	听	[斯]	□	□	斯	□	□	□	□	□	□	斯
2-6-29	□	論	論	論	論	論	論	聆	論	論	□	論	論	論	論	論	論	聆	論	聆
2-7-38	稱	稱	稱	稱	稱	稱	稱	稱	矜	稱	矜	稱	稱	矜	稱	矜	矜	(矜)	矜	矜
2-8-1	時	□	□	□	特	特	□	特	*時	[特]	□	□	□	□	[特]	□	□	特	特	[特]
2-8-7	□	□	□	□	密	密	□	[密]	*密	[密]	□	□	□	□	□	□	□	□	□	[密]
2-9-8	□	□	□	□	自	自	□	自	□	[自]	□	□	[自]	□	□	□	□	□	□	官
2-9-9	□	來	來	來	倭	倭	□	倭	□	[倭]	來	侵	[倭]	□	侵	□	侵	□	□	軍
2-9-30	拔	拔	拔	拔	拔	拔	[拔]	[拔]	□	拔	□	□	□	□	□	□	□	□	□	[還]
2-9-34	□	□	□	□	鹽	[鹽]	[鹽]	晨	*鹽	[鹽]	□	□	鹽	□	眈	□	□	(鹽)	□	監
2-9-37	滿	滿	滿	滿	寇	滿	□	寇	*寇	寇	滿	□	寇	寇	□	寇	[寇]	(寇)	寇	寇
2-9-38	倭	倭	倭	倭	大	倭	□	大	大	[大]	倭	倭	[委]	大	[倭]	大	委	□	大	大
2-9-41	大	大	六	□	內	內	內	內	內	內	□	大	內	□	內	□	內	□	[大]	內
2-10-17	□	□	□	□	十	十	十	十	十	十	결	□	十	□	□	□	十	(十)	□	十
2-10-18	九	□	九	□	九	九	九	九	九	九	□	□	九	□	[九]	□	九	(九)	□	九
2-10-20	臣	□	臣	□	拒	拒	[拒]	拒	*拒	[拒]	更	更	[拒]	□	拒	□	拒	(拒)	□	更
2-10-21	有	有	□	□	隨	隨	隨	隨	*隨	[隨]	□	□	[隨]	□	[隋]	□	隨	(脩)	□	脩
2-10-22	尖	□	來	□	倭	倭	□	倭	□	[倭]	來	□	[倭]	□	□	□	倭	□	□	改
2-10-28	□	□	滿	□	新	滿	滿	□	*新	□	滿	滿	[捕]	新	滿	新	[捕]	汨	□	新
2-10-29	□	□	□	□	羅	羅	□	□	□	□	□	□	□	□	□	□	□	□	□	[羅]
2-10-30	□	□	□	□	城	城	□	□	□	城	□	□	□	□	□	□	□	□	□	[城]
2-10-32	□	□	□	□	□	□	[免]	得	*	□	□	□	□	□	[是]	□	□	得	□	得
2-10-34	□	□	□	□	□	爲	□	爲	□	□	□	□	[村]	□	□	□	□	□	□	村
2-10-35	□	□	□	□	□	倭	□	□	□	□	□	□	[殊]	□	利	□	□	□	□	津
2-10-36	□	□	□	□	□	□	□	九	□	□	□	□	□	□	□	□	□	(九)	□	■

=> 54자 검토 : 6자 판독 불능처리, 3자 문맥상 추독, 1자 일부 자획 제시, 44자 전체 자형 제시(6자 신판독)

<부표 3-1> 제3면의 판독논란자 판독안 비교(60자)

면-행-자	三宅 米吉	羅進 玉	前間 恭作	박시 형	王健 群	耿鐵 華	박진 석	方起 東	徐建 新	손영 중	水谷	武田 幸男	白崎	노태 돈	임기 중	임/ 이	권인 한	고광 의	기경 량	여호 규	
3-1-1		□	□	□	□	□	□	□	□	□	□	□	□	□	□	□	□	□	□	□	日
3-1-3		□	□	□	且	□	□	□	□	□	□	□	[旦]	□	□	□	□	□	□	□	日
3-1-5		□	□	□	□	□	□	[倭]	□	□	□	□	[倭]	□	[倭]	□	倭	□	□	□	日
3-1-6		□	□	□	□	□	□	□	□	□	□	□	□	□	[城]	□	□	□	□	□	□
3-1-7		□	□	□	□	□	□	□	□	□	□	□	□	□	[珍]	□	□	□	□	□	□
3-1-16		□	□	□	□	□	□	[興]	□	□	□	□	[興]	□	[興]	□	[興]	□	□	□	[興]
3-1-17		□	□	□	□	□	□	□	□	□	□	□	□	□	□	□	□	□	□	□	日
3-1-29		□	□	□	□	□	□	□	□	□	□	□	□	□	□	□	□	□	□	□	[新]
3-1-30		□	□	□	□	□	□	□	*羅	□	□	□	□	□	□	□	□	□	□	□	[羅]
3-1-31		□	□	□	出	□	□	□	□	□	□	□	□	□	□	□	□	□	□	□	□
3-1-32		□	□	□	□	□	□	□	□	□	□	□	□	□	□	□	□	□	□	□	日
3-1-39		□	□	□	殘	□	□	[殘]	*殘	[殘]	□	□	[殘]	□	□	□	□	□	□	□	殘
3-1-40		□	□	□	倭	□	□	□	□	[倭]	□	□	[倭]	□	□	□	□	□	□	□	日
3-2-1	赤	□	□	□	逃	□	□	□	□	[逃]	□	□	亦	□	[亦]	□	亦	□	□	□	亦
3-2-2	□	□	□	□	拔	□	[以]	[八]	□	[拔]	以	□	以	□	[以]	□	以	□	□	□	以
3-2-3	□	□	□	□	□	羅	[隨]	□	*隨	□	隨	□	隨	□	[陌]	□	隨	□	□	□	隨
3-2-4	□	□	□	□	城	城	□	□	□	[城]	□	□	□	□	□	□	□	□	□	□	日
3-2-5	安	□	□	□	安	安	[安]	安	安	安	安	安	安	安	[安]	安	安	安	安	安	[安]
3-2-19	朝	朝	朝	朝	論	朝	論	聆	論	[論]	□	論	論	論	論	論	論	論	論	論	聆
3-2-20	貢	□	□	□	事	貢	事	事	事	[事]	□	事	事	事	事	事	事	事	事	事	事
3-2-21	□	□	□	□	□	□	□	□	□	[至]	□	□	□	□	[和]	□	□	□	□	□	□
3-2-22	□	□	□	□	□	□	□	□	□	[國]	□	[國]	□	國	[國]	國	國	□	□	□	國
3-2-23	□	□	□	□	□	□	□	□	□	正	□	正	□	正	正	正	□	□	□	□	[岡]
3-2-24	□	□	□	□	□	□	□	□	□	[上]	□	[上]	□	上	[上]	上	□	□	□	□	[上]
3-2-25	□	□	□	□	廣	[廣]	□	[廣]	□	]廣	□	[廣]	[廣]	廣	[廣]	廣	□	□	□	□	廣
3-2-31	王	□	□	□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3-2-34	□	□	□	□	□	□	□	□	□	□	□	□	□	□	[新]	□	□	□	□	□	□
3-2-35	□	□	□	□	□	□	□	□	□	□	□	□	□	□	[羅]	□	□	□	□	□	國
3-2-37	□	□	□	□	錦	錦	錦	[錦]	□	錦	錦	錦	錦	錦	[錦]	錦	□	□	□	□	錦
3-2-38	□	□	□	□	□	□	□	□	□	[称]	□	□	□	□	□	□	□	□	□	□	□
3-2-39	□	□	□	□	家	家	家	家	*家	[家]	□	□	[家]	□	[家]	□	[家]	□	□	□	家
3-3-1	□	□	□	□	請	□	□	□	□	[請]	□	□	□	□	□	□	□	□	□	□	[請]
3-3-21	□	□	□	□	和	□	[和]	□	*和	[和]	□	□	[和]	□	[和]	□	[和]	□	□	□	和
3-3-22	□	□	□	□	通	□	[通]	□	□	[通]	□	□	□	□	[通]	□	□	□	□	□	通
3-3-23	□	□	□	□	殘	□	[殘]	□	*殘	[殘]	□	□	[殘]	□	[殘]	□	[殘]	□	□	□	[殘]
3-3-24	□	□	□	□	兵	□	□	□	□	[兵]	□	□	□	□	[國]	□	□	□	□	□	[兵]
3-3-25	□	□	□	□	□	□	□	□	□	□	□	□	[至]	□	[至]	□	[至]	□	□	□	[至]
3-3-34	□	□	□	□	王	□	□	□	□	[王]	□	[王]	[王]	王	[王]	王	□	□	□	□	王
3-3-35	□	□	□	□	躬	□	[躬]	□	□	[躬]	□	躬	[躬]	躬	[躬]	躬	□	□	□	□	躬
3-3-37	□	□	□	□	往	□	□	□	□	[往]	□	□	□	□	□	□	□	□	□	□	[往]
3-3-38	□	□	□	□	討	□	□	□	□	[討]	□	□	□	□	□	□	□	□	□	□	[討]
3-4-40	□	□	□	□	王	王	□	□	□	王	□	□	王	□	□	□	□	□	□	□	[王]
3-5-1	□	□	□	□	四	□	□	□	□	[四]	□	□	□	□	□	□	□	□	□	□	□
3-5-2	□	□	□	□	方	□	□	□	□	[方]	□	□	□	□	□	□	□	□	□	□	日
3-5-10	穫	稚	稚	穫	穫	獲	穫	獲	獲	穫	穫	穫	獲	獲	*	獲	獲	獲	獲	獲	穫
3-5-32	□	□	□	□	牛	□	□	□	□	牛	□	□	□	□	[朱]	□	□	□	□	□	日
3-5-33	□	□	□	□	白	□	□	白	住	住	□	住	留	住	白	住	白	□	□	□	白
3-5-36	□	□	□	□	城	□	□	□	□	城	□	□	□	城	□	□	□	□	□	□	城
3-5-40	□	□	□	□	□	□	□	□	□	[城]	□	□	□	□	□	□	□	□	□	□	□
3-5-41	□	□	□	□	□	□	□	□	□	[那]	那	那	□	□	[那]	□	□	□	□	□	那
3-6-32	舉	城	城	城	舉	舉	[城]	舉	舉	□	城	城	[舉]	□	城	□	舉	□	□	□	日
3-6-35	□	□	□	□	服	□	□	服	□	[服]	□	□	服	□	□	□	[服]	□	□	□	日
3-6-36	□	□	□	□	獻	□	□	獻	□	□	□	□	獻	□	□	□	[獻]	□	□	□	[觀]
3-6-37	□	□	□	□	出	□	□	□	□	□	□	□	□	□	□	□	[出]	□	□	□	□
3-7-1	□	□	□	□	□	□	[餘]	歸	□	□	□	□	歸	□	[餘]	□	□	□	□	□	餘

3-7-2	□	□	□	□	□	□	□	□	□	□	□	□	[王]	□	[城]	□	□		□	□
3-7-29	埤	□	□	□	櫛	櫛	櫛	櫛	瑞	櫛	櫛	櫛	[瑞]	櫛	瑞	櫛	瑞		櫛	瑞
3-7-38	□	□	□	□	盧	盧	[盧]	盧	□	[盧]	盧	盧	盧	盧	盧	盧	盧		盧	[盧]
3-12-33	□	家	□	□	模	模	□	模	□	[須]	□	[須]	須	模	□	□	□		[模]	[須]
3-13-1	昷	昷	□	□	昷	昷	昷	昷	昷	昷	昷	[昷]	莫	昷	[莫]	昷	昷		[莫]	昷

=> 60자 검토 : 19자 판독 불능처리, 11자 문맥상 추독, 1자 일부 자획 제시, 29자 전체 자형 제시(6자 신판독)

<부표 4-1> 제4면의 판독논란자 판독안 비교(2자)

면-행-자	三宅米吉	羅進玉	前間恭作	박시형	王健群	耿鐵華	박진석	方起東	徐建新	손영종	水谷	武田幸男	白崎	노태돈	임기중	임/이	권인한	고광의	기경량	여호규
4-1-28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一	一	一	一		二	二
4-2-11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太	大	太	大	太	太		太	大

=> 2자 검토 : 2자 전체 자형 제시

<광개토왕릉비> 제1-4면 검토 현황표

구분	검토 글자수	판독불능 처리	문맥상 추독	일부 자획	판독(신판독)
제1면	43	11	3	2	27(1)
제2면	54	6	3	1	44(6)
제3면	60	19	11	1	29(6)
제4면	2	0	0	0	2
총계	159	36	17	4	102(13)

<광개토왕릉비> 판독 종합표

\* 비면 박락현황

- 완전 박락 118자(판독 불능 101자, 문맥상 추독 17자)
- 일부 박락 45자(판독 불능 16자, 일부 자획 확인 4자, 자획·문맥상 추독 25자)

\* 판독 현황

- 판독 불능자 : 121자(□: 101자, ▣: 16자, 일부 자획 확인자: 4자)
- 판독·추독 가능자 : 1654자(1612자 판독, 25자 자획상 추독, 17자 문맥상 추독)  
cf. 3-5-33자는 자형은 판독되지만 무슨 글자인지는 알 수 없음.